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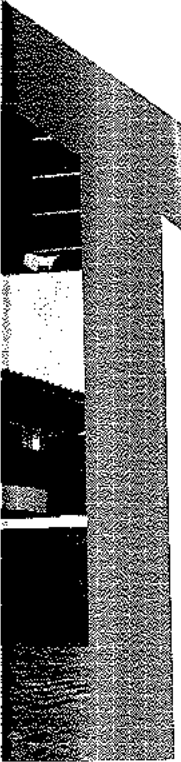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MARCH 1985. NO. 192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주식회사

마리노즈 43 Tel 284-1171
45-25 TEL 73-1141-5



주거환경

용 단열제 청색,
습효과가 뛰어나
습합니다.
것은 위생적인 단
치로폴로 아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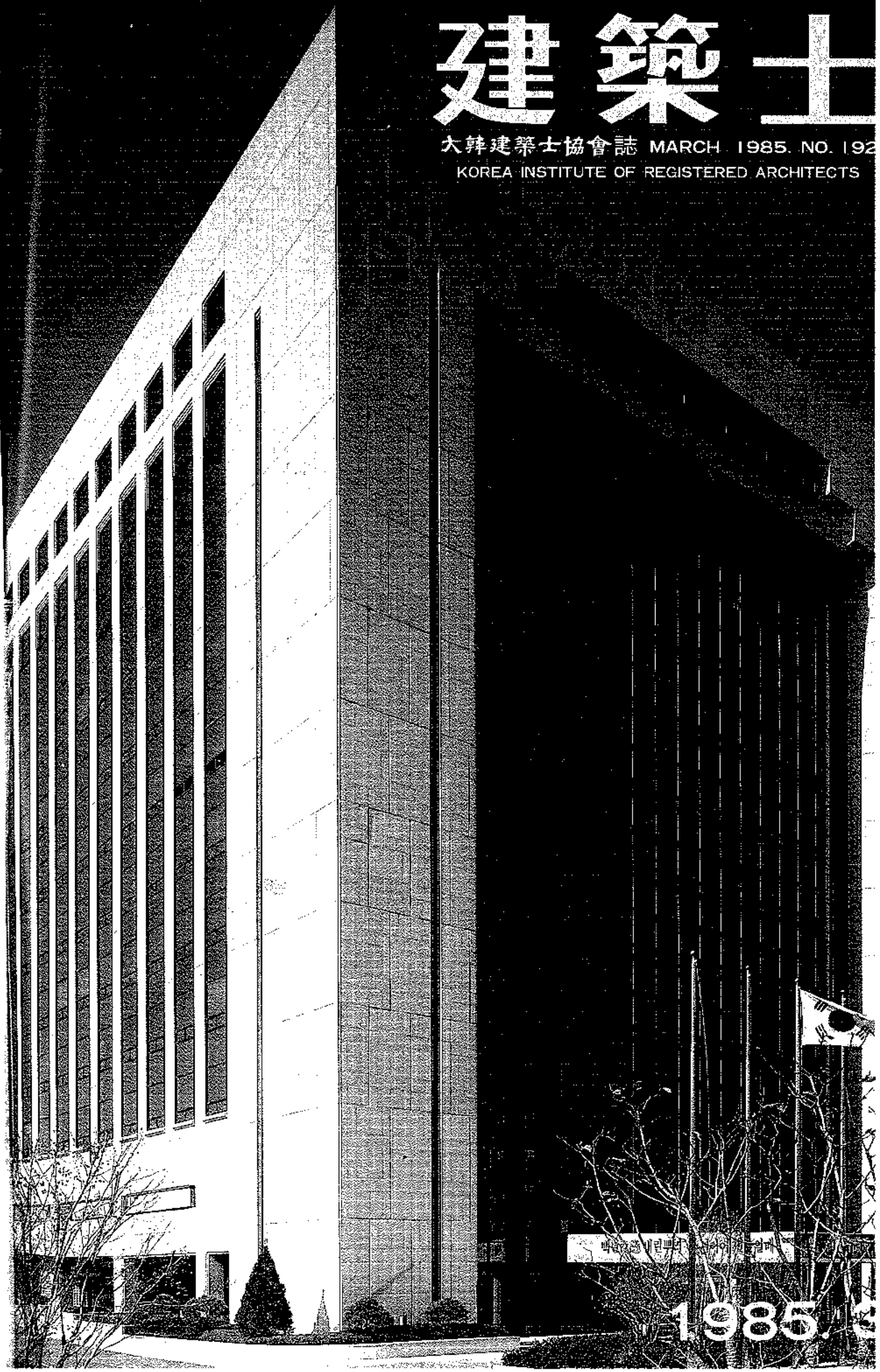
하세요.

에는 정부가 인정
가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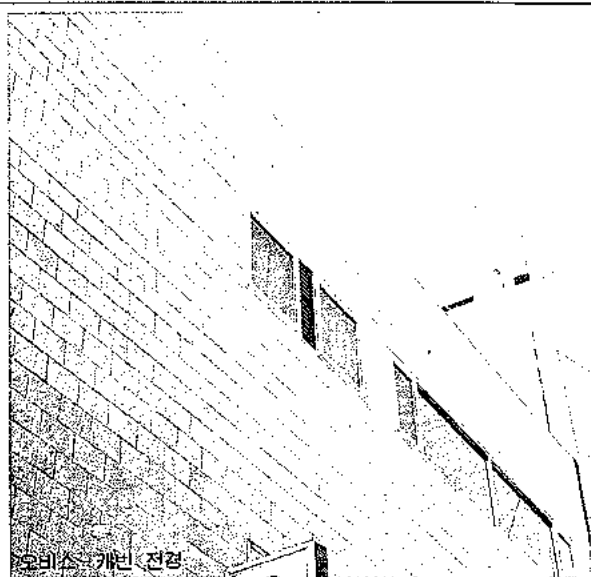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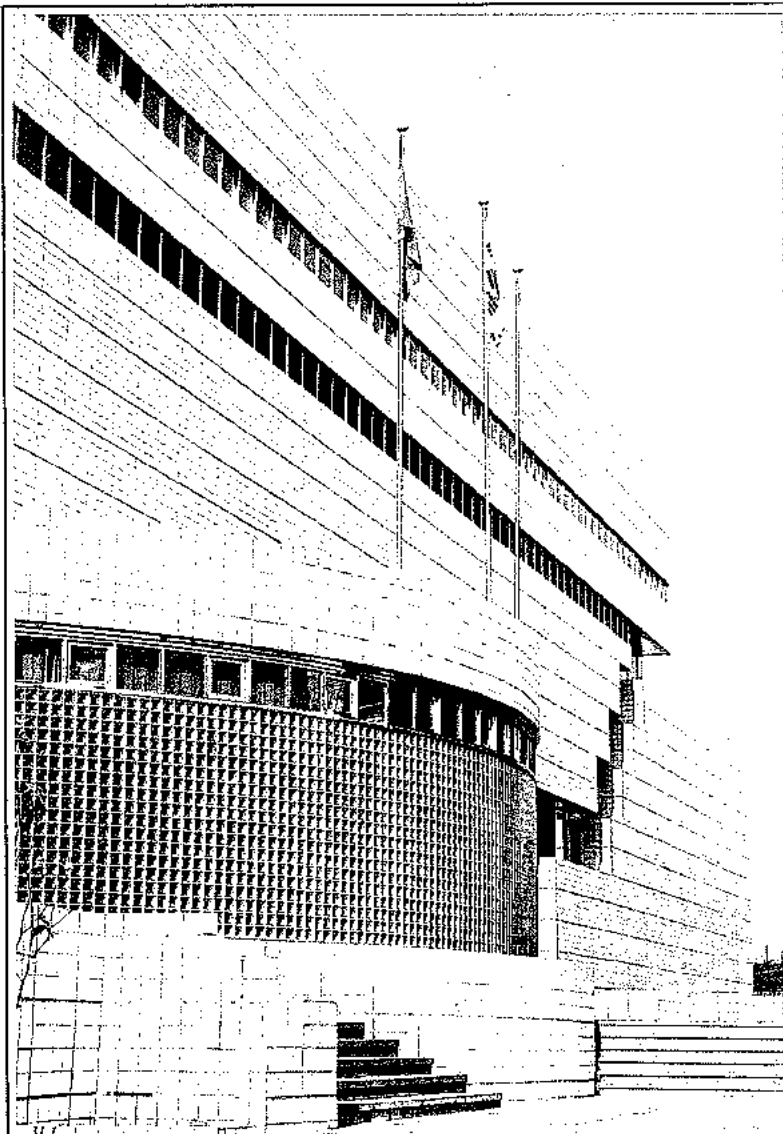
거주에는 실내부는 효과적
어나므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어음에는 열지단 효과로 실내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외부 소음을 통제하는 뛰어난
방음성으로 아늑한 실내 분위기
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문간과 창문이 좋아하므로 시
경이 간편합니다.
무수한 원리로 제조되므로 유
해요소가 없어 안전합니다.



단열 효과를 사용합니다.



1985. 3



에 한 민 등
삼 공 부

Q 91 05256 - (720 - 3549) 1534 2 3

→ 생 수산지 참조

41 2

1. 약탈 생산자인 삼정호(주) 대표, 김원숙으로부터 불법징수 금액
미집액자명만 국산동작을 원소장하여 원용되다.

[illegible]

성명 : 양영호 생년월일 : 1971년 1월 14일 성별 : 남
전화 : 07-3471(-6)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출판처 : 연세북하우스, 코담배상, 서문출판사

정신한 서적 95년 1월

건축패션시대 선언 - 三榮大型 타일

아름답다! 깨끗하다! 안전하다!! 삼영 대형타일로 이제부터 패션시대를 이룩합니다.

타일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온 저희「삼영요업」에서는 국내 최초로 수입에만 의존해 오던 대형 타일을 개발, 시판에 나섰습니다.

삽영 대형타일의 특성

- 외장, 내장, 바닥 모두가 겸용입니다
- 대형장식 무늬와 색채가 다양합니다
- 대리석 대체 효과가 높고 고급 전물 치장재로써 미래 지향적입니다.
- 수입대체로서 경제성이 높습니다
- 우수한 내한성이 있어 겨울에도 얼어터질 염려가 없습니다.

삼영 대형타일의 규격

- 200^{mm}×200^{mm} • 200^{mm}×300^{mm} • 300^{mm}×300^{mm}
• 기타 특수 규격은 주문에 의하여 생산됩니다.



삼영요업주식회사 (K)

서울사무소 : 대표전화 677-3770~4, 676-4894~5

부산사무소 : 대표전화 44-6575·6391

장 : 경남 김해군 진영읍 하계리

전화 (경남진영) 2017 · 3792

서울지역 대리점

- 동우상사 266-2567 • 영남타일상사 265-1455 • 신라타일상사 266-3766 • 유림나스톤(주) 562-8565
• 무일타일상사 266-5587 • 유신타일상사 266-4566 • 유익타일상사 269-7242



PRODUCTS

- WATERPROOFING POWDER
- MORTAR PLASTICISER ● JOINT SEALANT
- INTEGRAL WATER PROOFER
- BONDING ADMIXTURE ● FOAMING AGENT
- AIR ENTRAINING AGENT ● COLOURING
- SET ACCELERATING
- WATER RETARDING ADMIXTURE
- WATER REDUCING ADMIXTURE
- WATER HARDENING ADMIXTURE
- GROUTEX EXPANSIVE GROUT

하국대리점 : 주식회사 에스케이

天井革命

JEIL
LOUVER
SYSTEM

세계
수준의
복합천정제
제일입니다!

당신의
복합천정제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好客使用中

- 국내외 주요 건축사, 인테리어 업체
- 호텔, 아파트, 상업시설, 공공기관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 병원, 학교, 대학교
- 사무실, 호텔, 레스토랑
- 기타

제일산업

02-715-7157

建築士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月刊建築士 1985年3月15日発行

1985.3 NO.192

目次

發行人 = 吳雄錫
編輯 = 出版事業部

編纂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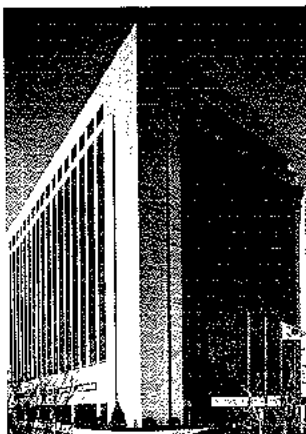
委員長 李永熙
副委員長 金 麟
委員 姜哲求
委員 金琪碩
委員 徐千植
委員 金基雄
委員 呂鴻九

發行 =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江南區瑞草洞 山61-3
郵便番號 = 135
電話 = 서울 (02) 交 581-5711 (代)
5712, 5713, 5714
登錄番號 = 第라-1251
登錄日字 = 1967年3月23日
U. D. C. 69/72 (054-2) : 0612 (519)
印刷人 = 全允珪
(洸文精版社 / 712-2329)

建築士憲章

- 一 建築士는 建築設計, 設計人으로서 創造力을發揮하여 建築文化, 環境에 貢獻을 한다.
- 一 建築士는 國家의 經濟, 生活, 環境의 改善을 위하여 建築士精神을 發揚하여 努力한다.
- 一 建築士는 建築設計와 建築物의 質의 向上을 위하여 専門知識의 更新을 努力한다.
- 一 建築士는 文化의 發展을 바람으로 會員 相互間에 協力하여 建築의 品質을 提高한다.
- 一 建築士는 社會의 發展을 가지고 環境에서 生活하여 社會와 自然에 融合적으로 努力한다.

大韓建築士協會



표지설명 : 대한상공회의소
설계 : 김정철

會員作品

-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철 / (주)정림건축
- 도신산업빌딩
김봉훈 / 신신건축연구소
- PLAZA 654빌딩
정용찬 / 삼우종합건축연구소
- 성북동 A씨 주택
이세훈 / 세하건축연구소
- 갈현동 C씨 주택
진영호 / 진건축연구소
- 성산동 G씨 주택
양재국 / 녹양건축연구소
- 소극장 산울림
정정지 / 합정건축연구소
- 국제센터빌딩
이원혁 / (주)동해건축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192 호
구입년월일	19 . . .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會員 PLAZA

- 6●論壇・專門職業人의 保護育成이 時急하다 / 具玟會
- 28●협회소식
- 32●座談會・서울市建築賞에 對하여
- 38●支部巡禮 ③ 大邱支部
- 40●아시아 건축사의 역할 / Yasmeen Lari
- 46●이렇게 생각한다 / 鄭官謨・李圭鮮
- 53●淨化칼럼・팔방미인이 되어도 모자라는데 / 배동권
- 54●일하며 생각하며 / 김무언・이상현・오기수・김기철
- 68●隨想 / 朴研心

研究論文・其他

- 48●초고층아파트 건축계획설계・大韓住宅公社 / 趙成龍・金天九・韓善福
- 60●인테리의 디자인・욕실 / 趙聖烈
- 64●外部環境의 設計・물 / 崔起秀
- 70●環境과 環境設計 / 梁統在
- 72●環境心理的 接近 / 李揆穆
- 78●都市 plan의 研究 / 鄭慶雲
- 86●에너지 콘크리트 부록 / 이명준

資料

- 96●공사감독관복무규정 개정령
- 98●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 99●신입회원
- 100●회원동정
- 101●건축허가(도서신고) 면허 변동추세

專門職業人의 保護育成이 時急하다

具 珣 會

화신건축연구소

최근 대학입시경향을 보면 학력고사 고득점 수험생이 대거 建築科를 지망하고 있으며 합격선도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 建築文化 暢達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건축을 전공하려는 젊은 세대의 觀念속에는 꿈과 낭만이 있고 화려하리라 기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된다.

어느 專門職이고 간에 손쉬운 것은 없다. 더욱이 건축분야에 있어서 設計라는 직분은 그야말로 荊棘한 길일 수 없다.

오늘날 개업 建築士의 실상은 불과 幾個人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피로에 지쳐있다. 영세성은 말로 아니다.

물론 設計란 致富의 수단이 될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활보장은 불가피하며 사무실 운영에 급급한 나머지 도무지 작품의 세계와는 자꾸만 멀어져 간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더욱 안타까운것은 대학졸업예정자들의 취업경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연히 수련하여야 할 설계실무를 외면하고 대부분 시공회사쪽으로 발길을 돌

리고 있다. 따라서 고급인력을 확보하기는 더욱 힘들고 창작활동의 鈍化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建築不在論이 대두될 때마다 건축인으로써 자책과 동시에 정책부재를 통감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非專門職者에 의하여 專門職者가 추출 당하는 비리가 「건축부재」와 는 절대적 함수관계에 있다고 보며 소위 전문직자인 建築士의 자질에도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면허소지자가 무면허자에 예속 매수되어 많은 건축사의 권익을 짓밟는 사례와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은 「바로하는 위치로 탈은 바뀌고」 設計用役 분야까지 침투, 非理의 建築士로 하여금 교묘한 변칙수단으로 위장 개업을 하여 수많은 건축사의 생업을 위협하는 반역 행위는 차제에 발본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대과업인 '86 Asian game과 '88 Olympic game을 목전에 두고 있다. 두말할 나위없이 온 국민의 총화로 슬기롭게 조국의 현대화를 세계에 조명하여

찬란했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여야 할 뜻깊은 대축제라고 본다.

여기에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國土의 綜合計劃이나 또는 都市計劃에 있어서 건축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리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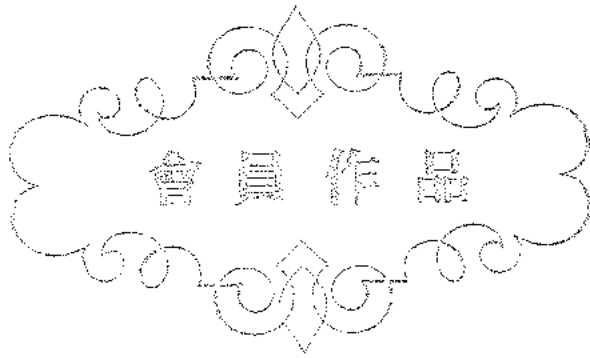
최근 수도 서울 주변의 확장지역이 구태의연하게 형성되는 시가지를 볼때 마다 건축부재를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도시공간의 조형, 미관등이 말이 아니다. 난립된 건축군의 조잡성과 추악상이 어떻게 세계의 눈에 조명될까 두렵다.

당국은 취락지구로 정하고 재개발을 서둘러 있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단성 있는 대책이 요망된다.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라고 한다.

또한 역사의 증언자이기도 하다.

이제 새시대의 章이 열리고 선진조국의 발전된 참 모습이 건축전문직자인 建築士의 손에 의하여 착실히 하나 하나 창출되어 서기 2천년대의 새시대에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전문직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보호육성이 절실히 요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
KOREA CHAMBER BUILDING

金正澈
(주) 정림건축

도산산업빌딩
DO-SHIN BUILDING

金奉勳
신신건축연구소

PLAZA 334빌딩
PLAZA 334 BUILDING

鄭用贊
삼우종합건축연구소

성북동 4세대
SUNGBUK-DONG 4'S RESIDENCE

李世勳
세하건축연구소

팔도동 3세대주거
PALDO-DONG 3'S RESIDENCE

陳永勳
진 건축연구소

성남동 9세대주거
SUNGSAU-DONG 9'S RESIDENCE

梁在國
녹양건축연구소

신곡동 산골빌
SINKUK-DONG SANGOLBIL

鄭正治
합정건축연구소

북악산 3세대
BUKAK SAN 3 BUILDING

李元赫
(주) 동해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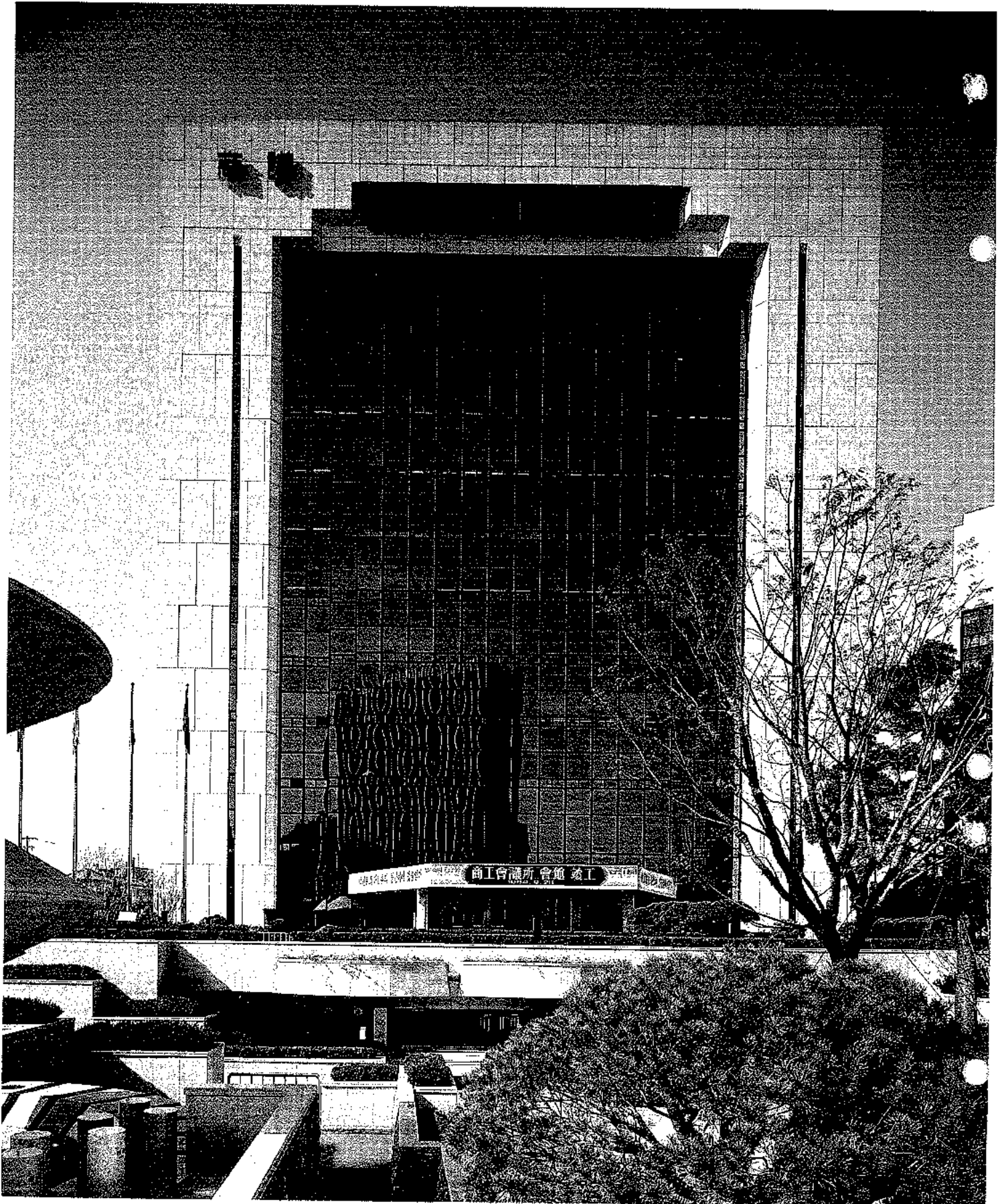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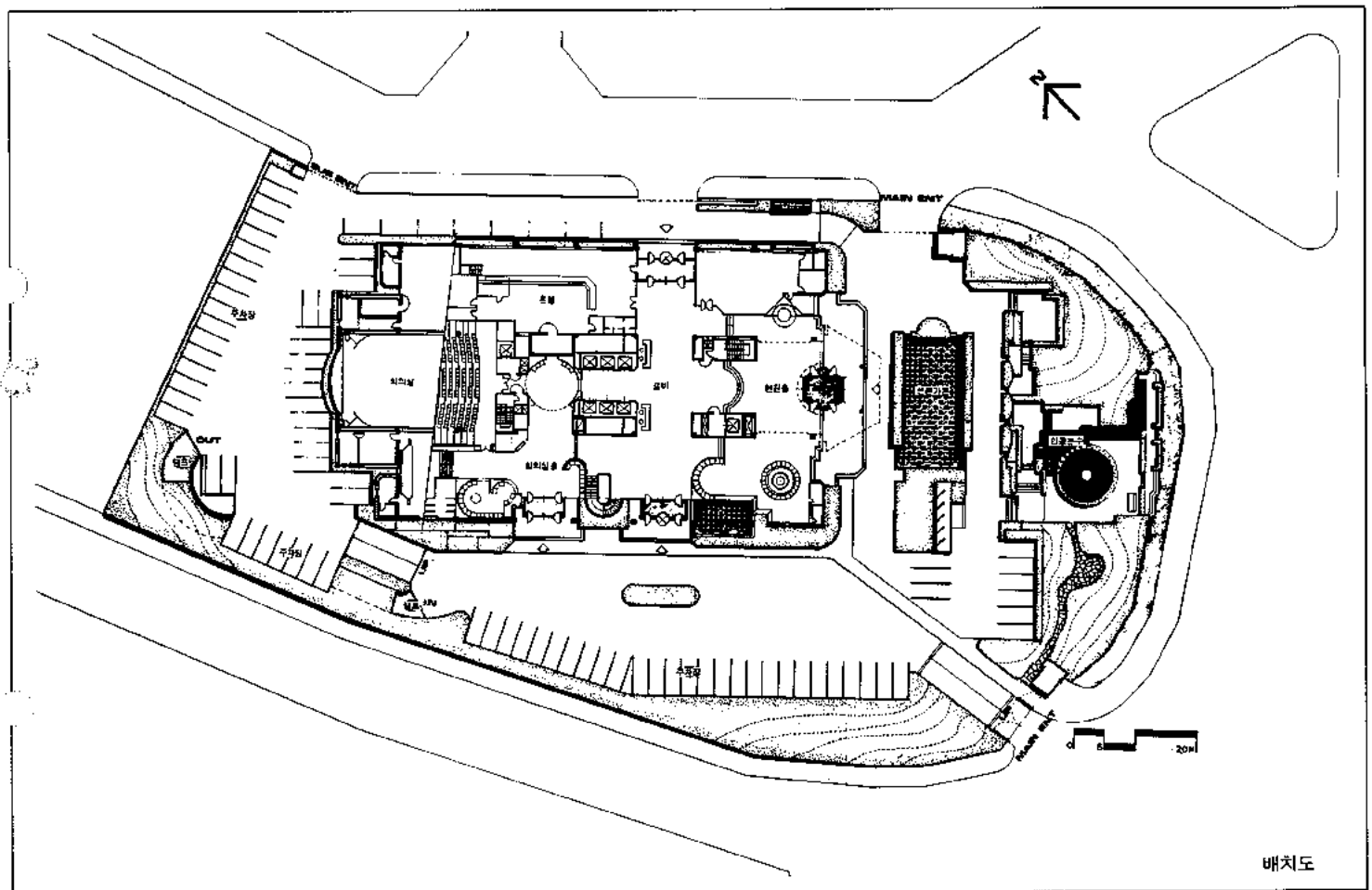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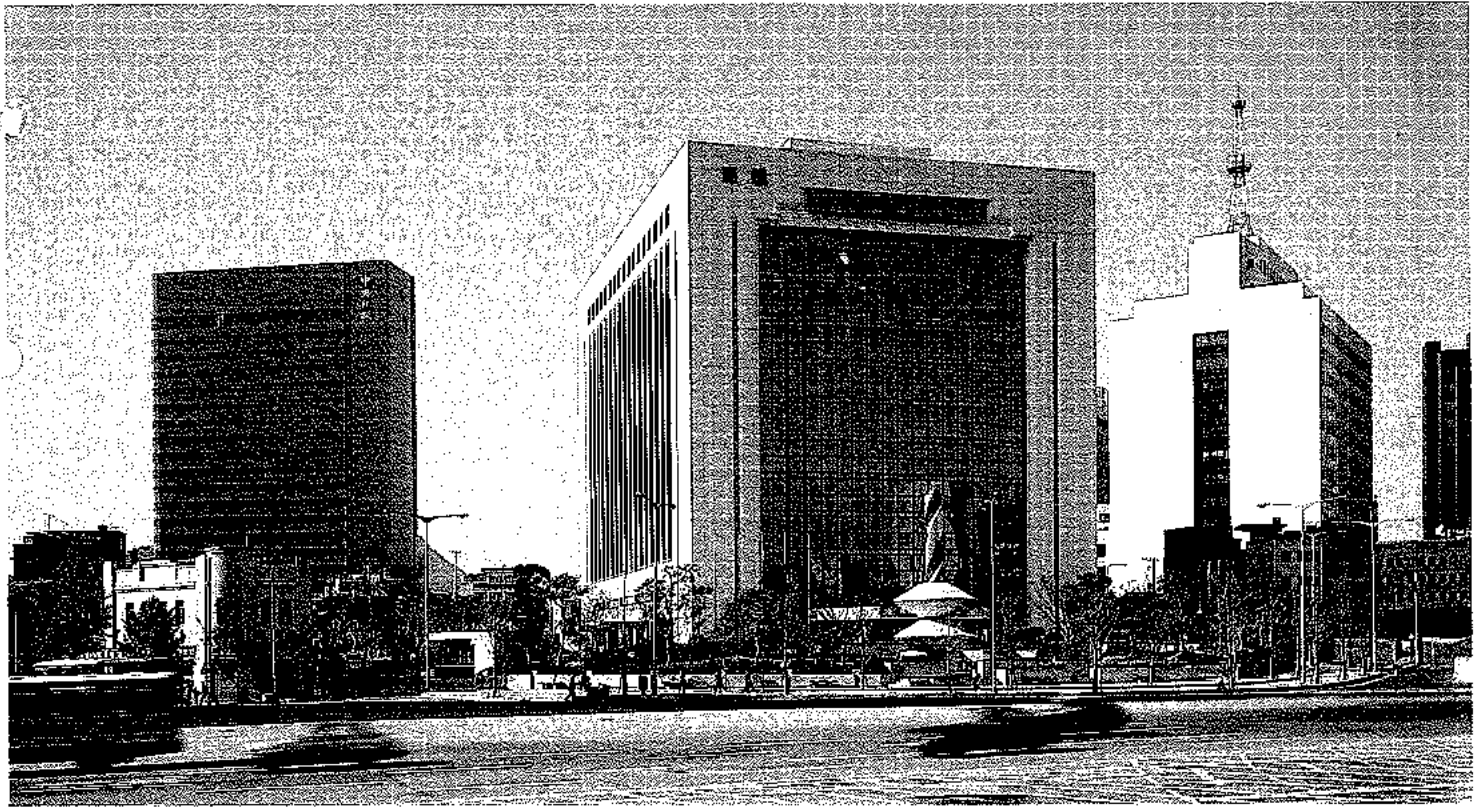
KOREA CHAMBER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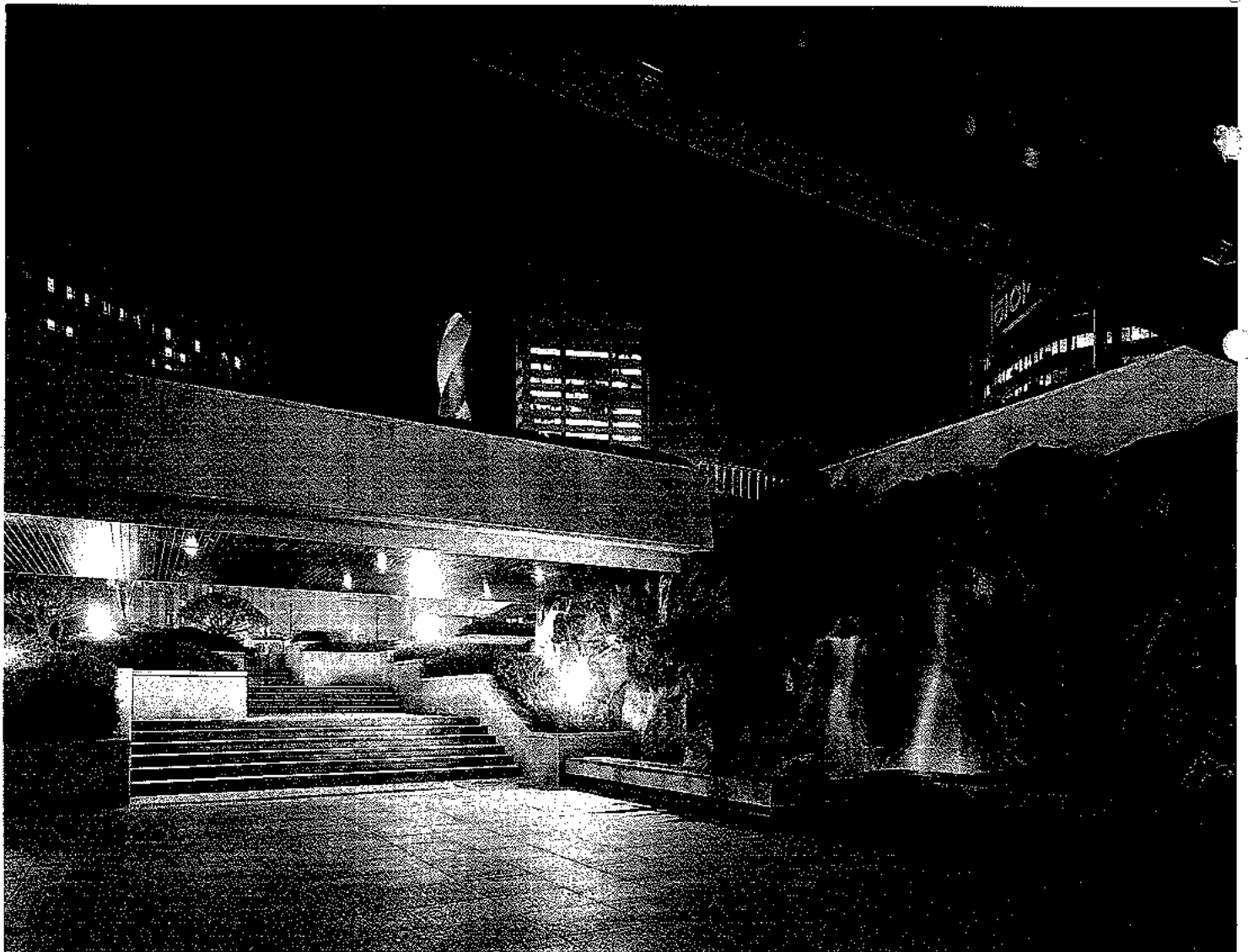
金正澈 / (주) 정림건축

1. 대지위치 :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 건축면적 : 3,344.64㎡
3. 연면적 : 46,139.32㎡
4. 건폐율 : 지하3층, 지상12층, 옥탑2층
5. 용도 : 28.94%
6. 구조 : 279.44%
7.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서울시 건축상 동상 수상작품”







선큰가든아경

〈계획개요〉

○배치계획

주변재개발 지구의 중심이며, SYMBOL이기도 한 문화재 남대문이 갖는 축성과 조화된 배치

○도시환경

국보1호 문화재와 조화되고 주변의 새건물과 공존하면서 독자성을 갖도록 고려함.

○전면 광장 및 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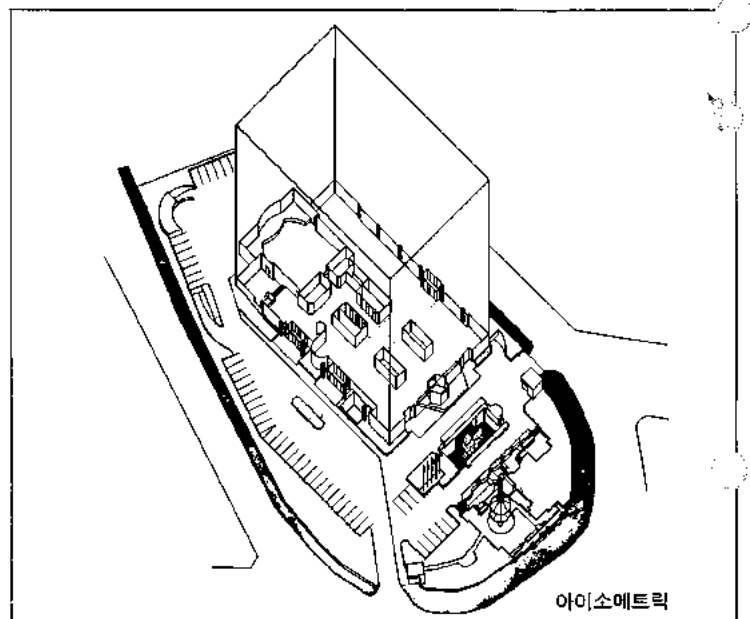
도시민에게 입체적 조경을 만들어 대규모 OPEN SPACE를 제공하며 시민 환경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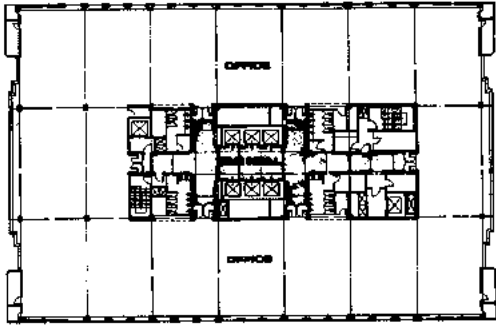
○공간과 조경

상장 및 주공간축 (남대문축)
업무 및 주동선축 (상징축과 직교축)으로 구성하고 우리나라 경제계를 대표하는 품위있는 조형을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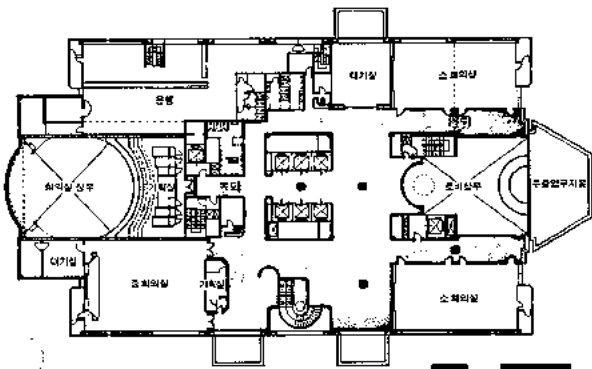
○재 료

우리나라 고유의 내구성 화강석으로 기념성, 상징성 및 백의의 진취성과 정색의 반사유리를 대비시켜 청백의^^ 우아함을 창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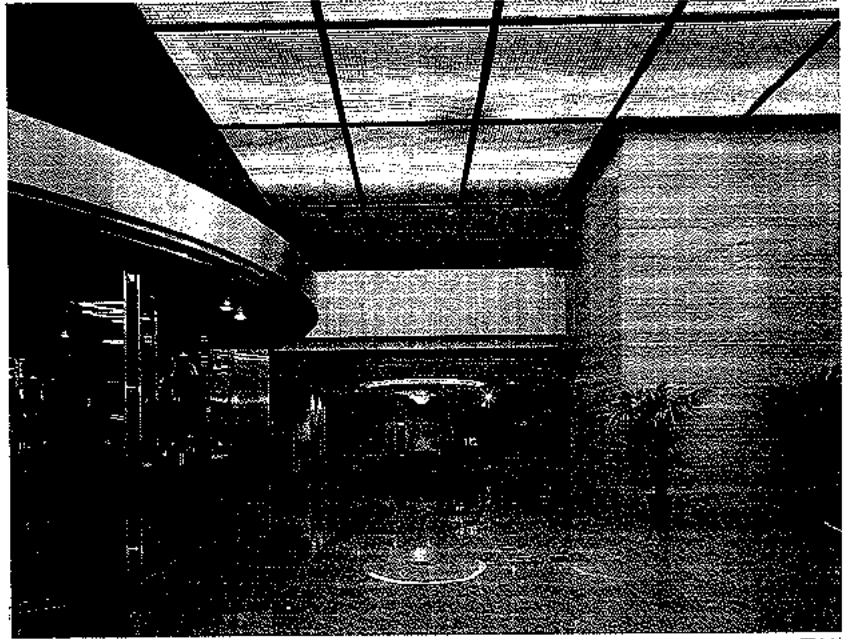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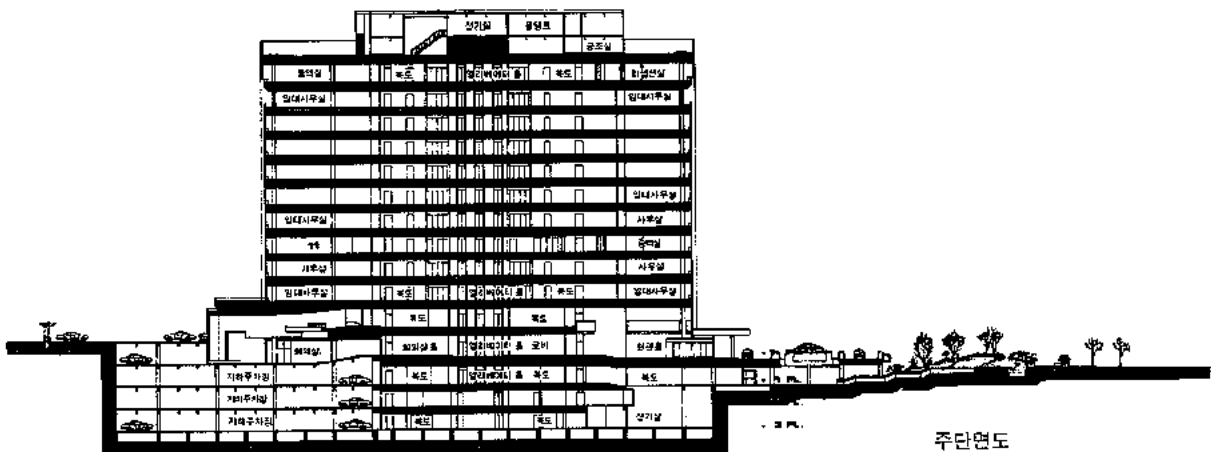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로비



국제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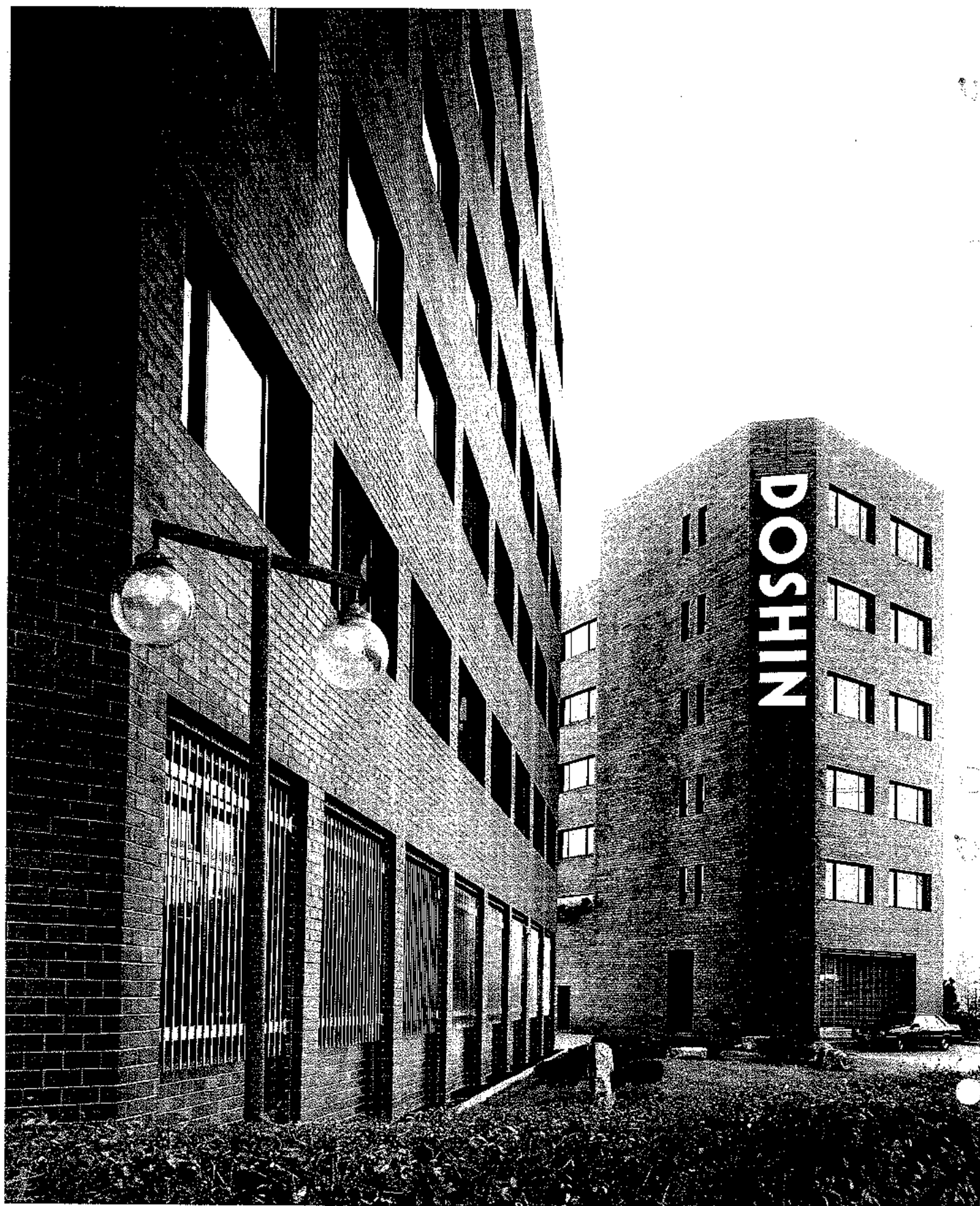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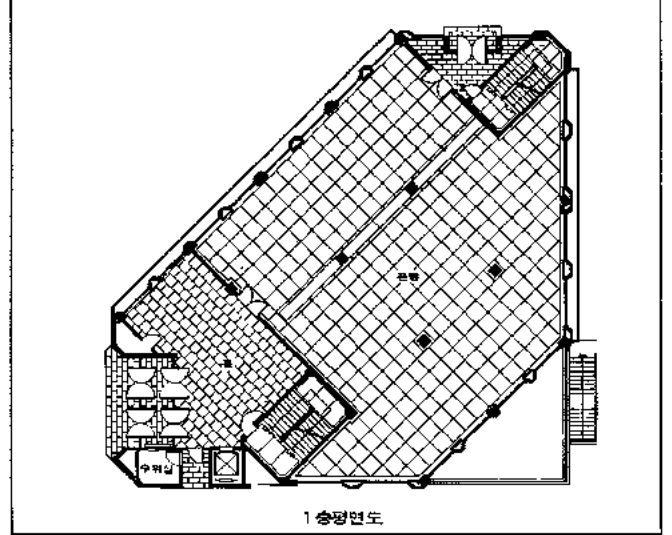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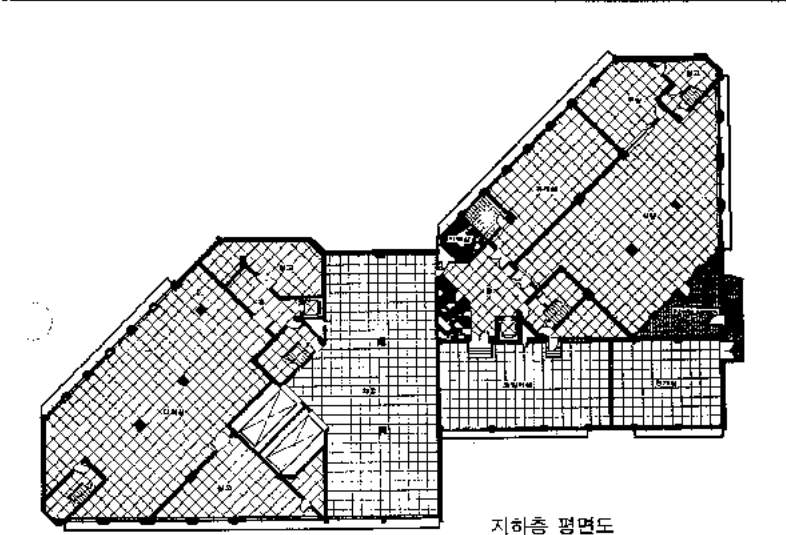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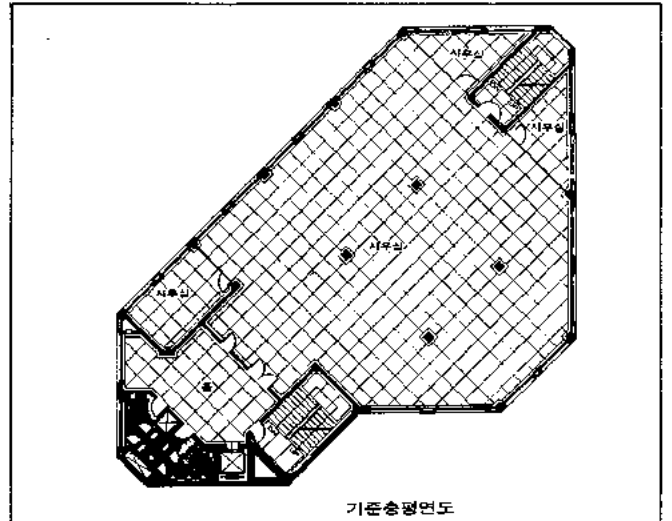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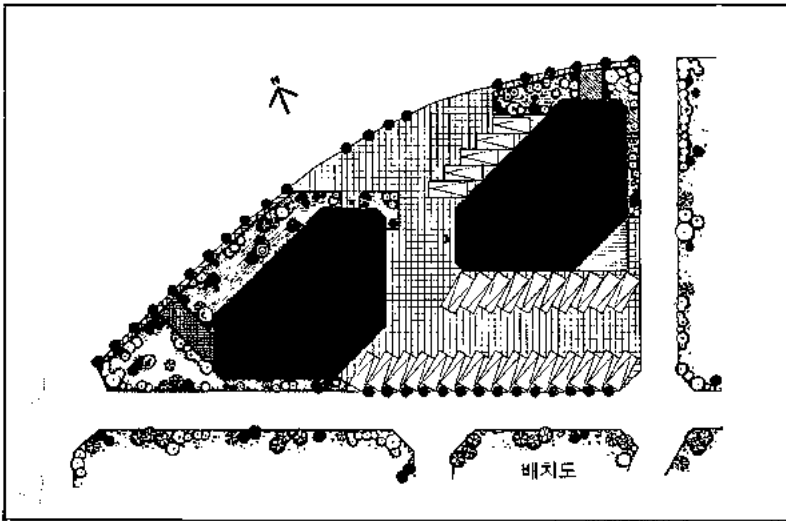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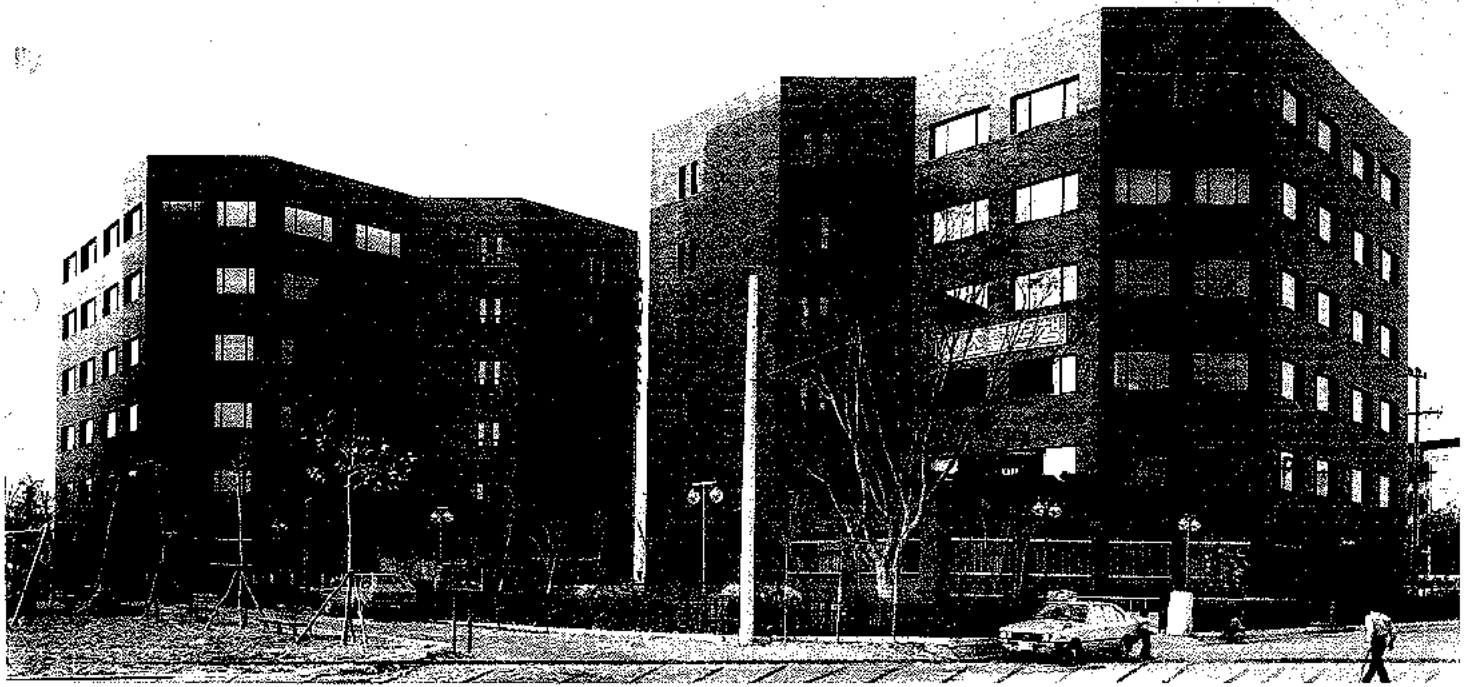
도신산업사옥

DO-SHIN BUILDING

金奉勳 / 신신건축연구소

1. 대지위치 : 서울 강서구 등촌동 537-1
2. 건축면적 : 1,804.6㎡
3. 연면적 : 6,820.23㎡
4.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5.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6. 외장재료 : 외장타일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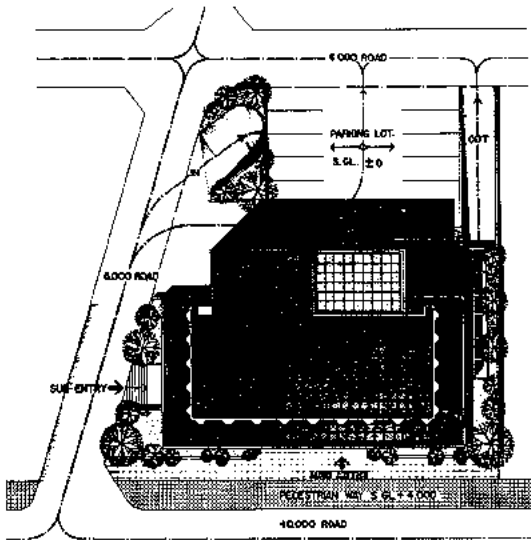
PLAZA 654빌딩

PLAZA 654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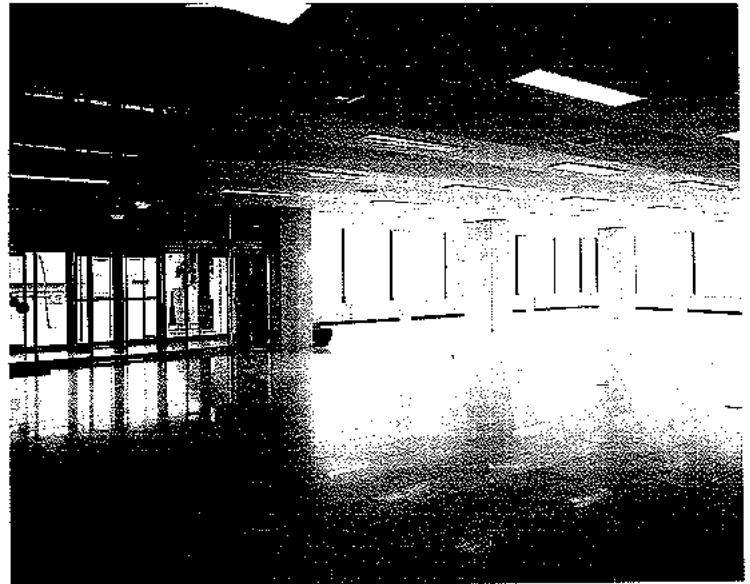
鄭用贊 / 삼우종합건축연구소

1. 대지위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4-3
2. 대지면적 : 1,432.00㎡
3. 건축면적 : 600.00㎡
4. 연면적 : 8,207.30㎡
5. 연면적 : 41.89㎡
6. 용적률 : 422.86%
7.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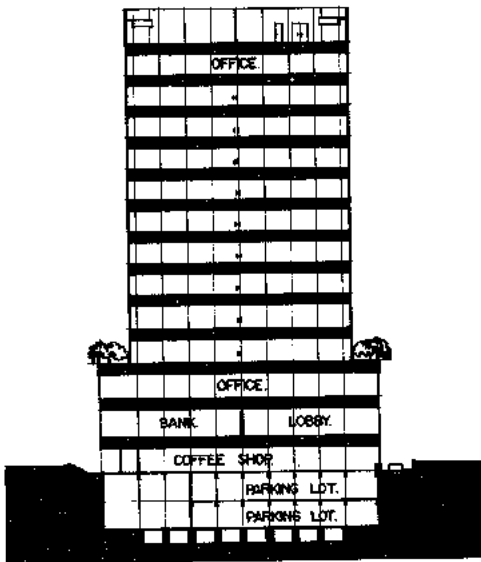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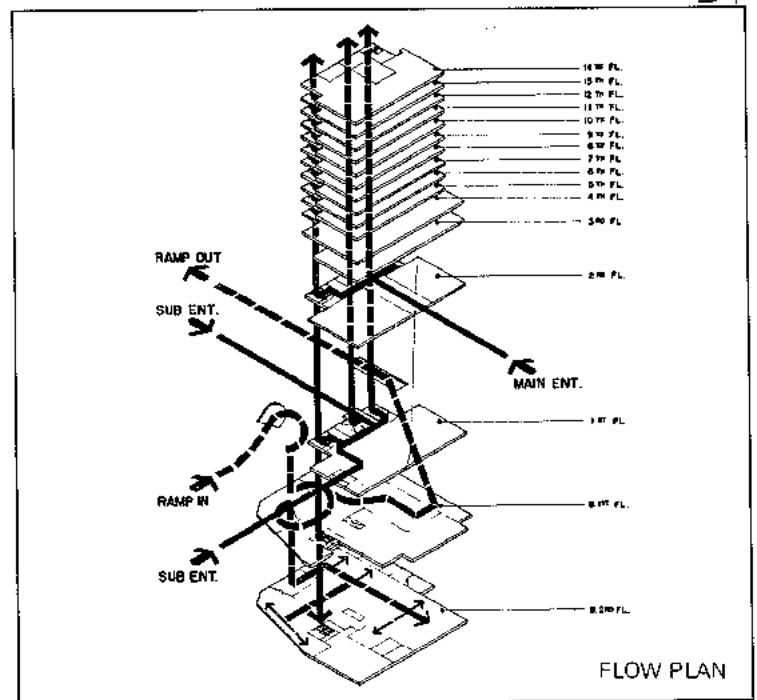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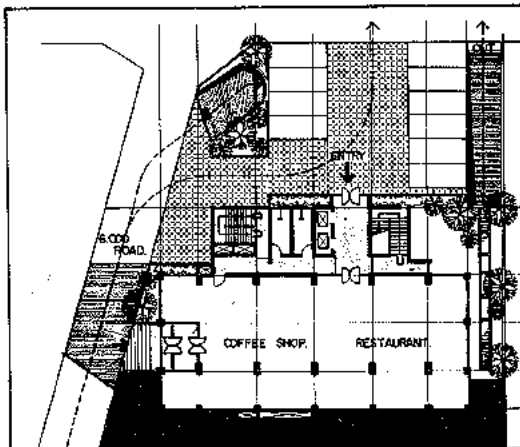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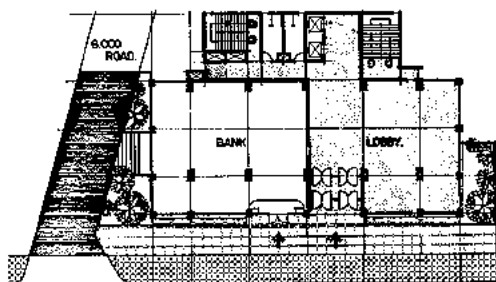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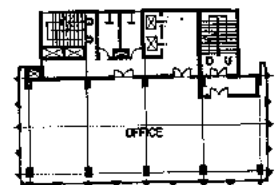
FLOW PLAN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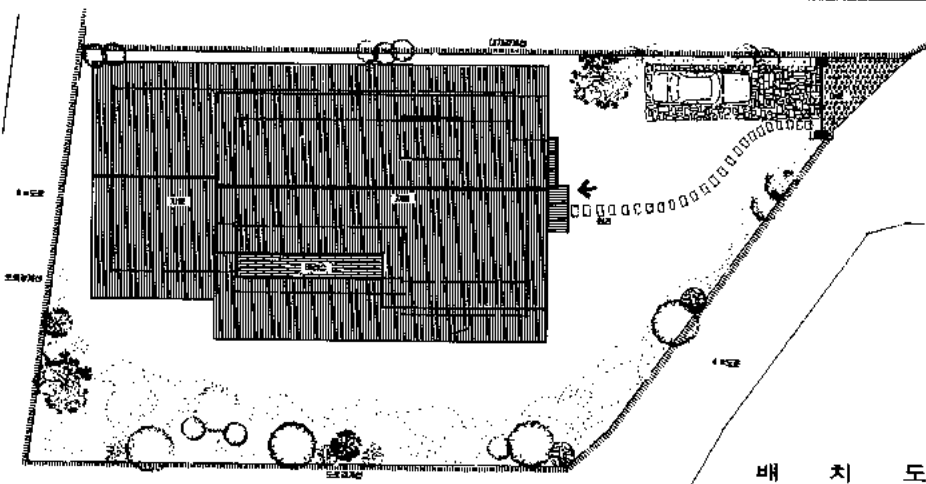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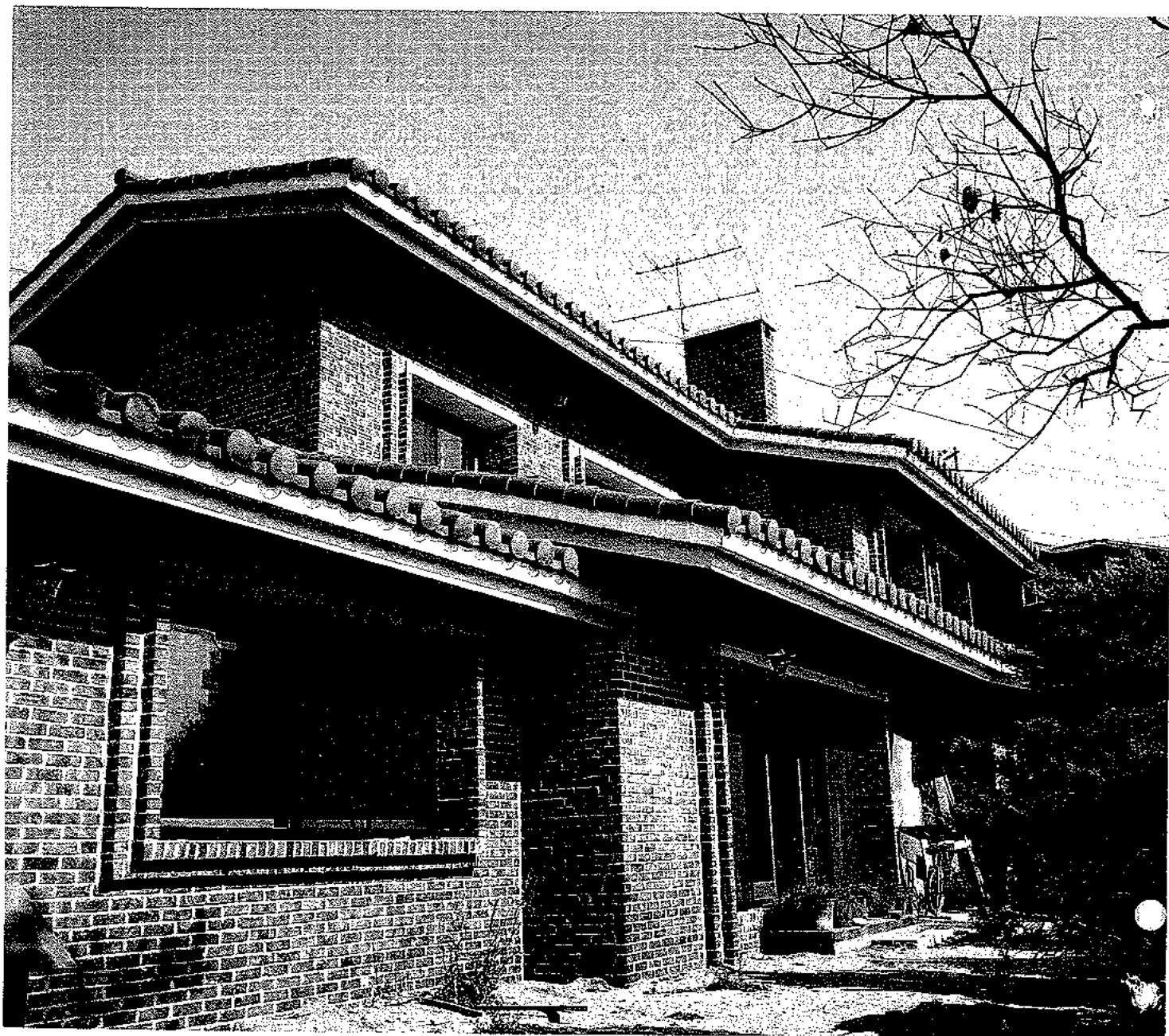
성북동 A씨댁

SUNGBUK-DONG A'S RESIDENCE

李世勳 / 세하건축연구소

1. 대지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9-54
2. 대지면적 : 545.98㎡
3. 건축면적 : 181.11㎡
4. 연면적 : 276.42㎡
5. 건폐율 : 33.35%
6. 용적률 : 44.47%
7. 구조 : 조적조

“서울시 건축상 동상 수상작품”



〈설계 소요〉

대가족제도인 전통가정에서의 프라이버시는 공간의 수평 분할보다 수직분할이 보다 유리하다. 또한 자녀가 결혼하여 같이 생활할 경우 가족이 함께 살면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면 생활은 더욱 편리할 것이다.

거실과 서재는 온가족이 모여 대화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며, 주방 및 식당은 2층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관에서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욕실을 상호분리한 것, 거실과 테라스로 2층을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한 것과, 정원과 원경을 즐길 수 있는 배려 등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보편, 단순한 형태와 소재를 구성하여 이상과 현실의 주거공간의 거리를 좁히고 새로운 이와 신선한 감각을 내도록 설계하였다.

배 치 도



- ① 1층 거실
- ② 2층 거실
- ③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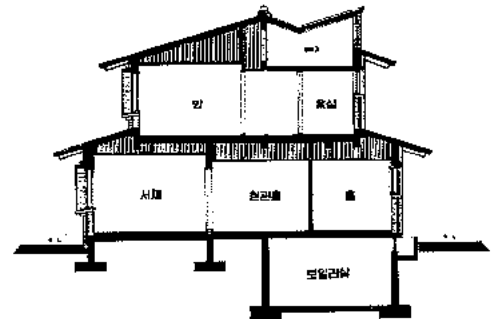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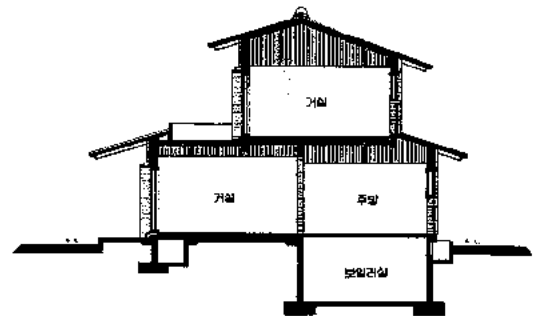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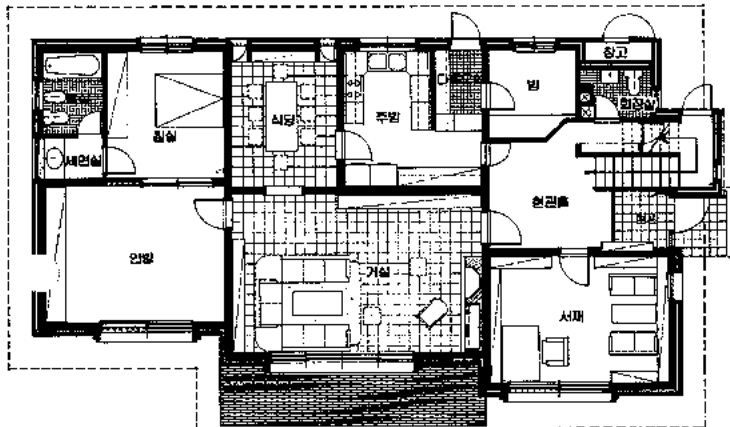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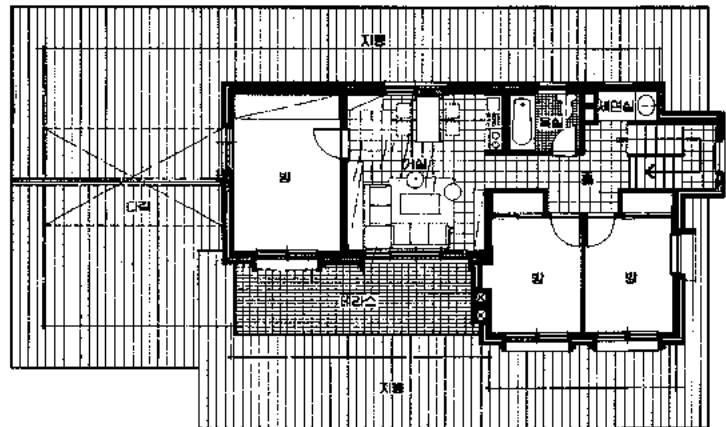
동측 입면도



단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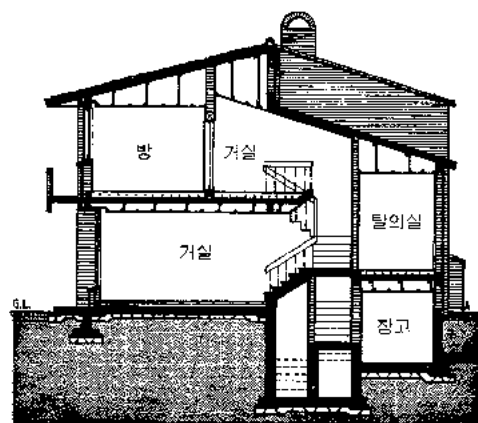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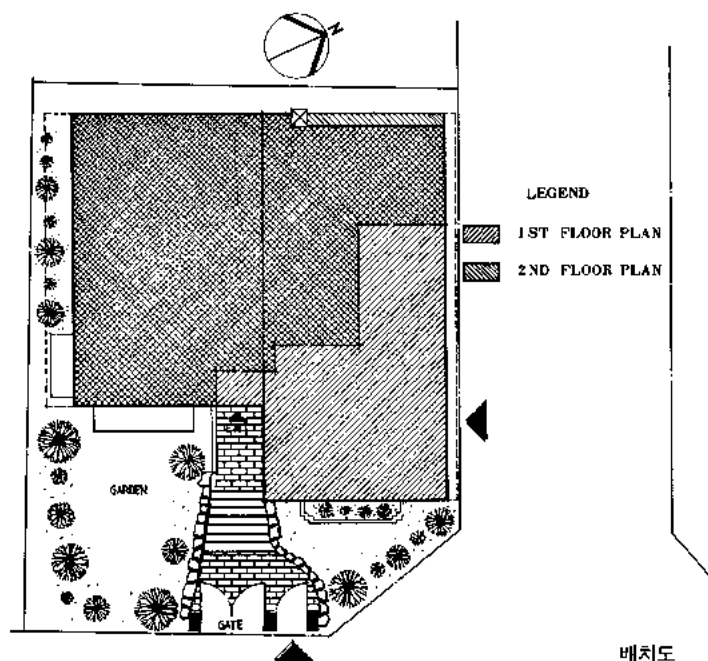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갈현동 C씨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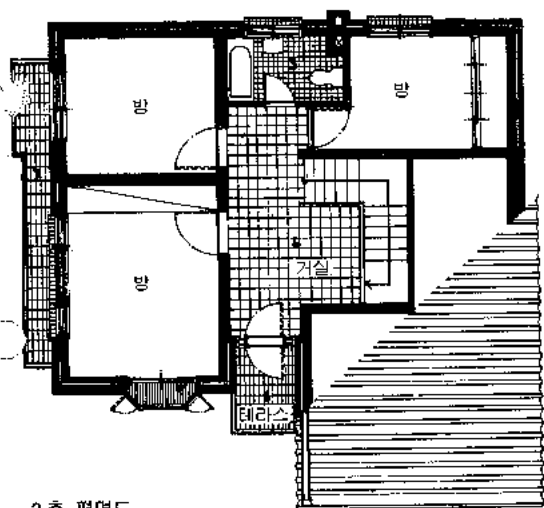
KALHYON-DONG C'S RESIDENCE

陳永勳 / 진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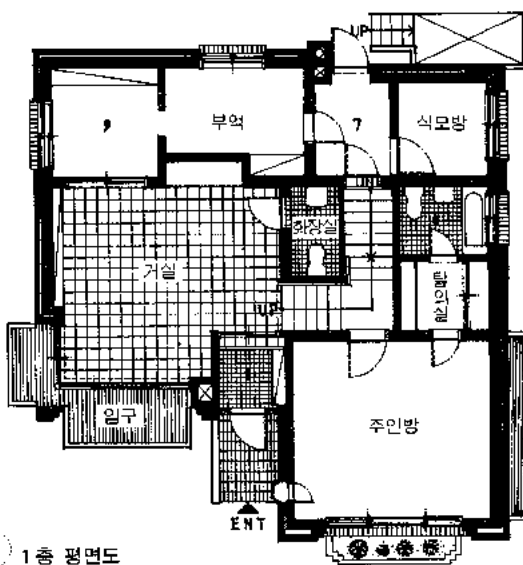
1. 대지위치 : 서울 은평구, 갈현동
2. 대지면적 : 181.17㎡
3. 건축면적 : 90.53㎡
4. 연 면 적 : 198.03㎡
5. 구 조 : 조적조
6. 주요재료 : 변색벽돌, 스킴, 오지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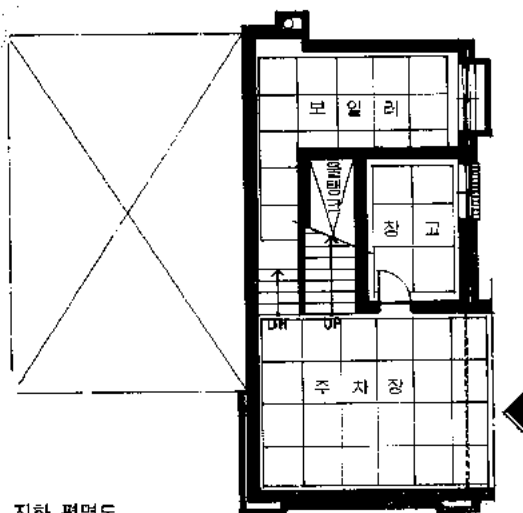
- ① 거실
- ② 현관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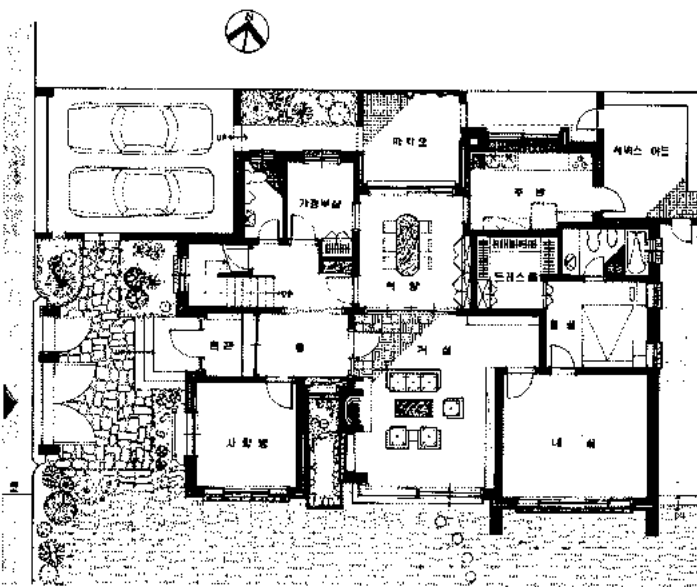


성산동 G씨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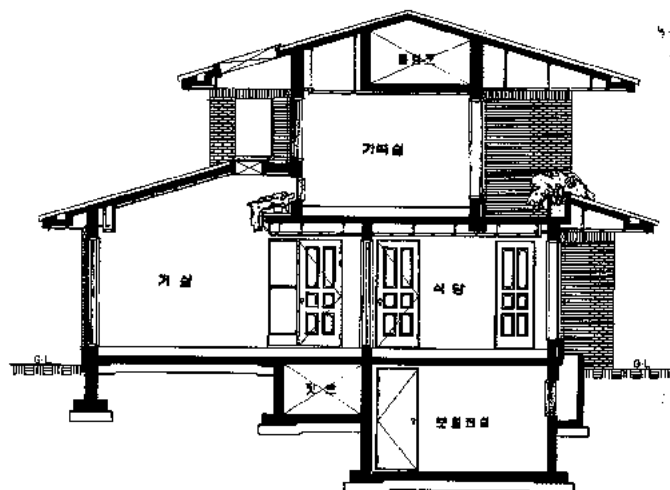
SUNGSAN-DONG G'S RESIDENCE

梁在國 / 녹양건축설계연구소

1. 대지위치 : 서울 마포구 성산동 9-4
2. 대지면적 : 572.89㎡
3. 건축면적 : 156.74㎡
4. 연면적 : 262.86㎡
5. 연도 : 지하1층, 지상2층
6. 구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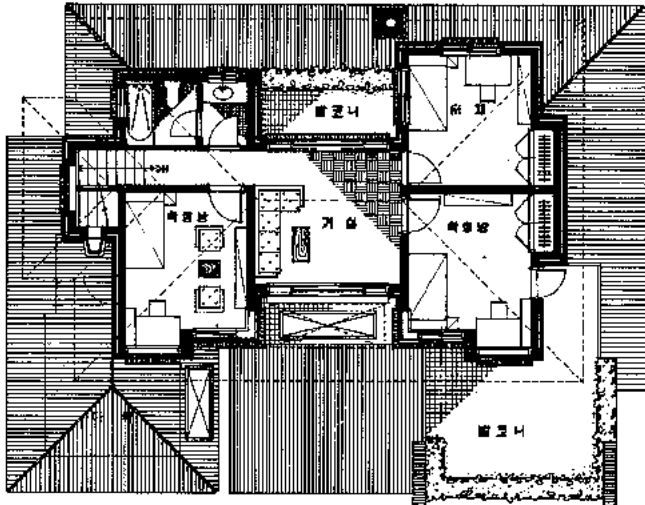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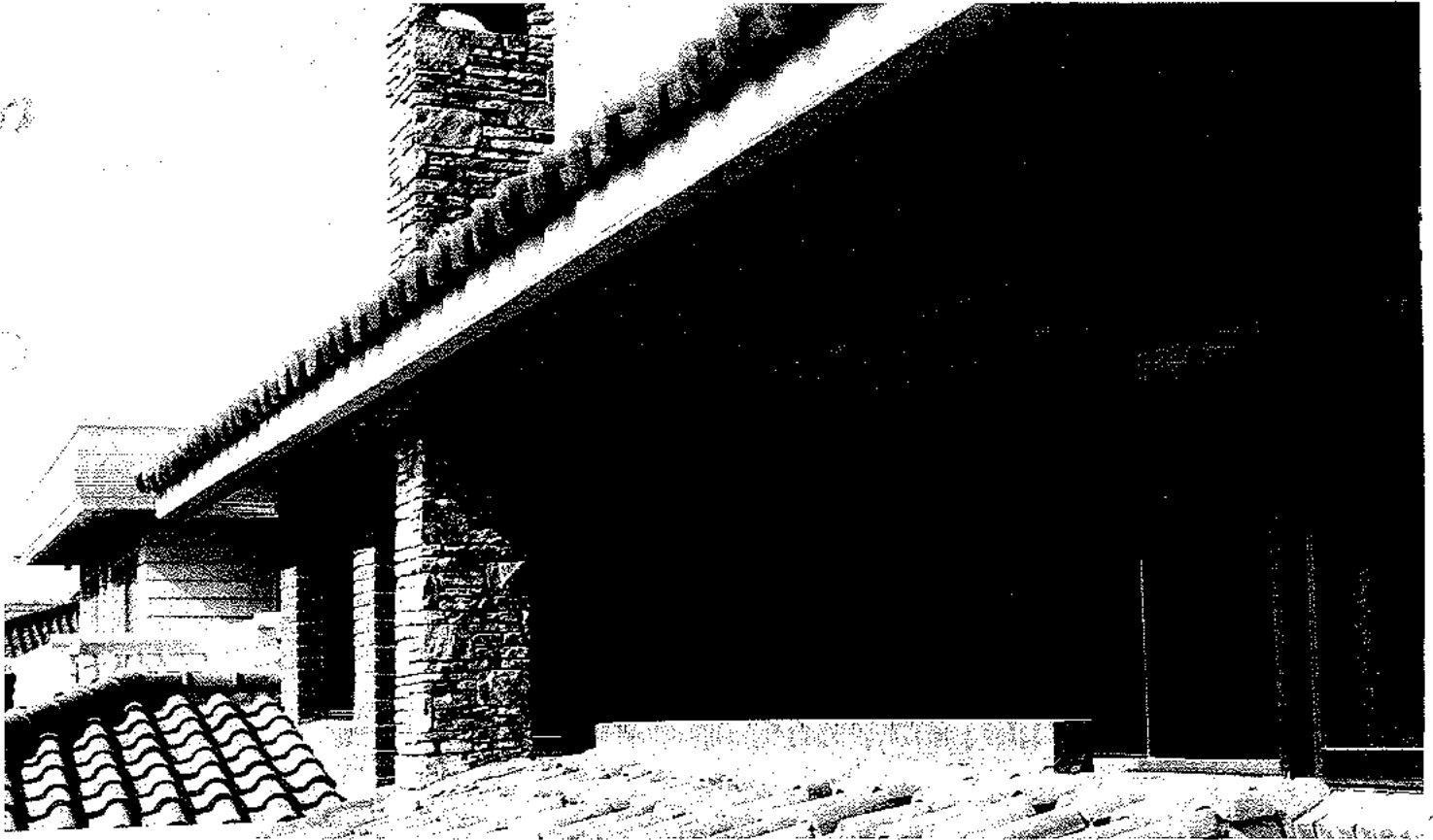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및 배치도



주단면도

- 1 테라스
- 2 건물측면화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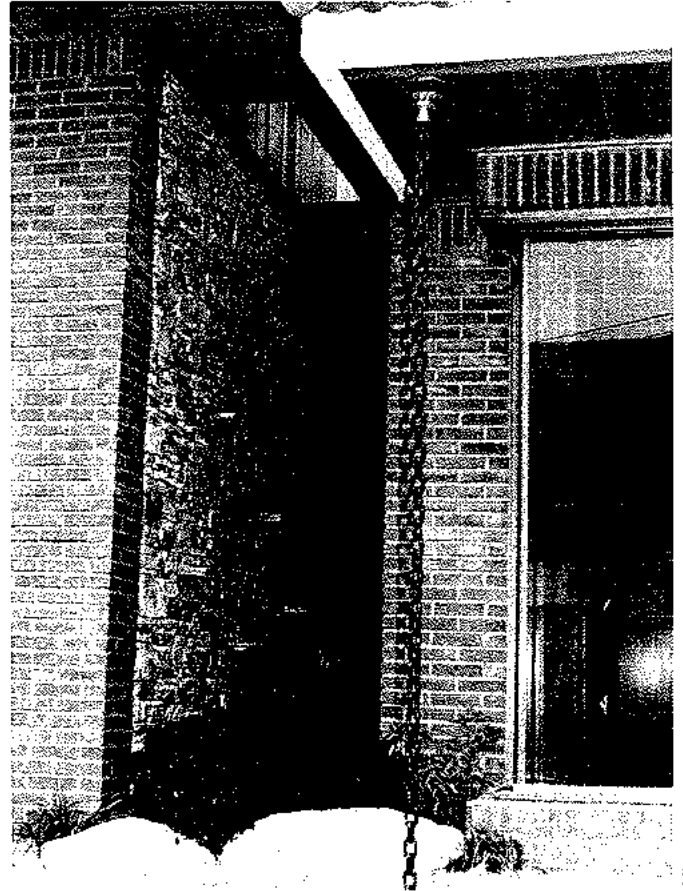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설계 소요〉

주변의 나지막한 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여건하에서 부두, 자녀 3명이 포근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도록 노력하였다. 주변환경, 대지, 건물.

이 세가지의 일체감 있는 계획을 통하여 개성과 융통성 있는 실내공간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거실에서 천장을 통하여 유입된 빛과 파티오를 통한 식당의 빛을 이용하여 공간의 볼륨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독립된 정원에서 느끼는 아늑함과 건물 전체에서 보여준 비례감이 더한층 친근감을 주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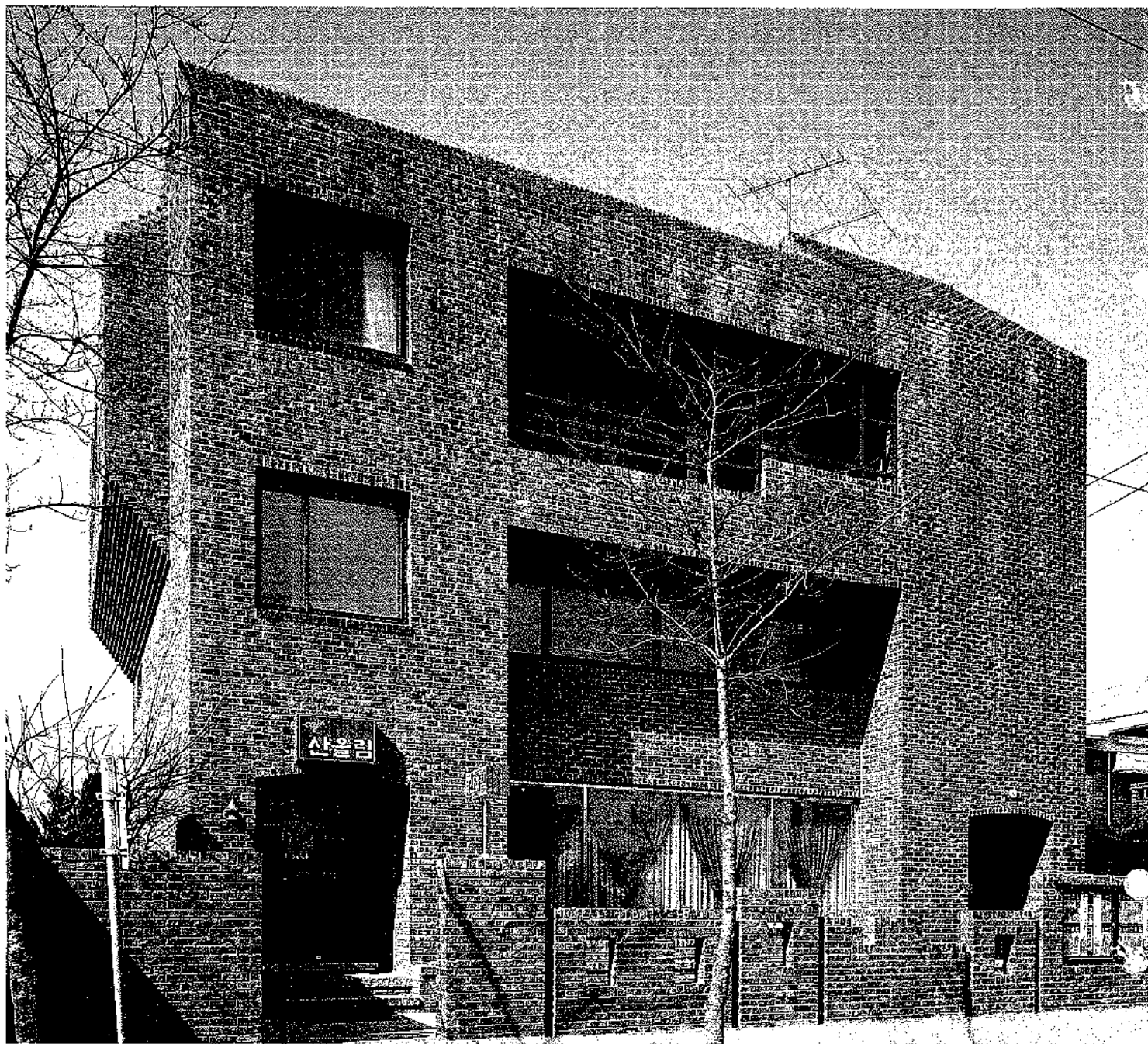


소극장 산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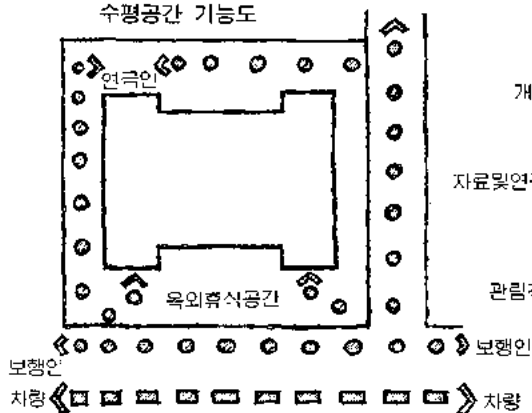
THEATER SANWOOLRIM

鄭正治 / 합정건축설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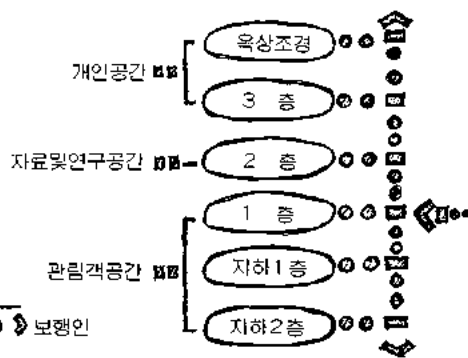
1. 대지위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27-9
2. 대지면적 : 247.90㎡
3. 건물면적 : 484.30㎡
4. 규모 : 지하2층, 지상3층, 옥탑1층



수평공간 기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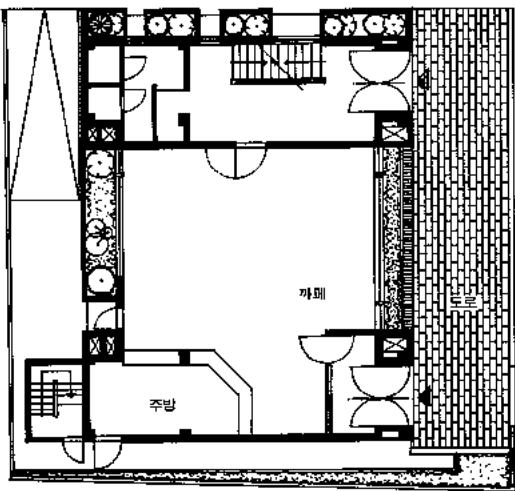
수직공간 기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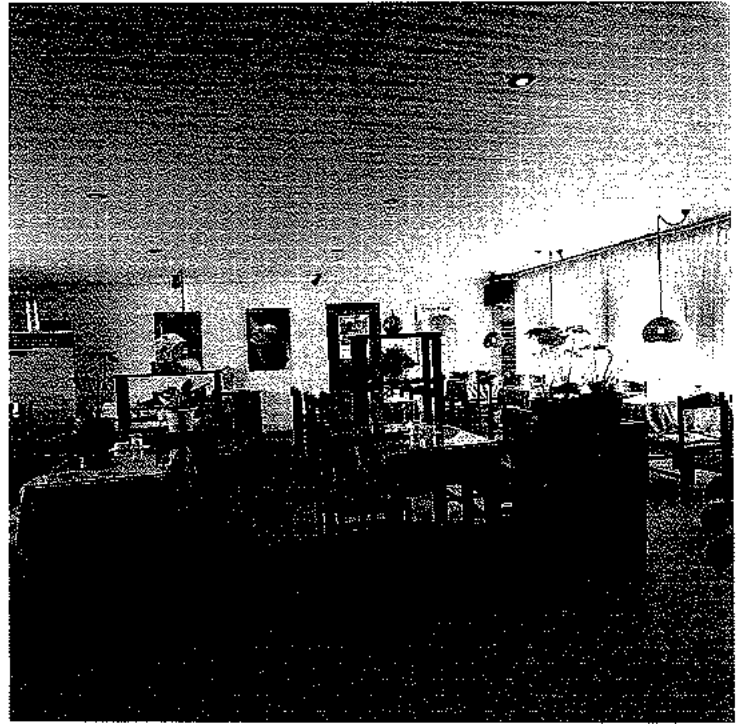
〈설계 소요〉

여기에 문화예술의 작은 전당이 마련되었다. 본 건물은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 몸담고 있는 한 가족의 소극장으로서 우리의 문화예술 발전에 견인차 역할은 물론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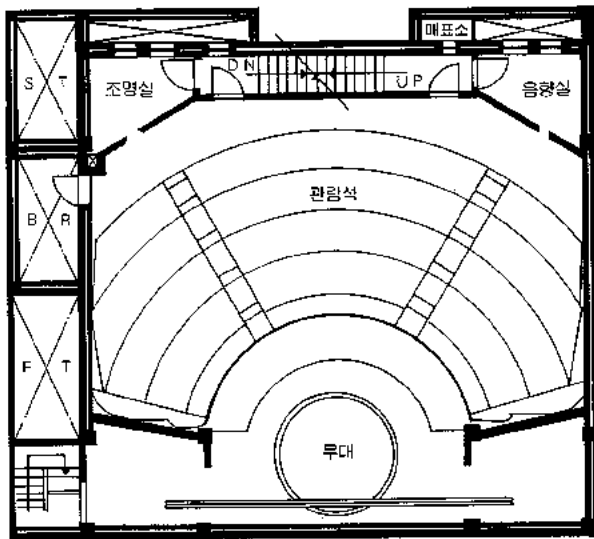
그러므로 현 수도서울의 기존 문화권의 사각지대인 서쪽 지역을 균형있는 문화권으로 형성 가능화 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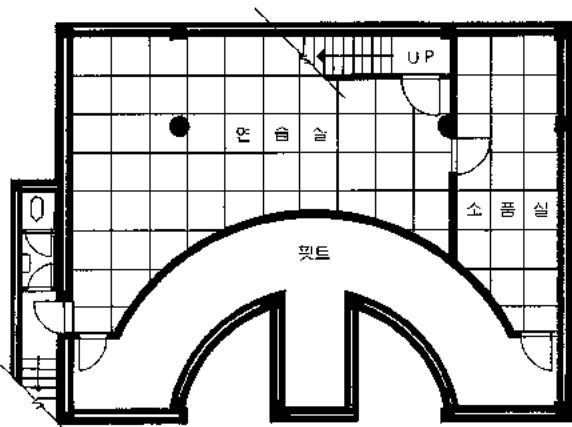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및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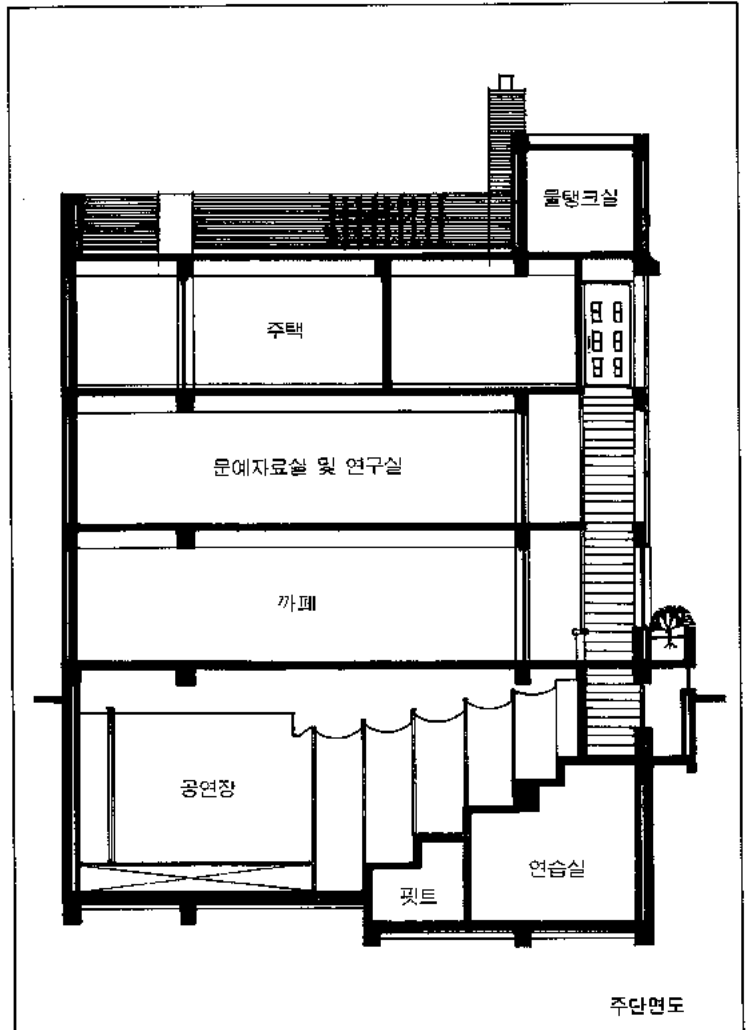
카페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2층 평면도



주단면도

국제센터빌딩

KUKJE CENTER BUILDING

李元赫 / (주) 동해건축

1. 대지위치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191
2. 대지면적 : 13,349.09㎡
3. 건 폐 륜 : 27.38%
4. 건축면적 : 3,655.74㎡
5. 용 적 륜 : 526.80%
6. 규 모 : 지하4층, 지상28층, 옥탑2층
7. 구 조 : 철골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서울시 건축상 금상 수상작품”





〈수상 소감〉

인간의 보람중 하나는 사물을 창작해내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여러 학문이 있겠으나 건축에 입문한 지 어언 27년이 되는 나에게는 퍼그나 크나큰 보람은 술한 시일의 설계속에 이루어지는 건축물에 있다고 본다.

현대 건축의 양상은 POST MODERN이라는 계열 속에 몰입해 가는듯 하나 이것을 판단하는 이는 세월이 지난 후 비평가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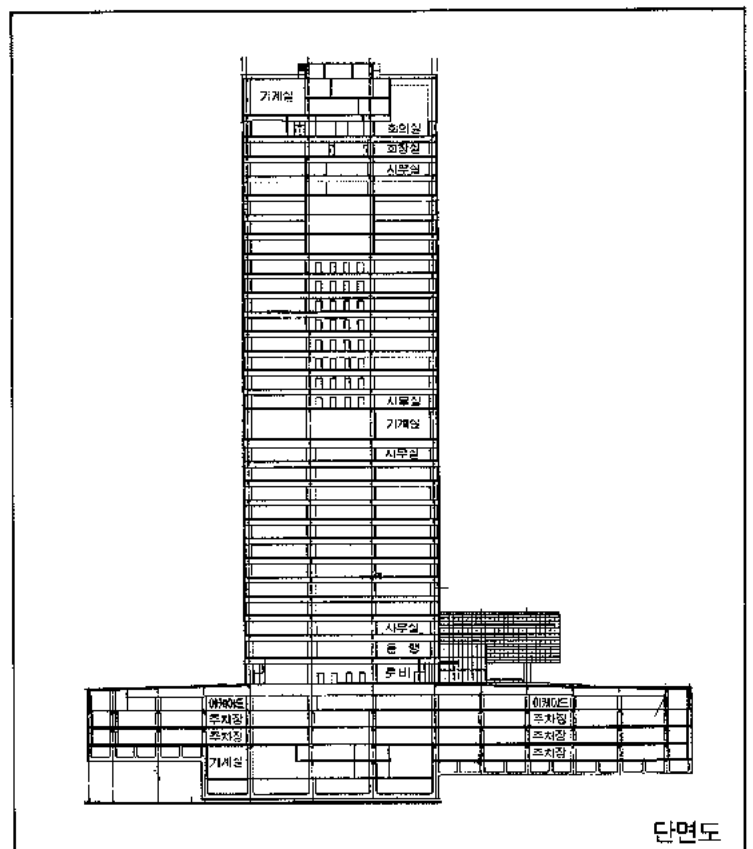
이번 국제그룹 사옥은 성에너지 전문체인 C.R.S의 장·라이터라는 젊은 건축가의 재기 넘치는 계획안을 될 수 있는 대로 충실히 하고져 서로 협의하여 근 2년간의 본 설계 과정을 거쳐 완성을 본 작품이다.

과정중 대각선 배치와 MASS의 의외성 때문에 다소 물의가 있었으나 건축주의 건축에 관한 높은 이해도와 여러 건축계 인사들과 사회의 너그러운 이해로 순조로이 자행되었다고 본다.

도시 속에 존재하는 무한한 잠재력, 기존 BOX형태의 획일적인 네모개념에서 탈피 개방적이고 포용성 있는 분위기로 도시공간을 창조(도시내의 SKY LINE의 인위적 조성) 다양한 각도의 입면처리 빛나는 은색 벽면..... 이 모든 것이 국제그룹 사옥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더불어 주변 환경의 조성이 미흡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끝으로 본 건물을 추천하여 주신 여러 심사위원님과 설계와 시공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영광을 고루 나누어 드리며 앞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것을 내심 다짐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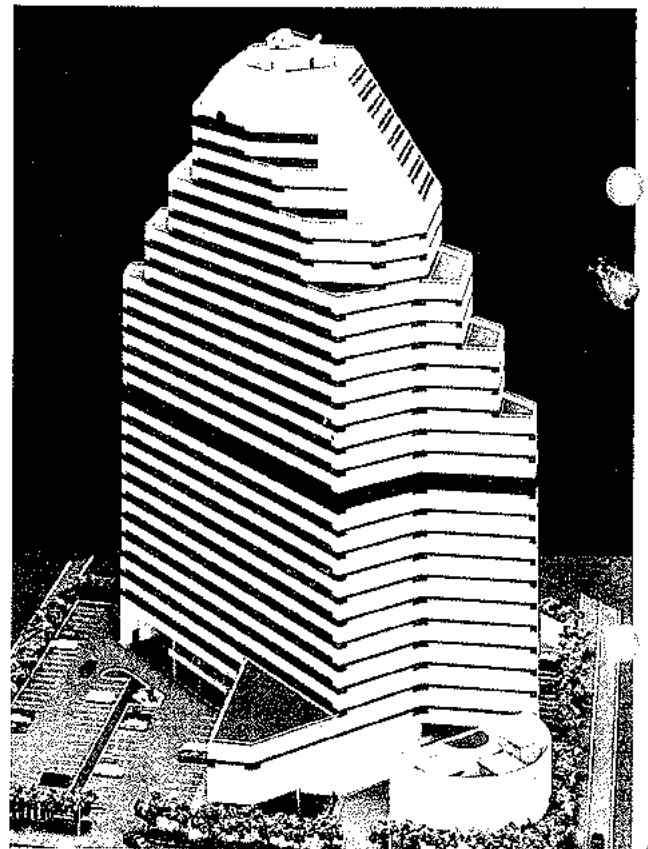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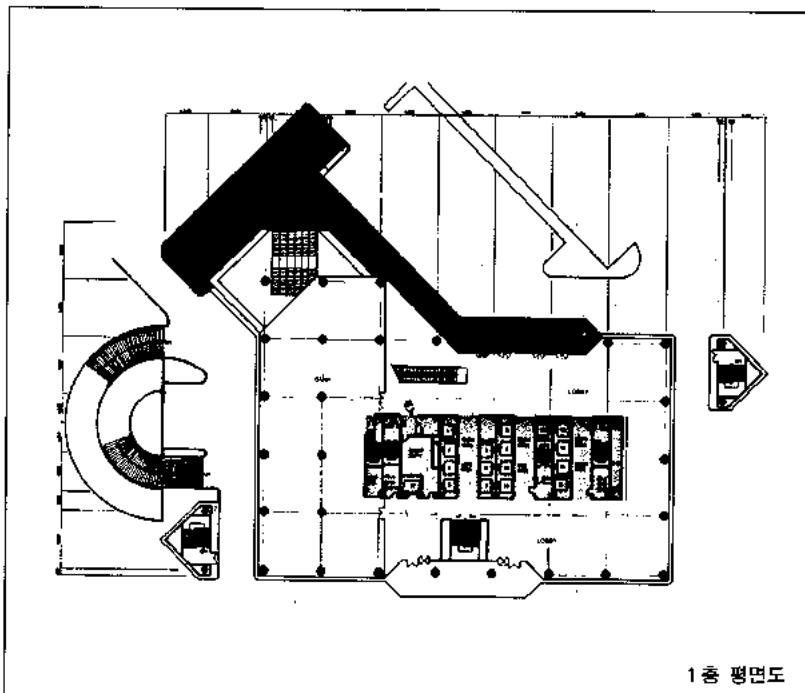
건축사
이 원 혁



단면도



① 현관전경
② 조감도



協會마크및로고체公募結果發表

本會 創立20周年에 즈음하여 公募하였던 마크 및 로고체의
入賞작이 결정되었기 아래와 같이 發表합니다. (마크는 최우수작품이
없이 종전 사용하던 마크에서 주위의 무궁화 장식을 빼고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 래

1. 마크 부문

- 최 우수 작
입상작 없음
- 가 작
• 이 한 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주공아파트 108동 4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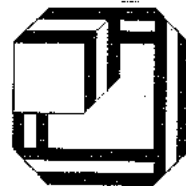
- 조 제 철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38의 1 (홍화빌딩 401호)
건축연구소 “거한”

다시사용하게 된 마크



이한구 씨 작품



조제철 씨 작품



2. 로고체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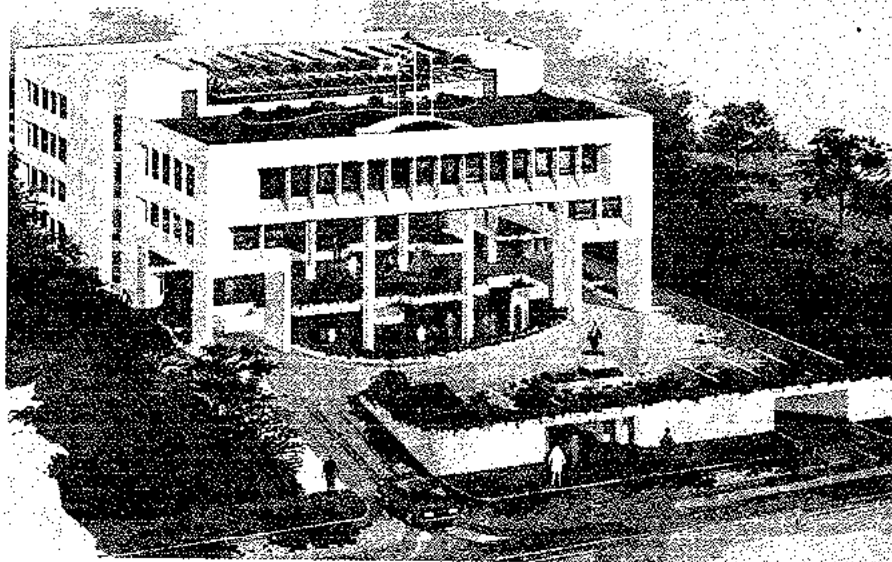
- 한글부문최우수작
• 한 상 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 의 105 (31통 7 반)
- 한문부문최우수작
• 한 상 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 의105 (31통 7 반)
- 영문부문최우수작
입상작 없음

한상훈 씨 작품
전화 265-1184

大韓建築士協會

入賞者에게는 施賞日時를 개별 통지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축사협회



- 85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 85특별회계 경정예산(안) 승인
- 정관개정
- 주대 회원추대

新築會館竣工紀念 會員作品展示會

전국 각 支部別로 순회전시회를 했던 84년도 회원건축설계작품을 모아 「신축회관준공기념 회원작품 서울지역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신축회관 지하1층 전시실에서 개최되는데 전시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15일까지 18일간이며 특히 많은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관하기로 했다. 평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建築士 보람회」 修德寺 大雄殿 1/10 모형 기증

「建築士」보람회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建築界의 원로 張起仁 회원께서 3월 5일 본회를 방문하고 新築會館에 전시 비치하도록 修德寺 大雄殿의 1/10 모형을 기증하였다.

건물의 모형은 지붕을 덮고, 지붕을 치서 門을 단 完型보다는 古建築의 体部 뼈대의 架構를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 생략되었다. 축적은 1/20 정도로 하는 것이 간편하나 曲線材의 표출이 부정확해지고 草刻等이 소홀해지기 때문에 1/10을 택하였다.

木材는 杏子木(은행나무)을 썼다. 杏子木은 나무결이 거의 없으며 단단한 편이면서도 질겨서 加工時 쪼개짐이 없어 조각하기에 다른 木材보다 훨씬 적절해 서이다.

模型제작은 宮室 都邊首의 후계자의 한 사람인 趙鎬俊 邊首가 담당했다. 趙鎬俊 邊首는 파고다 공원의 三一門, 판문점의 自由의 집 건립 때 활약했고 南大門(崇禮門) 해체 복원邊首로 일한 바 있다.

모형제작은 張順鏞 회원이 담당했는데 제작에 필요한 圖面은 한국 建築史

3월29일, 新築會館竣工紀念式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산61의3에 신축중인 본회 會館이 착공한지 1년 3개월여만인 85년 3월 29일, 오전 11시, 신축회관 대회의실에서 竣工紀念式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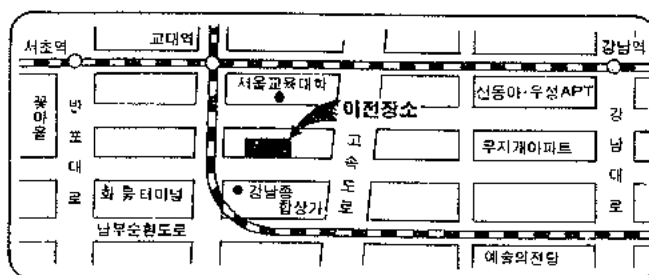
1천 8백 85제곱미터의 대지에 건축면적 4천 4백 18.43제곱미터로 세워진 신축회관은 지하 2층, 지상 4층인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서 本部와 서울特別市支部와 건축사 복지회가 입주했다.

층별 용도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시 설
지하 2층	식당, 주차장
지하 1층	대회의실, 전시실
지상 1층	한국주택은행 서초남지점
지상 2층	서울특별시지부 사무국

구 분	시 설
지상 3층	서울특별시지부 지부장실, 복지회사무국, 회의실, 본부정보자료실, 회원휴게실
지상 4층	회장실, 부회장실, 본부 사무처, 회의실

본 부	交 581-5711 (代) 5712, 5713, 5714 直 584-0338 (회장실) 6198 (부회장실) 0348 (사무처장실)
서울지부	交 581-5715 (代) 5716, 5717, 5718 直 583-7648 (지부장실) 584-4188 (사무국장실) 강북별관 733-6258, 8059



〈略圖〉이전장소

3월29일, 85年度 第1回 臨時總會

本會 85년도 제 1회 임시총회가 定款 第20條 4項에 의거 3월 29일(금) 오후 2시부터 신축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된다.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84 일반회계 결산승인

연구자료 제4호 「韓國의 古建築」중 修德寺 大雄殿篇의 實測圖와 鄭寅國 編 「韓國建築樣式論」을 참고하였으며 삼성 건축설계사무소(소장 張順鏞)에서 踏實 測한 원본을 정리하여 1/20축적을 1/10 축적으로 확대하여 複元圖를 작성하였다.

한편 본 모형을 가중한 「建築士 보람회」는 본회에 등록된 현직 또는 전직 55세 이상 建築士로 구성된 친목단체로서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옛것을 탐구하며 새것을 개척하여 정신적으로 풍요하게 함으로써 보람된 노년의 생활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張起仁 회원, 宋寬植 회원, 李秉均 회원, 安仁模 회원, 金源安 회원에 의해 발기되어 1982년 10월 12일 탄생되었다.

이래 張起仁 회원이 계속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康普參 회원이 총무로 李秉均 회원이 감사로 「建築士 보람회」운영에 힘 기울이고 있다.

吳雄錫 會長動靜

汎民族올림픽推進 中央協議會 참석

吳雄錫 회장은 3월 2일 오전 11시, 유경철 이사, 이영희 이사, 한종언 이사, 서울지부장, 사무처장과 함께 서울世宗文化會館에서 열린 汎民族올림픽推進 中央協議會(회장 南應祐)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에 대비, 범민족적 자율참여추진과 국민의식수준 선진화, 환경개선 등의 국민운동 전개를 위해 이날 개최된 본회의의 창립총회에서는 協議會 안에 교육훈련, 환경개선, 상공진흥, 보건위생, 홍보문화, 교통관광 등 6개 분과위원회와 해외동포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합의했으며 청사는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 안에 두기로 하였다.

韓國建築家協會總會 참석

吳雄錫 회장은 2월 27일 한국문예진흥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7회 韓國建築家協會總會에 참석하여 祝辭를 하였다.

吳雄錫 회장은 이날 祝辭를 통해 「우리 건축인 3단체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여 각기 가

진바 특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전제한 다음 그 중 韓國建築家協會에서는 「건축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대한건축사협회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全斗煥대통령각하초청 午餐에 참석

吳雄錫 회장은 3월 4일 정오, 범민족 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주관으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大統領招請 午餐에 참석하였다.

會館建立日誌

81년 제15회 定期總會에서 會館建立委員會 구성

81. 12. 2. 會館建立委員 9명 위촉

81. 12. 18. 회관건립위원회 각市道支部長을 포함 21명으로 보강

82. 1. 28. 회관건립위원회 9인소위원회 구성

83. 3. 11. 회관건립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83. 3. 22. 구회관 한려개발(주)에 매각

83. 3. 29. 회관건립위원회 운영규정 2조 2항에 따라 회관건립소위원회 구성

83. 3. 30. 회관이전예정지 서울特別市江南區瑞草洞1161의3으로 합의

83. 4. 12. 任員陣, 회관이전에정지 답사

83. 4. 13. 대지매입

83. 4. 29. 등기완료
회관건립현상설계공모(안) 승인

• 응모등록기간

계획설계 40일

심사 10일

본설계 40일

기타설계 20일

• 시상금

설계비중 20% 이내 범위에서 당선작 1점에 10%

우수작 2점에 각 5%씩 지급

• 신축회관 현상설계 심사위원 9명 위촉

위원장 김자태

위원 김일영 한창진

김정식 오웅석

김진일(한양대학교수)

이광노(서울대학교수)

강건희(홍대학교수)

송종식(연대학교수)

진행간사 안기태

83. 6. 20. 회관현상설계응모작품 접수마감, 총 58명 응모신청, 18점 접수

83. 6. 22. 1차심사 5 작품 선정

83. 6. 24. 2차심사 3 작품 선정

83. 6. 24. 입선작 결정

• 최우수작

건축사 송광섭

환건축연구소

• 우수작

건축사 이영희

회관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 김무영

한국환경설계연구소

건축사 김가용

건축설계연구소 삼정

83. 6. 27. 현상설계당선작 결정 승인

83. 6. 29. 대지 등기필

83. 7. 25. 신축회관 설계계약 체결

83. 7. 29. 신축회관 계획설계 변경(증평)

83. 9. 28. 회관신축공사 발주업체 지명

83. 12. 7. 입찰참가 대상업체 지명

83. 12. 10. 입찰참가 대상업체 지명통보

83. 12. 14. 지명경쟁입찰 참가승락서 접수, 현장 설명

83. 12. 17. 입찰참가신청(등록) 마감

83. 12. 19. 입찰 및 개찰

주식회사 삼호에 낙찰

83. 12. 20. 주식회사 삼호와 회관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83. 12. 22. 기공식, 공사 착공

85. 3. 8 준공필

85. 3. 29. 준공기념식

支部別 會員懇談會 소식

本會는 建築士法 施行令 및 施行規則에 반영할 회원의 의견과 協會운영 전반에 걸쳐 반영할 회원의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 수렴하기 위해 2월2일엔 강원도지부 순회간담회를, 2월7일 오전에는 충북지부 순회간담회를, 2월7일 오후에는 충남지부 순회간담회를 각각 가졌다. 다음은 위 3개 도지부 순회간담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江原道支部

일시 : 85년 2월 2일 11:00~

참석 : 회장, 이사 1명, 경기도지부장, 사무처장, 민경수 강원도지부장 외 12명

간담내용 요약

* 建築法 제5조2항중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증감을 위한 설계변경은 미리 시장 군수에게 신고(사전변경제도)를, 경미한 것은 준공감사시 사후 증감보고로서 정산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

* 건설업법 제4조에서 규정한 건설업 면허자의 업무한계를 2백50평으로 완화하고 소형건축물(50평이하)의 시공을 담당하도록 하는 소형면허제도의 신설을 건의.

* 개정 건축사업부 및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보수기준 제18조 설계감리 업무를 분리 위탁받았을 경우 요율적용(감리비 25%)이 불확실하며, 제15조5항중 표준설계도서의 감리비는 기준감리 보수액의 50%로 한다고 하였는데 그럴경우 표준설계도서의 감리비는 12.5%밖에 안되므로 이로서는 도저히 감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시정을 건의.

* 일부 관에서 기술용역법에 의한 보수요율(과학기술처장관 인가)을 건축사업부에도 적용코자 하는데 우리 업무 보수요율이 적용되도록 건의.

* 표준설계도서의 유효기간 10년을 적절히 단축해 주기를 요망.

* 회원들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회원증, 등록증 등을 좀 더 품위있게 고안하여 제작 배부해 주기를 요망.

* 지하실을 설치할 경우 당해 기술사로 하여금 지질검사를 하게 함은 경비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

● 忠清北道支部

일시 : 85년 2월 7일 10:00~

참석 : 회장, 이사 1명, 서울특별시지부장, 경기도지부장, 사무처장, 연관훈 충청북도지부장 외 13명

간담내용 요약

* 정부 각 부처에서 적용하는 보수요율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일원화 되도록 건의.

* 기본계획 설계비는 모두 빠지는데 새금은 모두 수입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시정되도록 건의.

* 면허 대여의 위법회원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조치해 주기를 요망.

* 신규입회나 재입회 회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교육실시후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건의.

* 위법 건축사에 대한 처벌중 업무정지, 벌금, 과태료 모두 중이나 구속은 없애주기를 건의.

* 지방 실정으로 보아 건축사 3명이

합동이 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 있으므로 인구비율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

● 忠清南道支部

일시 : 85년 2월 7일 15:00~

참석 : 회장, 이사 2명, 감사 1명, 사무처장, 서울특별시지부장, 경기도지부장, 충청북도지부장, 전라북도지부장, 민영기 충청남도지부장 외 17명

간담내용 요약

* 관과의 용역설계에 있어 원도를 요청하여 내줄 경우 설계를 임의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시정되도록 건의.

* 건축면적 산정방법이나 누다락 문제 등에 관의 재량권 발휘가 지나친 느낌으므로 일원화 되도록 건의.

* 협회적인 차원으로 복지회가 제도화 되도록 건의.

* 건축업무에 관한 집의회시는 협회를 통하여 건설부에 하면 개인이 건설부에 하는 것 보다 시일이 걸리는데 회시 기간이 단축되도록 건의.

* 회원의 노후대책에 대한 사업을 부활되도록 건의.

* 사무실의 보조원에 대한 의료보험 문제 개선되도록 요망.

委員會消息

建築委員會

(위원장 김규태)

건축위원회는 2월15일 제2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85년도 각 위원회별 연구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총괄조정 협의를 했다. 또한 건축위원회의 각분과위원회가 연구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건축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결정했다.

都市環境分科委員會

(위원장 김인석)

도시환경분과위원회는 2월15일 제2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85년도 연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했다. 85년도 연구사업계획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도시환경과 조형예술
- ② 기초건축물의 조정설계실태

매월 또는 격월로 3-4회에 걸쳐 발표하고 추후 「도시환경과 조형예술」과 병합하여 단행물로 발간

③ 신축회관준공기념행사시 회원작품 전시회와 병행하여 「도시환경과 가로조형물」에 관한 슬라이드 방영을 검토

設計監理分科委員會

(위원장 한종언)

설계감리분과위원회는 2월6일 신체장애자를 위한 시설자료의 검토·보완 협의를 하였다.

또 85년도 연구사업으로 건축공사 공정별시방서와 내역서 양식의 작성을 연구하기로 했다.

構造分科委員會

(위원장 김봉훈)

구조분과위원회는 2월14일 85년도

연구사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협의했다.

협의된 바에 따라 위원회 각위원은 기 설정된 7개공정별로 1개공사항목씩 전담하여 연구하기로 했는데 각위원별 연구항목은 다음과 같다.

김봉훈 위원장: 일반적인 사항, 조적공사

김태웅 위 원: 토공사

이창남 위 원: 지정공사

노희일 위 원: 철근공사

조철호 위 원: 콘크리트공사

정성교 위 원: 거푸집공사

김창서 위 원: 철골공사

設備分科委員會

(위원장 박용한)

2월26일 열린 설비분과위원회에서는 85년도 연구사업계획에 대한 구체협의를 하였다. 위원회는 협의에 따라 단기적 연구사업으로 「병원건축물의 위생, 공조, 전기, 소방설비」에 관한 연구와 「건축법과 건축설비 관련법과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를 85년도 연구사업으로 확정했다.

建物에너지分科委員會

(위원장 김일영)

건물에너지분과위원회는 85년 2월22일 제2회 분과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설계 공모전 개최」를 85년도 사업계획으로 결정했다.

본 위원회는 에너지절약형주택설계공모전을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협회 차원에서 시행하되 에너지 절약계획 작품을 모델 케이스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공모전 개최의 의의를 높이도록 하였다.

傳統建築分科委員會

(위원장 박태수)

전통건축분과위원회는 85년 2월18일 제2회 분과위원회를 열고 85년도 연구사업의 위원별 분담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신축회관내의 미관을 높이기 위한 관별제작 작업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사업분담

박태수 위원장: 중헌, 동헌

김두현 위 원: 문(궁궐 성곽 등)

민경민 위 원: 집옥재, 팔우정, 민가

장순용 위 원: 창경궁내 건축물

각 위원이 연구제출한 성과물은 건축사지에 발표하고 연말에 종합하여 난행본으로 제작할 것을 검토.

② 신축회관내 미관을 위한 관별은 일 단계로 다음 5개를 제작함.

궁: 창덕궁 전경, 창덕궁내 인정전

사찰: 금산사

서원: 도산서원전경

정자: 부용정

編纂委員會

(위원장 이영희)

편찬위원회는 85년 3월6일 제3회 편찬위원회를 열고 「건축사」지의 2월호 강평과 3월호 편집계획안을 협의하였다.

편찬위원들은 특히 6월호부터는 본격적인 건축비평을 다룸으로써 폐기한 건축비평의 풍토를 마련하여 회지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원 각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의결했다.

制度委員會

(위원장 안기태)

제도위원회는 85년 2월14일 제2회 제도위원회를 열고 산하 6개 研究委員會의 85년도 연구사업 및 사업예산에 대한

협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각 위원들은 산하 6개 연구위원회로 하여금 본협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단기계획으로 구분하여 각종 제도를 연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監理點檢研究委員會

(위원장 김재우)

감리점검연구위원회는 85년 2월9일 제2회 연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감리점검제도에 관한 협의를 가졌으며 동제도 실시에 따른 점검반 운영규정(안) 및 운영지침(안)을 수정·검토 했다.

弘報委員會

(위원장 장종률)

홍보위원회는 85년 3월6일 제5회 홍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축회관준공식의 TV홍보방안을 협의했다.

85年度 豫算調整臨時委員會

(위원장 김재우)

'85예산조정임시위원회는 85년 2월28일 제2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85경정 예산편성(안)을 심의하였다.

동위원회에서는 '85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하에 각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예산을 심의 조정하였다.

支部消息

仁川直割市支部

高昌永支部長, 市長表彰수상

仁川直割市支部 高昌永支部長은 2월14일 市政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市長의 표창을 받았다. 표창장은 인천직할시 건설국장을 비롯한 건축관계 공무원이 支部를 방문한 자리에서 건설국장에 의해 전달되었다.

京畿道支部富川分所

敬老잔치

京畿道支部(지부장 李鍾殷) 富川分所는 1월19일 부천시 소재 노인학교를 방문하고 60여만원을 들여 장만한 다과와 떡국으로 경로잔치를 베푸는 한편 기념품까지 마련하여 신년초를 장식하는 훈훈한 미담을 피워냈다.

慶尚北道 孫在守 前支部長

內務部長官 表彰수상

慶尚北道支部(지부장 金永吉) 前支部



경기도지부 부천분소는 60여만원을 들여 경로잔치를 베풀었다

長 孫在守 회원은 1월25일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크게 인정되어 내부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는데 표창장은 2월2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전달되었다.

서울市 建築賞 發展方向은?



일 시 : 1985. 2. 14. 14:00

장 소 : 본협회 회의실

참석자 :

심사위원

오 응 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나 상 기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김 진 일 (대한건축학회 회장)

오 휘 영 (한양대 환경대학원 교수)

강 흥 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임 상 자

이 원 혁 (금상·동해건축대표)

김 석 철 (동상·김석철건축연구소)

김 정 철 (동상·정림건축)

이 세 훈 (동상·세하건축)

관 계 자

변 영 진 (서울시 건축지도과장)

시 회

이 영 회 (본협회 편찬위원장)

정 리

김 린 (본협회 편찬위원회 부위원장)

오응석 : 우리 건축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향상을 위한 행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건축물은 우리나라 국토의 건축분량에 대비해 보면 거의 반에 가깝고 그 내용의 중요성을 보면 거의 90%가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서울시건축상의 비중은 대단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러하거나 제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도 건축상 시상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건축계의 모두가 서울시에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서울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이 제도를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고 이자리는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만은 아울러서 건축사협회 회장으로서 작품을 출품해야 할 많은 회원의 입장을 대신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좀 더 많은 참여를 통해서 좋은 작품을 내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간담회를 통해서 작품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바라면서 이자리를 마련한 회장의 입장에서 먼저 인사말씀을 통해서 발전적인 간담회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사 회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의 뜻은 서울시가 제정한 서울시건축상이란 주제를 놓고 건축전문인의 시각을 심층있게 펼쳐가면서 관계심사위원들과 84년도 수상작가 및 관계 여러분을 모시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보자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내용은 월간 "건축사"誌 3월호에 게재 될 것이며 건축사誌는 국내외 건축인은 물론 전국 관계기관에 배부가 되므로 광범위하게 정보, 전달이 될 것입니다.

우선 참석자를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

오늘의 주제는 역시 조금전 말씀드렸던 '84 서울시건축상'이 되겠지만 딱딱한 분위기 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먼저 서울시건축상의 배경이라할까 목적, 연역에 대해서 다알고 계시지만 서울시건축과 변영진과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변영진 : 금년이 4 회제입니다.

건축상은 건축행정 측면에서 건축물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자는 뜻이며 '84 서울시건축상은 설계 뿐만이 아니라 시공도 함께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미쳐서 시공까지 시상할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시공된 건축물과 서울시내에 있는 건축물로 국한하여 매회 응모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시상해서 널리 알리므로 해서 서울시내 건축물의 질을 높여보자는데 상의 동기가 있고 성격은 대물적인 우수한 건축물이며 매년 실시한다는 점에서 당해년도 준공된 건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진일 : 서울시건축상 시상제도가 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단계 더 격상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듯 합니다.



이영희

"서울시건축상" 제도는 우리 건축인에게는 고무적입니다. 욕심같아서는 이러한 제도가 지방에도 확산되어야 한다는 바램입니다.



오웅석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러하거니와 제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도 건축상 시상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건축계의 모두가 서울시에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하겠습니다.

건축은 건축사, 건축주, 시공자가 삼위일체가 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축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삼위일체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니 건축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했는데 업자의 잘못 때문에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작품을 평가하는데 작가냐, 시공자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기준을 정하느냐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아울러 건축상제도를 정말 지금보다 격상시키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사 회 : "서울시건축상" 제도는 우리 건축인에게는 고무적입니다. 욕심같아서는 이러한 제도가 지방에도 확산되어야 한다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아직 역사가 짧아서인지 우리 건축인 자신에게도 널리 홍보가 되어있지 않은 느낌입니다. 예를들어 실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이야 다 알고 있지만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대학에서도 이제도가 널리 홍보가 되지 않은듯 합니다. 김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상제도를 어떻게 격상시킬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상이 된다면 자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부상제도라든가 아니면 메스콤을 통한 홍보, 즉 우리 건축인만 알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사회에도 널리 알리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점에서 이 상을 격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번 수상을 하신 김정철소장님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김정철

심사의 기준문제는 심사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심사하시는 분들은 그건물이 있으므로 사회의 기여도라든가 도시 구성요소로서의 건축기능으로서의 건축등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철 : 이러한 시상제도를 만들어서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며 사회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선도하여 건축가가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전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건축가는 건축주의 완전한 뒷바침을 받아서 직업으로서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의 장인으로서의 자기 인생을 건축에 거는 그러한 풍토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직업화되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사회인식 및 사회지원의 결여로 일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작가의 충분한 디테일을 가졌다 해도 건축주에게 사회적인 요구를 제기해야 할 기회가 없어지고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계를 했다고해도 시공자가 충분히 뒷바침 해주지 않으면 역시 작품은 훌륭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어진 다음 집을 쓰는 사람의 건축에 대한 애착, 사회적인 광고 그러한 것이 결여 된데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건축이라는 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훌륭한 건물이 되어서 인류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한다고 볼 때 시에서 시공자까지도 상을 부여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건축주에 대해서도 훌륭한 건축의 지가 있었다면 시상상을 하였으면 합니다. 훌륭한 건물이 되었을 때 건축주에게도 상을 주고 그건물이 지역이나 사회에 기여한다는 데 대해서도 자랑삼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것이 또 건축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건축주에게도 상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의 기준문제는 심사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심사하시는 분들은 그건물이

있으므로 사회의 기여도라든가 도시 구성요소로서의 건축기능으로서의 건축등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록 작은 주택일지라도 상이 올라가고 사회의 기여도로 보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미관으로서의 역할과 방법을 제시하는 좋은 건물은 큰 상을 주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일 : 격상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그럴듯한 자리에서 최소한 시장이 직접 시상상을 하고 시상 현장을 TV매체를 통해 홍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작품의 전시도 현재와 같은 지하철 전시관에서 탈피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이나 기타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전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웅석 : 작품참여의 길을 확대하여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18개 작품이 나왔습니다만 모두 우수한 작품입니다. 분량이 꼭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서울시에서 대표 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온 것이냐, 그것이 전부냐, 하고 반문한다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한 작품도 출품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작품의 심사자료가 충분했으면 합니다. 그릇은 가령 사진이 나와있지만 전면 한장 뿐입니다. 후면, 측면, 4면이 다 나와있는 사진이 제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심사기간을 충분히 갖고 현장을 답사해서 그 건물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앞으로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시상대상이되면 마지막 심사는 현장을 답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일

격상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그럴듯한 자리에서 최소한 시장이 직접 시상상을 하고 시상 현장을 TV매체를 통해 홍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공방법을 가려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상해야겠습니다. 심사기간을 충분히 가져야겠다는 문제는 다른 심사위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심사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읍니다. 앞으로는 늦어도 3번 정도는 헤어졌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선, 중간심사, 최종심사를 나누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심사자료를 검토한 후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얏으면 좋겠읍니다.

사 회 : 이제까지 심사에서 현장답사는 없었읍니까.

사 회 : 현장을 답사해야 할 시간은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격상방법으로는 현실적이지만 홍보적인 측면에서 국전에 수상을 하면 일반 메스콤에서 작가 소개부터 작품의 배경설명까지 보도가 됩니다. 건축상도 그런 측면에서 홍보도하고 메스콤 활용방안도 세워져야 되겠읍니다.

오웅석 : 시상상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읍니다. 전시장에서 태임을 자르고 시장이 직접 수상했으면 하고, 출입기자들과 메스콤을 통한 홍보에 시당국에서 신경을 써야겠읍니다.

변영진 : 서울시건축상이 현재까지는 건축조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상을 법규화하는 보완과 아울러 수상에 대한 혜택을 주어서 참여의욕을 고취시켜야겠읍니다.

현재는 당해년도 준공된 작품을 출품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준공된 작품으로 주거, 비주거 부문으로 공모하겠으며 심사위원도 지금까지는 비공개하여 막판에 발표하였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읍니다.



변영진

서울시건축상이 현재까지는 건축조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상을 법규화하는 보완과 아울러 수상에 대한 혜택을 주어서 참여의욕을 고취시켜야겠읍니다.



나상기

차원을 높여서 본다면 현재보다 좀더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행사가 되어 우리 건축가들이 보다 좋은 건축물을 이땅에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어야겠읍니다.

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시에 출입하는 언론기관 관계자를 동원해서 건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읍니다.

나상기 :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수도가 그 나라를 대표하듯이 서울의 건축물에 대한 시상은 신중해야 하겠읍니다. 차원을 높여서 본다면 현재보다 좀더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행사가 되어 우리 건축가들이 보다 좋은 건축물을 이땅에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어야겠읍니다.

현재까지 우리 건축문화는 너무 보잘것 없는 실정입니다만 경제발전으로 새로운 건축의 수요로 앞으로의 임무는 막중하다 하겠읍니다. 제 소견으로 서울시건축상의 발전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 : 범서울의 건축가가 응모하여야겠으며,

둘째 : 종합적인 응모(주거, 비주거, 상업)가 되어야겠고

세째 : 서울시의 건축가들이 아직까지 관심이 없었으나 자기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겠읍니다.

네째 : 연례의 건축제 대행사로 자리를 굳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 상금을 1억원 이상으로 책정해서 금상 삼천만원, 은상(2) 2천만원, 동상(3) 1천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격상하여야겠읍니다. 서울시의 건축예산을 보면 1억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주면 돈보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불가능하다면 유관단체와 협조하여 부상을 높이도록 해야겠읍니다.

여섯째 : 수상자에 대한 특전의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읍니다. 실예를 들어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의 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하는 특혜를 주어야겠읍니다.

일곱째 : 심사제도의 연구와 보완으로 응모자들이 조금도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 이런 행사들의 기록인 사진 책자가 발간되어 10년이나, 50년후 좋은 역사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홉째 :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홍보의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홍보가 약하기 때문에 응모가 부족합니다.

열째 : 시상식과 전시장 개막 때 관계 장관이나 시장등을 모셔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좀더 품위있는 장소에서 열려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서울시가 서울의 건축문화를 향상시키고자, 고민하다 만들었는데 형식상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되겠으며 건축인들의 의견을 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사 회 :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건축하는 분들의 창작의욕이 한층 더 고조될 것 같습니다.

오웅석 : 시기적으로도 11월, 12월이라 건축사들이 공사마감이다 등등으로 바쁜 때인데 5, 6 월로 해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작품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나상기 : 한 나라의 건축문화 발전은 그 나라의 지도자의 관심에도 달려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호주 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 회 : 응모기간도 일년내내 창구를 열어 놓아 창구의 개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작품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강홍빈 : 외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에



강홍빈

앞으로는 건축문화의 발전 방향제시와 건축인으로서의 일반인에 대한 건축인식을 높여서 왜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이나 하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회영

심사에 있어서 전문단체에서 모든 건축물을 1차 심사해서 시에서 선별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도 건축사로서의 품위가 부각됨을 통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건물이 우수한 건물이며 어떤 건물이 왜 좋으나? 하는 작품을 뽑는 사람의 심사의견이 제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건축문화의 발전 방향제시와 건축인으로서의 일반인에 대한 건축인식을 높여서 왜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이나 하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심사에 있어서 뚜렷한 이슈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에 있어서의 건축미를 보는 것인가? 아니면 서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맞추어야 하는가? 특징있게 지었는가 하는 것등의 기준입니다.

오회영 : 심사에 있어서 전문단체에서 모든 건축물을 1차 심사해서 시에서 선별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출품에 관계하지 않고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면 좋은 작품이 선정될 것 같습니다.

사 회 : 이번 금상을 수상하신 동해건축의 이원혁 소장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이원혁 : 심사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정림건축의 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사의 의도를 건축주가 받아주지 않으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번 제가 수상한 국제빌딩은 미국 CRS사와 합작으로 했는데 기본계획만 합작했을 뿐 기본설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이러한 시상제도가 설계자와 시공자는 물론이고 건축주에게도 시사해야 할 것입니다.

김석철 : 건축상의 성격에서 그 건물의 도시에 대

한 공헌,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신에 부합되는지, 디자인 보다는 건축사들의 도시에 대한 생각등 실제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세훈 : 주거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만 너무 소품이어서 부끄럽습니다.

출품전 심사의 공정성은 어떨까 하는 의구심 을 가지고 출품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떨어질 경우 판넬제작비, 시간, 경제성, 작가의 입장에서 수치스러움, 부족함, 만족스럽지 못한 것등 여러 가지가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러나 수상후 의외로 수상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김 린 : 작품심사후 심사과정이나, 심사결과가 관계전문지에 기록으로 남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건축상 성격으로 봐서는 건물 개체의 조형이나 기능보다는 도시환경 요소로서의 건축물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어 상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고 봅니다.

사 회 : 대물, 대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물론 건축상에서는 대물, 대인이 혼연 일체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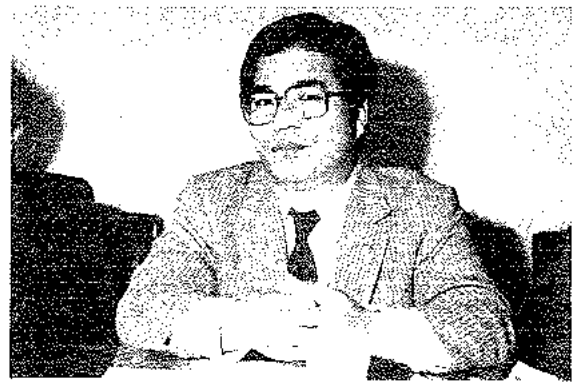
변영진 : 대물을 강조하다보니 다른 건축상에서 수상한 작가가 또 수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상대상을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 회 : 전반적인 내용은 서울시건축상은 그 성격



김 린

서울시건축상 성격으로 봐서는 건물 개체의 조형이나 기능보다는 도시환경 요소로서의 건축물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세훈

건축법의 완화로 규제를 위한 법이기 이전에 아름다운 건축을 위한 건축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분명해져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격상 시켜야되며,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연구되어야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세훈 : 제 자신이 건축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현재 기존의 건축법에서 짜여진 틀에 맞추기식의 건축이 되니까 소신껏 작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건축법의 완화로 규제를 위한 법이기 이전에 아름다운 건축을 위한 건축법이 되어야겠습니다.

김정철 :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건축상의 성격, 심사기준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향이 없이 막연히 내놓아야 하는 단점이 없어야겠습니다.

오응석 : 수상작품 이외에 탈락된 작품에 대해서도 장려상을 시상해서 참여도를 높이고 격려해주었으면 합니다. 수상자들을 위해서라도 축하연이라도 해서 동료들이 축하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변영진 : 저희가 주관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실무자로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좋은 지침이 되겠습니다.

사 회 : 긴 시간동안 서울시건축상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을 성의있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속에 서울시건축상은 발전 할 것입니다.

긴 시간동안 감사합니다.

大邱直轄市支部篇

“점검업무 합리화로 건축행정 질서확립”

건축사지 지부 순례관을 빌어 우리 지부를 소개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건축사협회가 벌써 스무살의 성년이 되었습니다. 마는 아직도 안팎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본회 오 응석 회장님께서 협회의 활성화를 기하고 신뢰받는 협회상을 정립하여 대외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목표로 현행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2000여 회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취임 초부터 각종위원회의 보완을 비롯하여 전국시도지부 순회간담회 개최 등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3월 11일부터 건축물의 설계 및 건축허가를 위한 조사업무와 공사감리 및 준공을 위한 조사점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회 여건으로 보아 시기 적절한 조치로서 각 지부별로 합리적인 운영을 기한다면 건축사가 점검업무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감수하여야 하는 사례가 깨끗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부실 불법건축물의 일소로서 건축행정 질서확립과 건축사의 품위향상을 이룩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구지부는 1981년 7월 1일 대구시가 직할시로 됨에 따라 1982년 1월 1일 경북지부로부터 분리되어 대구직할시지부로 발족하여 당시 회원 220명 이었으며 1982년 7월에 지하 1층 지상 5층 600평 규모의 회관을 건립하였고 1985년 1월 1일 현재 회원수는 176명입니다.

금년도 중점사업으로서는 우리 지역 건축문화장달과 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건축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주인의식을 재확립하는데 그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첫째 198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회원취미클럽(서예, 회화, 수석, 사진, 낚시, 등산, 바둑, 정구, 골프, 도예) 활동을 활성화하여 전회원이 화합을 도모하고자 각 클럽의 부장은 클럽활동을 통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기하고 지부에 대한 소속회원의 요망사항을 수렴하여 지부장에게 건의토록 하며 클럽별 단합대회시에는 타클럽 회원도 초청하여 클럽간의 유대를 공고히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상호옹호하는 기풍을 조성한다. 둘째 복지회 운영을 합리화 하여 설계수수료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 행위를 지양하고 복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여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셋째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검반 운영을 합리화하여 시민들의 건축법에 대한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시공지도 강화로 부실 불법 건축물을 일소하여 밝고 명랑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한다. 네째 건축사 작품전(건축, 서예, 회화, 사진, 수석, 도예)을 개최하여 정서함양과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출판작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여 홍보함으로써 건축 및 건축사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는다. 다섯째 해외여행을 통하여 건축에 관한 견식을 높이고 외국인의 생활양식 및 의식구조 등을 직접 보고 느끼므로써 우리의 위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 회원이 년내에 여행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 기타 주요업무 및 사업실적

1. 도서 검토제 실시

도서의 질적향상과 동시에 회원권의 신장을 위하여 회원 2인 1조가 되어 도서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2. 공사 감리 점검반원 운영

보다 완벽한 시공을 기하여 위법 건축물을 방지하고자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 업무를 분리하여 24



지부장 황 용 주

인의 공사감리 점검반이 구성되어 설계, 감리업무를 분리 시행하고 있다.

3. 건축 행정상담실 운영

시민을 상대로한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하여 건축 행정의 질서를 확립하고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협회의 홍보를 하므로써 협회발전과 회원 각자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건축행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4. 보화상 시상식에 물품 증정

매년 보화상 시상식에 물품을 증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5. 회원 구역별 간담회

회원을 6개 구역제로 나누어 매월 각 구청 건축과장, 계장과 회원 구역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6. 취미별 클럽운영

취미클럽별로 잘 운영하모로서 회원 친목을 도모하고자 골프, 낚시, 바둑, 등산, 사진, 서예, 수석, 정구, 회화, 도예 등 10개 취미클럽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7. 건축사 작품전 개최

건축 및 회원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건축문화 창달과 창작의욕 고취 및 정서함

양을 위해 건축, 회화, 서예, 사진, 수석 분야의 작품을 전시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8. 대구직할시 건축 행정 편람 인쇄 책자 배부

대구직할시 건축 행정 주요조례, 훈령, 지침,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 심의, 검사기준, 건축설비에 관한 규정을 책자로 엮어 각 회원에게 배부하였다.

9. 반상회 건축 상담

범국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반상회에 본지부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주민의 건축 상담에 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반상회가 되기 위해 건축 상담에 응하고 있다.

10. 건축사 방화 교육 실시

정부시책에 따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완벽한 방화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를 위하여 관내 건축사 방화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11. 건축사 업무에 관한 대관청과의 간담회 실시

건축사 행정업무에 관한 이해증진과 행정관서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대관청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12. 건축 3단체 간담회 실시

건축학회, 건축가 협회와 본 협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 특수성을 살린 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3단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13. 세미나 개최

14. 저축 증대 촉진대회 개최

근면 절약 저축의 생활화로 국내 자본을 축적 경제 사회 개발의 투자 자원을 조달하여 부강한 선진 조국 창조의 기반 축조를 위해 저축 증대촉진대회를 전개하였다.

15. 건축사 특별 교육

시당국에 따라 건축행정질서 및 건축사 질적 향상을 위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16. 사회정화 업무 계획수립

법규 위반 등 사회질서 저해 부조리 건축분야 부조리 척결 등에 대한 사회정화 업무 계획을 수립하였다.

년도별 회원수 및 설계도서신고 현황

년	도	별	회	원	수	설	서	신	고	실	적
82			164			1,741,957					
83			162			2,129,487					
84			167			1,878,798					

역 대 지 부 장

구	분	성	명	사	무	소	명
초	대	김	재	우	한	남	건축설계사무소
1	대	김	재	우	한	남	건축설계사무소

임 원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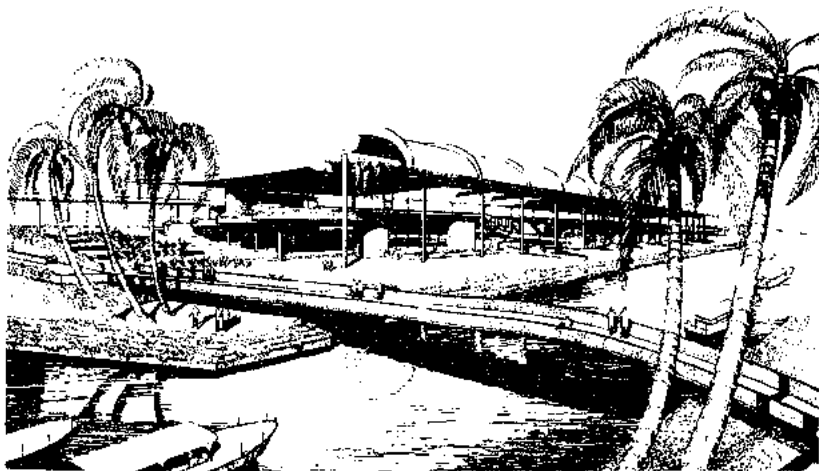
직	위	성	명	사	무	소	명
지	부	장	황	용	주	세	화건축설계사무소
간	사	장	기	웅	대	우	세아건축설계사무소
"		이	동	근	동	진	건축설계사무소
"		이	우	일	고	려	건축연구소
"		서	정	남	정	우	건축설계사무소
감	사	권	태	식	합	동	건축연구소
"		정	본	진	대	우	세아건축설계사무소

행정구역별 회원분포 현황

행	정	구	역	건	축	사	2	급	건	축	사	계	사	부	소	수
중	구	102		12		114		85								
동	구	4		3		7		7								
수	성	구	5		6	11		7								
서	구	17		7		34		18								
남	구	10		2		12		8								
북	구	5		3		8		7								
계		143		33		176		132								

아시아 건축사의 역할

Yasmeen Lari



다음 글은 파키스탄의 여성 건축사로 이름 높은 야스민 라리(Yasmeen Lari) 여사가 제 1회 아시아 건축사대회에서 발표한 "아시아 건축사의 역할"이란 논설을 유인물과 녹음 등의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간추린 것이다.

本稿에는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건축사들의 고된 활동상황과 프로젝트의 추진상황 등등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작품활동을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자못 흥미롭다. 읽는 동안 새로이 인식할 많은 사항들도 있어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本稿를 기고하는 바이며 건축사 여러분에게 아시아를 내다보는 조그만 창문을 제공한다든 의미의 미미한 역할이나마 本稿가 담당할 수 있었으면 한다.

〈金知德·본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주)유신설계공단〉

문제 제기

역사적으로 건축사들은 대형 건축물이나 기념관 설립에서부터 연립 주택과 사회개발계획에 이르기까지 건축 환경에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다. 기술 혁명에의 도전이 건축사들에게 그렇게 다양한 역할을 가져다 준것도 아니었으며, 또 인구폭발과 같은 문제가 건축사들로 하여금 하층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저소득 경제지역이나 혹은 저개발국가(후진국) 건축사들이 산업 선진국이 파악한 "건축사" 역할 모델과의 함수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신뢰할 만한 추정에 의하면 아시아는 앞으로 인구 폭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전 세계 인구는 1975년 4조에서 2,000년 대에는 6조 3억 5천만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 증가의 90%는 가장 뒤떨어진 후진국가에서 발생할 것이다.

대부분의 아시아 사람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는 추산은 또 있다.

세계 은행이 발간한 1983년 세계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1981년 2조 6억 5천만 아시아 인구의 75%는 일인당 국민 소득이 3백50달러 이하인 후진국에 살고 있으며, 13.3%는 일인당 국민 소득이 3백51달러에서 8백60달러 사이인 국가에 살고 있고, 6.32%는 일인당 국민 소득 8백61달러에서 1천 8백40달러 사이인 국가에 살고 있는 한 편, 겨우 5.4%만이 소득이 높은 석유 수출 국가나 일본,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산업선진국에 살고 있다. 75%에 해당하는 후진국의 일인당 국민 소득과, 일인당 국

민 소득이 1만80달러인 일본과 비교해 보면 사태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인구의 70%는 일본의 1인당 국민 소득의 3.47% 정도밖에 안되는 국가의 국민이다.

필연적으로 이 논문의 초점은 건축사들이 아시아 총 인구의 거의 90% 가까이 살고 있는 중진국과 후진국의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건축사의 역할에 맞추어 진다. 후진국은 대부분이 이겨내기 어려운 난관과 직면해 있다.

거의 모든 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절대적, 상대적 가난과 대면하고 있다. 불결한 위생과 낮은 교육 수준과 영양 실조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인구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상상했던 수준과는 다르게 형편없는 소비 수준에 머물어 있으며, 기업체의 신용 거래와는 아무런 상관을 갖지 못하고 자국내의 소무역업자들에게 엄청난 이득만을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맺고 만다. 그들은 고용과 저소득하의 실업자와 마찬가지로이다.

기술혁명과 현대화라는 형태로 등장한 산업국의 영향은 거대한 메트로 폴리스와 산업집중현상을 나타내게 했다.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산업화는 이 국가들의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우선적 산물인 메트로 폴리스에 자극을 준 것이다. 기술발달로 인해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주요 도시들은 혁신의 주요 요충지로 진전하였고, 그 나라 개발의 한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지역 불균형 현상의 만연으로 일종의 자국내의 식민지화를 빚어냈으며 그 나라의 물품과 공산품의 공급이 이 대도시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하였다. 대규모 산업화는 그

배후 지역에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노동력을 끌어 들여 유례없는 도시 급증 현상을 나타내게 했다.

토지 소유가 보증되면 주민들은 협동저축도 할 수 있으며 개량과 주택 설립을 위해 친구나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어 올 수도 있게 된다.

기술과 재료

재정이 부족하면 가옥은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 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점차 재정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공간 추가를 위해 주택을 넓히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적 자원

프레임 워크는, 각 가정과 사회적 수준에서 가옥의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희망하는 요소도 포함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자조(自助)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증할 필요가 있다.

조립식 주택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를 제공하여 주고, 토지 소유권을 주어 자료와 기술을 원조해 준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 사회를 위해서 토지구획 표준과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도로와 공공 부지, 편리와 사회적 infrastructure, 이 모든 것이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은 그들 고유의 충분한 건축 양식을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은 많은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고봉 도시건축을 깊이 연구할수록 설계 기본 도구로서 더 실질적 설계

표준 기본으로서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을 설계하면서 건축사들은 그들의 우위성, 그들의 문제, 그들의 견해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일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과 관련, 주어진 상황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의 응용이 가능하겠는데 저소득층에 관한 상황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공동 개발과 개선 계획
2. 무단 거주자들을 위한 재개발이나 정착 계획
3. 새 부지와 용역 계획
4. 코아 하우스 프로그램
5. 조립식 주택

확실히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는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그들의 전문 지식을 발휘할 기회가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전례없는 도전에 대항하여 자신을 재교육할 수 있다면 아주 흥미로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사는 광범위한 스펙트럼과 관계된 사건들을 다루어야 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예를 들면,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인구 집중으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도시 문제에서부터, 서양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술 혁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복잡한 대사건과 거의 변화 없었던 건축물 외형의 변화와, 재정, 에너지, 그밖의 infrastructure로 나타나는 국가적 차원의 격심한 자원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풍부한 건축적 유산과 격려할 만한 역사적 도시 중심지가 산재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도시 중심가의 혼란한 상황은 누군가가 악화되어 가는 환경에 질서와 건전한 분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 요망된다. 건축사는 모든 인간 환경을 잘 다루도록 훈련받은 유일한 전문가이므로 그것이 건축사가 수확해야 할 도전이다.

건축사는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보다 더욱 많은 일들을 술선 수범하여 이루어 나가야하며 재정 및 부동산의 관리, 지역재개발, 재정착, 공동사회 개발, 복고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

주택환경 문제에 더욱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하더라도 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전문가들도 생긴다. 한편으로 건축사가 진실로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또 환경설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다른 한 편으로 지지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해주며 그 과정에서 傳受者가 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 스펙트럼의 양끝은 저명한 두 건축사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하여 조명해 볼 수 있다.

건물 재료를 잘 배치하여 대가로 꼽히고 있는 디테일의 명수 Mies vander Rohe씨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훌륭한 주택에 먼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을 가능한한 가장 좋은 장소에 배치합니다.”

자국의 아름다움과 전통의 중요성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강력히 내놓은 Hassan Fathy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태어난 곳에서 시작을 해야합니다. 새 건물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성장되도록 해야 하고 가족은 노래의 선율의 모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전문 단체들이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일과 훈련을 받는 목적에 관한 자료를 출판하였다. 그 중의

하나에 의하면 건축가는 교육자, 정치가, 도시계획가, 공무원, 탐구자, 컴퓨터 전문가 혹은 현장 관리인이 될 수가 있다. 기회의 범주는 시시각각으로 변하여 제한이 없다. 건축사는 그 시대의 사회적 질서를 형상화 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공헌할 수 있는 위엄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간행물의 기록을 인용한다면 건축사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른 여러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 두는 차원 높은 전문가인 것이다.

5개의 표제로 나타난 건축사의 역할

1. 조정 담당자로서 건축가의 역할—전통적 역할

건축사의 업무란 건물과 환경을 창조하고 건설하는데 요구되는 전문적 활동의 구성이라고 정의되어 왔다. 이런 활동은 빌딩과 환경 창조에 필요한 자문, 분석, 설계를 말하며 또한 설계의 취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도면과 서류의 준비, 설계 취지가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건설 현장 관리 등으로 설명이 된다. 건축사는 자료와 기구 그리고 건물과 환경 시스템의 선택의 책임이 있다.

건축사의 활동은 의도한 결과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타직종과 타분야에 대한 지도와 조정을 포함한다. 그 의도적인 결과란 공동 사회에서 건강과 복리, 안전, 질서 및 美의 창조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의 제공으로서의 건물과 환경을 가리킨다.

건축사의 역할은 단독 주택과 가구 및 조립에서부터 국제적 집단에 영합하는 복합 건물에 이르기까지 설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훈련받아 오고있는 내용이며 다루기도 할 수 있는 전통적 역할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도시의 형상에서 대량주택의 결과로부터 초연한채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건축사들이 도시 설계에 뛰어 드는 것이 또한 필요한 것이다.

2. 광범위한 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건축사

높은 인플레이션과 급속도로 올라가는 물가고의 현 상황 때문에 건축사는 고객들에게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최대한의 적정 가격으로 원하는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게 되었다.

때로는 건축사들은 대지 선택에서부터 가능성 개발이나, 재정, 계획 구성, 건설 감독을 조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에 관련될 것이다.

건축사는 고객이 지명하는 대리인이며 고객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오직 고객으로부터라야 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 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고객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활동을 할 것이다.

(a) 빠른 추적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파키스탄)는 커다란 계획을 실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환경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므로 때때로 그런 계획은 政情의 변화나 정부요직에 있는 관리의 교체로 포기하게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그러나 계획이 일단 시공되면 포기한다는 데에는 어려운 문제가 부가되기도 하여 곤경을 겪게 된다.

흔한 경우를 예로 든다면 기간과 비용이 치명적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격의 단계적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가능한 계획을 신속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사들은 시간과 비용 조절뿐 아니라 설계 고안이 승인되자마자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해내려면 그 유일한 방법은 이 계획에 빠른 추적을 적용하는 일이다. 이런 식의 工期 단축방법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 한 방법으로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 공사를 시작하여 설계 승인과 정지작업 사이의 시간을 줄일수도 있다.

설계 작업이 모두 끝나기 전에 정지작업을 너무 일찍 시작하면 다음 단계에 넘어가서 수정하기 어려운 실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런 작업은 쉬운 방법은 아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수반한 4백50개의 룸과 1천5백 좌석의 홀이 있는 호텔을 설계한 경험이 있다.

우리는 부탄받은지 6주안에 작업을 시작했다. 설계와 건설 작업을 23달후에 완료하기는 했지만 처음 여러 달동안은 정말 지독한 시간들이었다.

(b) 빌딩 패키지(package)의 착수

대개의 경우, 고객들은 토지를 갖고 있기는 하나 그 대지로부터 어떻게 해야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될지 알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 건축가들은 고객들이 최대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package를 표명화할 수 있다. 예로 한 고객이 값어치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거의 재정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는 약 5만 평방피트의 소건물을 설계하도록 요청받았다. 그 위치가 매우 유

리한 조건이었기에 우리 다른 기관에 함께 참여하도록 설득시켜야한다고 제안했다. 그 고객의 반응은 민감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나는 흥미를 갖고 있는 몇몇 재정 기관과 이 문제를 상의해 보았다. 나는 흥미를 돋우기 위해 15개 기관과 첫 모임을 가졌다. 그 중 10기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는 흥미있어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서를 보냈으며 그들의 요구를 기초로한 단서를 준비하였다.

그 건물은 5만 평방 피트에서 7백5십만 평방 피트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그 건물안에 커다란 오피스 공간과 전시장, 백화점, 5백 좌석이 있는 강당, 스키바, 매점, 그리고 2층의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었다. 이 건물은 또한 신속히 추진되어 나갔다. 그 현장 작업은 전 완료 기간이 설계 기간을 포함하여 거의 42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기일이 표준에 비추어 아주 적당하리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희망이 있는 후 6개월 후에 착공되었다.

그 건물은 혼합 원료로 이루어졌으며 완전히 에어컨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며 용역과 골조를 통합하는 것은 쓸데없고 복잡한 시간 낭비였다. 그러나 시공에 앞서 시간을 단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우 포용성있는 태도로 모든 자문단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기를 원했다.

10개 기관이 그 건물에 대해 합동 소유권을 가지고 또한 토지의 가격을 분할하여 백화점에 지불하였으므로, 토지 소유주는 백화점을 자유롭게 개방하였다. 그 계획은 멋진 프로젝트였다. 비록 그것을 적절히 분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 소유주

가 공동 투자에 일단 동의하였으므로 그 작업은 공평하게 잘 진행되었다. 이 계획은 정말 파키스탄에서는 처음 이루어진 계획이었다.

(c) 설계(project) 관리

건축사는 건축 건물을 완전히 담당하여 설계와 건축 진행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 담당자로서의 지위를 고수해야 한다.

정의에 따르자면 설계 관리란 일반적으로 그 계획의 처음 (대지를 선택하기 전)부터 끝이 날 때까지 단독 담당자에 의해 연속적 역할을 제공한다는 체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건축이란 하나의 사업이며 창조적 설계는 건축의 한 단면이라는 것, 그리고 행정적 수단과 업무의 이해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건축가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만 한다면 건축가들이 더 높은 수준의 역할을 인수하여 그들의 계획을 담당하는 것을 도맡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건축사들은 그 작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개입하여야 하며 또한 부동산 문제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하고 투자기관으로부터의 투자 거래에 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건축사들은 고객들에게 더 큰 용역을 제공할 수 있으며 품질과 시간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결국 훨씬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건축사는 대 통합체를 다룰 수 있도록 훈련받았으며 한정된 부분에만 관련된 다른 전문가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이다.

3. 사회적으로 본 건축사

(a) 공동입주 지대의 공동사회 개발과 상승하는 계획, 불규칙적,

비공식적 정착.

건축사는 촉매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공동 참여를 당부할시 공공구역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며, 도시에 사는 貧者들의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골조 구조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거주자들의 토지와 신앙을 위해 합법적 상태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옥 구조와 거리 조직망, 공유지의 향상과 관계되는 기술적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b) 입주해오는 사람들이 같은 지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재개발 혹은 재정착 계획.

교육을 통하여 건축가들은 정착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 관리들과 지역 주민들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분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설계 분야를 맡은 전통적 용역을 별도로 하고 건축가들은 전위를 최소화하고 사회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과 방침을 세우는데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c) 새 구역과 용역 계획

저임금 소득자들을 위한 계획에 있어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건축사들은 가옥을 설계하고 거주민들을 정착시키는 혁신적 결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사들은 주민들을 위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와 토착기술을 이용하겠다는 결정에 노력할 것이며 점차 주민들이 집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들이 만약 세력의 마당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면, 그들은 그들의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정식화 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리고 건축사들이 그들의 견해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정부에게 확신시킬

수 없다면, 오늘날 아시아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질서 상태는 계속 악화될 것이다. 건축사들의 목소리가 퍼지도록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정부와 정책면에 실질적 부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건축사는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십자군의 역할을 해낼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로부터 내려온 체계에 의해 앞으로도 계속 건축사는 압박당하고 지배받을 것이다. 건축사들이 정치적으로 강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만 그들의 목소리는 세상에 퍼져 나갈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하여 건축사들은 전문가로서의 합법적 위치를 고수할 수 있으며, 미래의 전문가들을 위해 막대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d) Core House 계획

저소득층을 위하여 고안하여 설계한 Core House 계획의 경우, 낮은 금액으로 토착 기술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 외에도 기술적 원조가 조달되어야 한다.

(e) 빌트 하우스(Built Housing)

대부분 Built Housing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계획은 주로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치적 동기로부터 시도된다. 저소득층을 위해 설계한 것이 아닐 경우 때로 정부 보조금이 없이 지을 수 있는 곳에 짓는 경우가 있다. 한 예를 들어본다면, 대 산업체에서 직원 기숙사를 건설할 때 처음 시공비는 주어진단다. 그리고 그 소유주는 회사 신용장을 요구하면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문제는 비싼 가격과 개성 없는 형태에 있다. 건축사들은 흥미롭고도 사회적, 문화적으로 만족

스런 분위기를 창조하는 저렴한 주택을 설계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가격을 하락시키려면 생명력 있는 결론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제 개량 기술과 전통 건축재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Line Area라고 알려진 이 계획은 입주자 정착지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합동설계를 위해 골조를 제공하여주는 시도이다. 카라치(Karachi)시 중앙에 위치한 Line Area 재개발 계획은 Karachi에서 가장 크고도 지저분한 Slum에 적용되었다. 면적은 약 5백 에이커 정도이며 인구는 거의 1십만 명이 넘는다.

이 계획의 첫째 목적은 그 계획 지구의 주민들에게, 특히 저소득층을 위하여 Infrastructure와 공동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시 중심가에 있는 이 계획의 위치는 상업적 개발을 위한 특정 지역을 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없이도 infrastructure를 제공하는데 부여되는 재정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 결과로 이 계획을 스스로 경비에 의해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고정적으로 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정부 보조가 없어야 한다.

2) 가옥의 기본 요소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에게 아무런 혜택을 줄 수가 없다.

3) 건설 작업 방법은 단순해야 하고, 재정을 해결하자마자 가옥을 완공할 수 있도록 증가 개발이 가능해야 한다.

4) 자조가 가능해야 한다.

5) 건축비가 비싸고 가정은 대부분 대가족이므로 특별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유 생활 공간을 포함하여 정원의 부지가 주어져야 한다.

6)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각 가정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7) 결정은 주민의 사회 경제적 필요에 부응하여야 직접적으로 한다.

이 계획 초기에 그 주변에 지어진 5층 아파트는 에이커당 80채를 수용하지만 우리는 45평방 야드의 대지에 에이커당 70채를 지을 수 있었으며 거기다 45피트의 거리를 끼울 수 있었다.

워터 본 오물 처리 시스템과 수도관, 전기, 포장 도로의 형태로 된 infrastructure는 한 plot당 4천5백 Rs(미화 3백50불)를 지불하고 있는 각 plot에 제공되고 있다.

건축사로서 우리는 온 주민이 그들의 선택하에 집을 설립할 수 있는 개인적 수준과 사회 공동체적 수준에서 모두 참석할 수 있는 계획의 창시자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지역 개발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전문 위원회는 선출된 대의원과 개발청과 지역 행정과의 대표자로 구성이 되었다. 한 지역의 카운셀러는 그 지역에서 건물 부지를 적절히 택할 수 있도록 자세히 관찰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이 공동 계획을 가능하도록 하는 framework을 만들었다. 설계된 계획 방식에는 정부 보조금이 없으며, 골조 구조는 거주자들이 원하고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가옥을 짓는데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게끔 해준다.

이미 약 2천 가구가 plots를 부여받았으며 약 1천5백채가 지어졌거나 건축 중에 있다.

4. 문화에 부응하는 건축사

건축사들이 우리의 전통을 살려주는 가옥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역사적 도시 중심에서 전통 문화적 건축을 되돌아 보는 것은 중요하다.

참고 모질은 당대의 건축 환경과 비교해 볼 때, 전통적 중심지는 인간의 양식을 고려하고, 인간 상호관계를 나타내어 주는 도시 건축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옛 .도읍의 문화적 유산의 중요한 부분인 건축과 전통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도시화의 압력하에 파괴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대도시에서는 부동산 붐이 유행하여 현존하는 사회구조와 통합 의식과 전통적 도시의 조화를 파괴하고 있다. 모험을 건 투기를 쫓아감으로써 문화적, 역사적 주요 건물이 사라져 가고 있다.

또한 불행하게도 각 지역의 중요 도시에 기계화와 산업화, 식민지화의 물결이 도래하여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궁지를 빼앗아 간다. 현대화와 서양 개념을 맹종하는 물질적 환경이 현대에 와서 대두되었으며 이런 물질 만능으로 환경은 우리의 사회 경제적 상태나 문화 유산과는 거의 관계를 갖지 못한다. 추진의 현대적 개념이라는 명목하에 도시 재현과 역사적 중심지는 거대한 문화가(價)로 쇠퇴해갔다.

역사적 유대감을 이루려면, 전통 건축과 전통 환경을 말살로부터 구하여야 한다.

건축사들은 행정 관리인들과 일반인들에게 확신을 주며 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막대한 임무를 갖고 있으며, 전통적 역사적 건물을 구하며 역사적 중심지를 부활시킬 수 있는 막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건축사들에게는 옛 건물을 현재

다시 이용하도록 시도하고 확증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재이용의 기회 앞에 개방되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역사의 발자취를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재건보다 옛 건물을 채택하는 것이 더 생명력을 지닌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립된 건물보다는 전 지역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과 부지 보존의 개념이 도시 계획에 함축되어야 한다.

건축사들은 그들이 지닌 센스있는 감각과 미적 성향으로서 고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할 수 있으며, 역사적 건물과 유적지를 살리는 데 그의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분명히 경제적 압력으로 건물이 시대에 따라 냉각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거주민들의 요청에 호응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외관은 그대로 있으나 내부 구조는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5. 정치가로서의 건축사

바야흐로 건축사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토록 요청할 것을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

고도로 발전한 산업 선진국에서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강력한 기관이 발달했다. 그러나 개발 도상국의 경우는 매우 다르다.

건축사들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정책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환경에 관련된 문제들이 점점 증대화되므로 건축사들이 그들의 주장을 들려주는 것이 강력히 필요하다.



鄭 官 謨
한국美協 이사장
誠信여대 산업대학원장

예술작품 설치로 아름다운 서울을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람살 곳 아니라는 표현을 흔히 하고 있다.

그 요인 중에서 우선적으로 과밀한 인구문제를 들 수 있겠다. 이른바 다운 타운이라 일컫는 종로쭈메 들어서면 어떻게 이리도 사람이 많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리를 메우고 있다. 서울에는 한국 전체인구의 사분의 일이 모여 산다고 한다. 세계에서 몇째 안가는 인구 많은 대도시이다.

다음은 교통지옥이다. 도시계획이전에 자연 발생적으로 성장해온 서울을 이제와서 부분적으로 도로확장을 한다고 교통문제가 해결될리는 없다. 결코 차량 보유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교통정책이 아쉬운 것이다.

대도시일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코어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야 하고 그 코어 형성은 사람들의 용무나 관심이 끌리는 마크네트에 의거 하건만 서울의 여건은 중구나 종로쭈메의 도심지에 모두 모여 있으니 아무리 사람들 보고 흠여지라거나 도심지 출입을 억제한다 해도 성과가 있을리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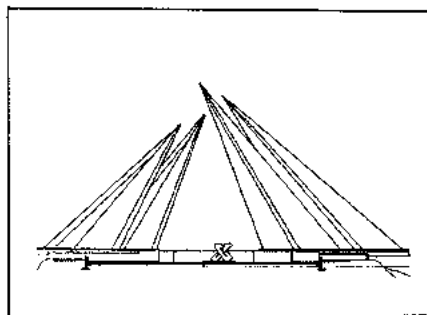
다음은 대기오염이다. 자동차 나라라고 말하는 미국의 어느 대도시와 비교해 보아도 서울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맨하탄의 복잡한 대로변에서도 심호흡이 가능하지만 매연과 먼지로 뒤덮인 종로 거리에서 심호흡이란 생각할 수가 없다.

이쯤의 몇가지 예만 들어보아도 서울은 심각한 도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서울을 사랑한다. 내가 한국인이니까 그 어느 부유한 외

국도시에서 걸만 번지르하게 사는 것보다 제나라에서 사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 만으로 내가 서울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서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울러 서울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게 생각하기도 한다. 오늘의 서울은 명실공히 국제도시로 손실없이 성장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서울에서 로얄 발레단도 보았고 카라얀이나 올만디, 번스타인의 지휘도 보



았다. 이제 올림픽도 서울에서 한다 세계의 정상과 국제적인 모든 것들을 서울에서 경험해 볼 수 있으니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는가.

여의도의 「대한빌딩 63」은 나의 관심을 사로 잡는다. 그 건물의 디자인이 마치 심플한 탑신갈기도 하고 미니멀 조각 같기도 해서 나를 매혹하고 있는 것 이외로도 그것은 서울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으며 오늘의 국력을 읽어 볼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건물들이 곳곳에 건립되고 있어 도시면모를 바꾸어 가고 있다.

잘 사는 나라, 앞서가는 나라의 도시에서 오래전부터 공공건물 건축비의 1 퍼센트는 예술작품 구입비로 지출시켜 크고 좋은 미술품으로 건물내외를 장식토록 해왔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도시 분위기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그 법을 문예진흥법 13조에 서 권장사항으로 실시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서울시에 한해서만 의무조항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 건축중인 큰 건물들은 하나 둘씩 조각 또는 회화작품으로 실내외를 장식하고 있다.

아마도 몇년 후의 서울은 어디가나 몇 있는 현대조각이나 회화작품을 감상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문화민족다운 도시면모를 보여 줄 수 있을 줄 안다.

여기에서 한가지 서로가 신경을 써야 될 문제는 예술작품 설치에 있어서 정말 예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는 상식문제이다. 조각이든 회화이든 건물의 디자인과 공간 그리고 용도에 어울리는 작품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흔히 설계자나 예술작품제작자의 안목은 무시되고 건물주의 무지한 기호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설계를 맡은 건축사들은 설계당시부터 자기작품에 어울릴 수 있는 미술품을 구상하고 그 미술가에게 제작 의뢰하는 적극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비록 인구, 공해, 교통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서울이라 하더라도 한 모퉁이씩 예술작품 설치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街路樹 관리사처럼

李圭鮮

이화여대 교수(동양화)



지난해 여름 몇평안되는 집을 증축 하면서도 건축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건물의 외양이 멋있어야함은 물론 내부의 설계까지도 주어진 지리적 환경과 기후적 조건에 많은 영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建築의 기초상식조차 없는 나로서 감히 건축전문가들이 세워놓은 건축의 좋고 나쁨을 가린다는 것이 상식밖의 일이라 생각되어 그림을 그리는 한 사람으로서 보고 느낀 몇가지만을 적어 보려 한다.

로마에 展示會 관계로 여행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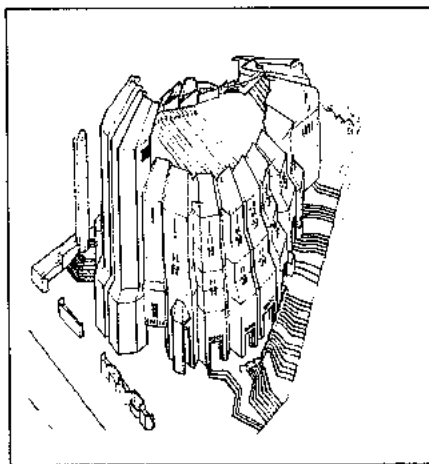
길가 의자에 앉아 한참동안 가로수를 올려보고 있다가, 나무로 올라가 작은 나무가지를 잘라내고 내려와 또 올려다보곤 머리를 가우똥거리며 다시 올라가 또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자르는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다. 안내인에게 물어본즉 로마 시내엔 지역을 나누어 건물의 특성이나 주위환경에 맞추어 가로수의 가지를 자른다는 것이다.

가지사이로 보이는 멋진 풍경을 한 畫家가 좋은 構圖를 창출하듯 가지를 가려 잘라 어느 쪽에서 보든 아름다운 한쪽의 그림처럼 나무 모양을 만든다는 것이다.

가로수가 자라면 톱으로 밀동만을 남기고 잘려버리는 우리 실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다. 나무가지 하나 하나 자르는데 이토록 심사숙고하는 이들이 건물을 짓는데는 얼마나 熱과 誠意를 다 했겠는가 생각하니 오늘에 로마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남을 것 같다.

로마뿐만 아니고, 파리 등 많은 도시들이 情感이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구라파 여행을 하고 돌아온 화가들이면 누구나 하는 말이 “인상파때 유명화가들의 풍경화는 창작이 아니라 실경 그대로 옮겨 그린거더군!” 하고 이야기 한다. 그러니까 작가가 실경을 그대로 옮겨 그려도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질만큼 도시환경이 예술적이지요,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잘 어울린다는 뜻이다.



오래전 서울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은 한결같이 어지럽다는 것이다. 마구 붙은 간판, 조화를 못이룬 건물의 형태나 색채들, 모든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요즘엔 그렇지 않은 않다. 간판도 많이 정리되어 가고 멋진 건물도 많이 세워지고 있다.

건물의 외양이나 내부시설이 외국 의 좋은 건물과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다. 건물주위의 조화도 놀랄만큼 달라졌고 전에는 없던 조각작품

들이 놓여지고 실내에는 벽화들이 걸리고 바닥에는 번쩍 번쩍하는 이태리산 대리석이 깔려 호화롭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나는 이 멋진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이런 건물은 몇몇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워지는 건물마다 다투어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장식을 한다면 국고의 낭비는 물론, 건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이나 한국적 맛을 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직접적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태리 대리석으로 정교하게 만든 조각작품보다 한국산 화강암으로 독특하게 만든 작품이 더 정감이 가기 때문이다.

화강암으로 독특하게 만든 조각작품처럼, 한국의 참맛을 살린 건물만이 영원한 우리의 건물이 될 것이다.

또 한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서울의 도시계획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양의 최대니, 최고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운 서울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선 고층건물의 신축은 서울 외곽에다 세우고 시내엔 가능하면 주위경관을 어디서나 관망할 수 있도록, 한국적 맛을 살린 높지않은 건물을 세우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가뜰이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효과도 얻게 되지 않을까?

한국의 멋이 숨쉬는 도시, 우리 것을 보여 주고 자랑할 수 있는 서울을, 나무가지를 하나 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생각하여 자르는 가로수 관리사처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超高層 아파트 建築計劃設計

大韓住宅公社

대한주택공사가 주택난의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9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초고층아파트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25층 부문에 趙成龍(우원건축연구소) 회원작품과 20층형에 金天九, 韓善福 회원의 공동작품이 당선되었기 이를 소개한다.

1. 초고층아파트의 개발 배경

- 도시지가의 폭등에 의한 대지 이용효율 제고
- 핵가족화에 따라 세대수 증가로 인한 주택난 해소 기여
- 아파트 단지내 충분한 녹지 및 OPEN SPACE 확보등

2. 사업시행 방침

- 참신한 아이디어 반영을 위해 지명현상공모
- 국내 초고층 아파트의 효시
- 공기업의 공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기술을 최대한 반영 초고층으로서 최적의 주택을 건설

- 당공사 기업이념을 살려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혼합형으로 계획
- 단지경관을 고려 20, 25층 형으로 구분 시행

3. 현상설계 추진

- 시행방법: 지명현상 설계 공모
- 대상: 당공사의 설계용역 경험이 있는 업체중 우수업체와 공동주택 설계능력이 우수한 전문용역업체
- 응모업체수: 8개업체
20층형: 4개업체
25층형: 4개업체
- 응모기간: 85. 1. 11-85. 2. 9 (30일간)

- 작품심사: 사외 2인(대학교수 위촉)과 사내 6인(실무부서장)으로 위원회 구성 심사
- 심사방법: 현상설계 지침 및 계획기본방침을 토대로 건축계획, 설비, 사업성, 분양성으로 구분 심사

4. 계획 기본방침

- 아파트 단지경관 향상 및 토지 이용효율 제고
- 공유면적의 극소화 및 공법개선을 통한 공사비 절감
- 주거의 쾌적성 및 안정성 도모
- 고층주택의 심리적 불안감해소 및 종합적인 방재 대책을 계획에 반영

25층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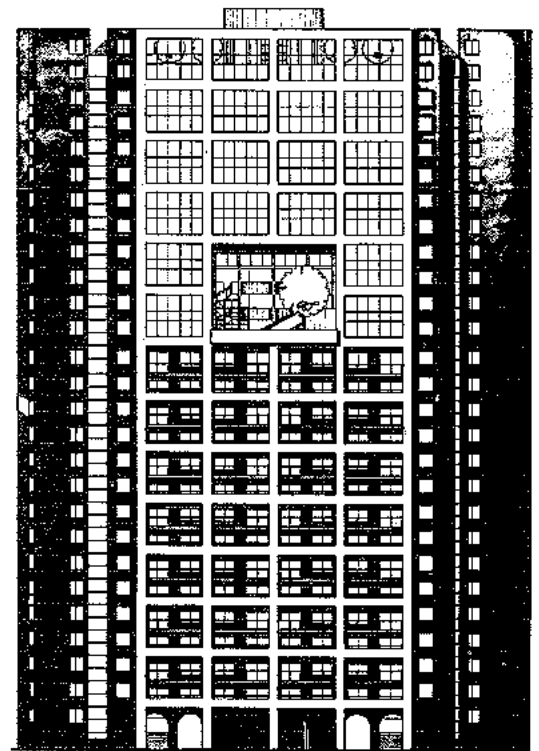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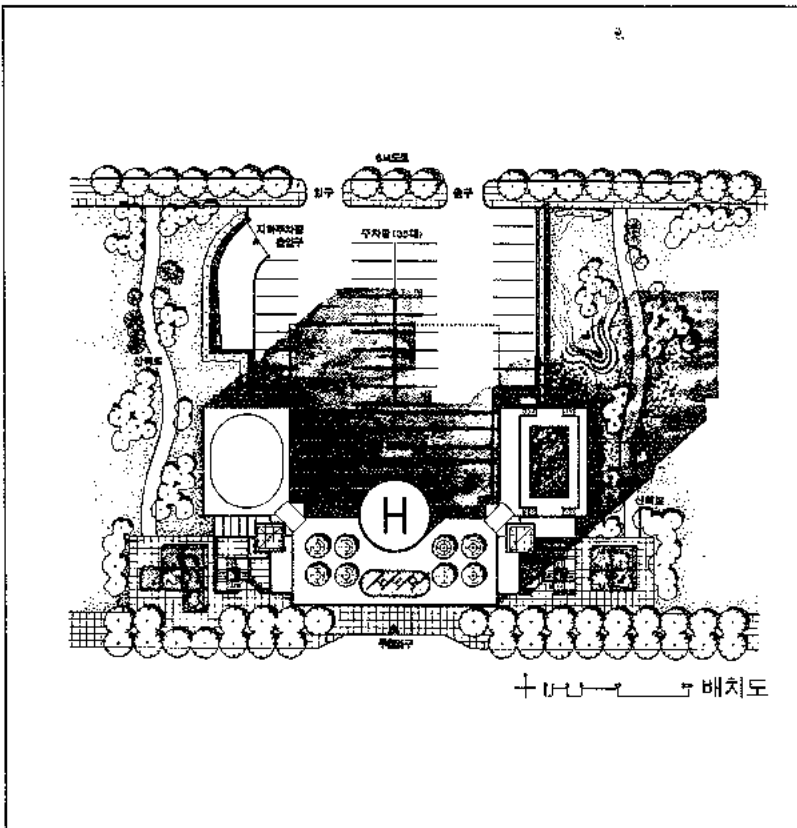
趙 成 龍
우원건축연구소

● 건축면적	862.54M ²
● 연 면 적	20,277.75M ²
● 층 수	지하 1층, 지상 25층
● 주차 대 수	77대 (지하 26대, 옥외 49대)
● 지하대지비	1.515.76M ²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기둥포대	8세대

1. 배치계획

- (1) 특정한 단지계획에 의한 초고층 설계가 아니므로, 프로토 타입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 (2) 단지의 입지 특성에 따라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의 융통성·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3) 일조권등을 위한 건물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시행령 90조) 중 (3)





항에 의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에 대한 제한은 일조권보호의 개념보다는 사적공간(프라이버시) 침해방지와 개방감을 지향하는 법규로 사료되므로,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이의 적용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현행 건축법상의 저층에 대한 대안으로 한쪽 혹은 양날개 부분의 주거동을 일정각도(16도)로 벌림으로서 개방감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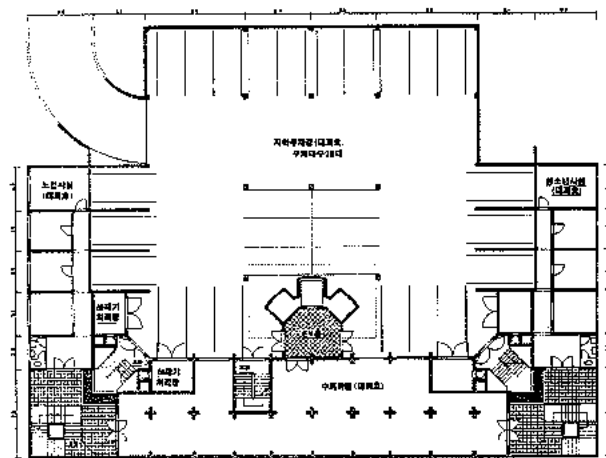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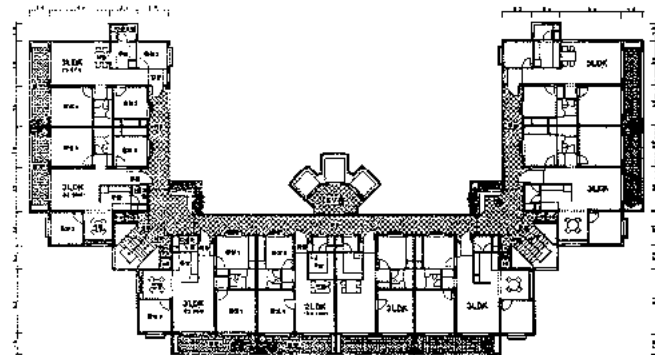
2. 건축계획

(1) 주거동의 입지환경에 따른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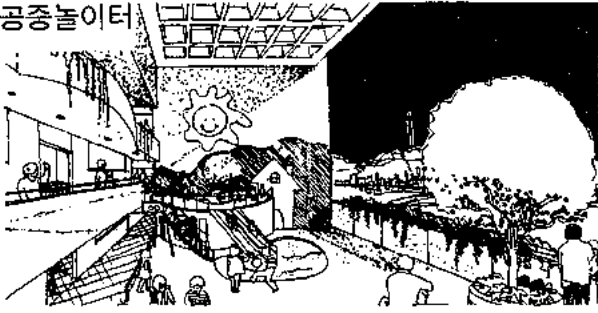
1층 및 지하층의 이용도를 재고하기 위하여 입지에 따른 커뮤니티의 성격을 분명하게 설정한다. 예를 들어 도심지 재개발의 경우, 이들 상가를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개별 점포 등의 시설을 고려할 수 있는 반면에 주거지일 경우 단지내 필요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주거동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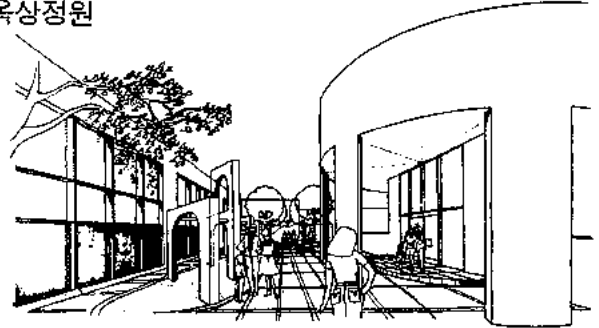
공용면적의 극소화, 공사비 절감, 각 세대에 대한 외기 면적의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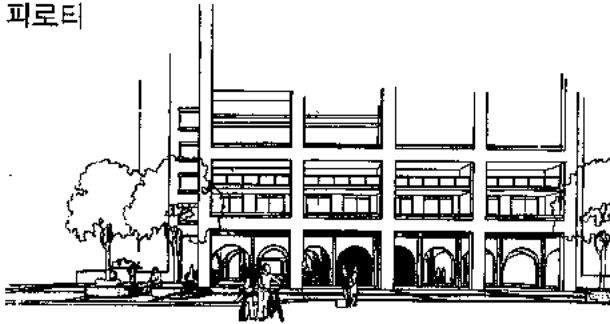
공중놀이터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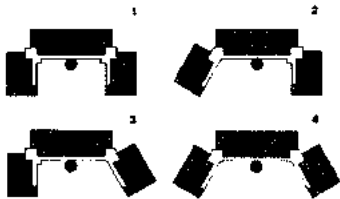
피로티



복도 (SEMI PUBLIC)



대지형태에 따른 건물의 직용도



커뮤니티 형성이 유리한 편복도형을 채택한다.

(3) 주거동의 분절

초고층 주거시설이 갖고 있는 거대화, 획일화를 지양하고, 모든 세대에 대한 충분한 일조계획, 배치의 유연성을 갖기 위함이다.

(4) 피로티

단지내에서의 옥외공간의 연속성, 주거동으로의 병행한 접근성, 커뮤니티 형성 장소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5) 거주성

모든 세대에 대하여 외기접촉면의 극대화를 위한 단위평면계획.

(6) 음영부 공간의 성격

초고층으로 인한 거대한 음영부분을 옥외주차장으로 활용한다.

(7) 공간의 단계적 전이와 영역설정

사적공간(단위세대) → 반사적 공간(현관앞) → 반공적공간 → (계단실 앞 휴게공간) → 공적공간(승강기홀, 피로티, 놀이터)

(8) 비상시의 안전대책

초고층의 심각한 재해에 대비하여 상, 하부 세대간의 발코니에 비포트를 고려한다.

(10) 외관의 단순화

거대한 규모의 단일 빌딩이므로 가능한 한 외관을 단순하게 정돈하여, 초고층 건축에서 오는 중압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11) 고층부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풍압으로 인한 물리적 영향을 가급적 극소화 시키는 방법과 고소 공포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16층 이상의 전면 발코니와 복도에 유리창을 설치한다.

(12) 에너지 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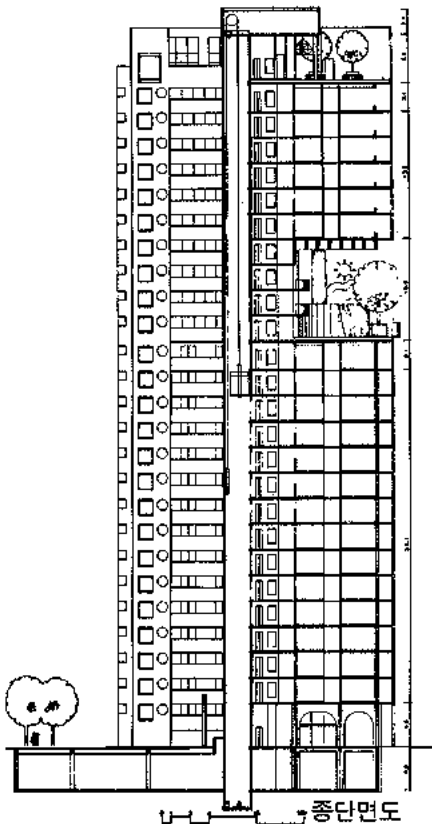
전면(동, 남, 서측) 발코니 면적을 확대시킴으로서 온실의 기능으로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수동형 태양열장치)의 방안으로 이용한다.

(13) 설비의 가변성에 대한 대책

장차의 도시가스 이용에 따른 개별식 열원을 설치할 장소와 각 세대별로 굴뚝설치.

(14) 오물처리 계획

초고층 건축에서의 더스트·슈트는 배기, 소음, 역풍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나 이는 기계장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지하실 주차장에서의 오물수거방식을 채택한다.



20층형

(金 天 九) 案
(韓 善 福)
内外建築研究所

본 計劃案을 대하면서 임의대지에 건축계획이란 자유분방한 IDEA와 창조적 기량의 발휘라기보다 處處滿足이라는 공통분모의 함수해결이 더욱 어려움을 설계자는 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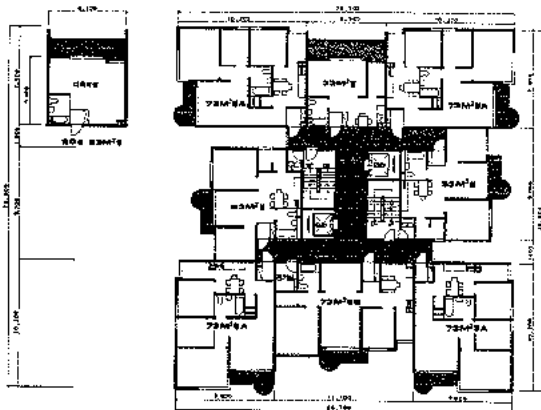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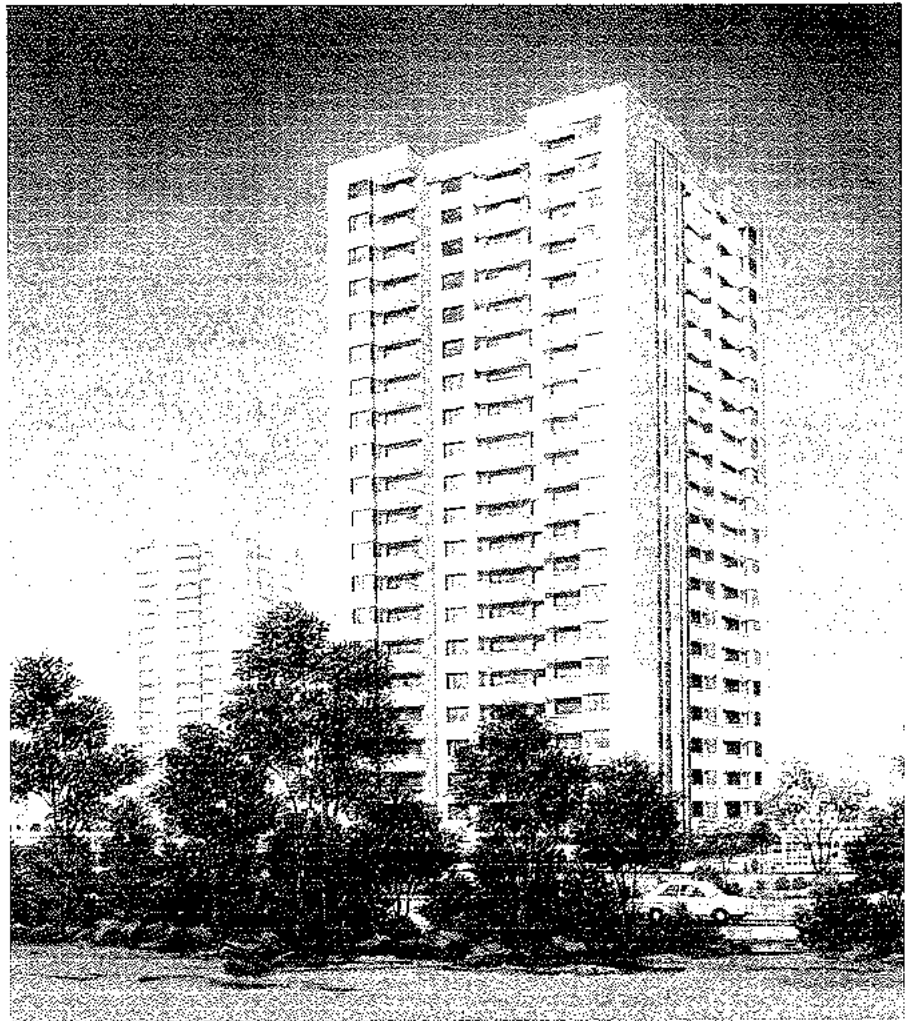
高層이 주는 중압감, 장벽의 나열로 인한 폐쇄된 공간형성을 배제하면서 法的 요건의 충족, 자유로운 배치, 토지이용율의 제고, 저렴한 공사비, 공유면적의 축소, 구조적인 합리성추구 및 시공성 향상을 기도하면서 본계획안을 전개하였다.

가. 計劃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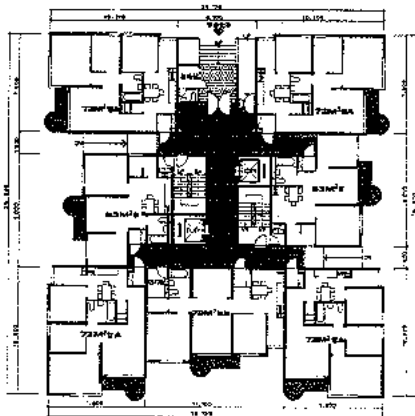
○1-1. 설계명칭 : 대한주택공사 초고층아파트 건축계획설계

○1-2. 시설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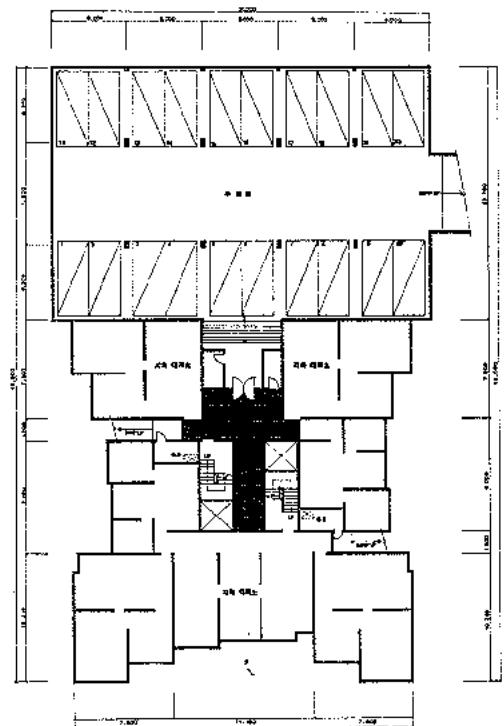
가. 대지위치 : 대한주택공사 각
지구 아파트 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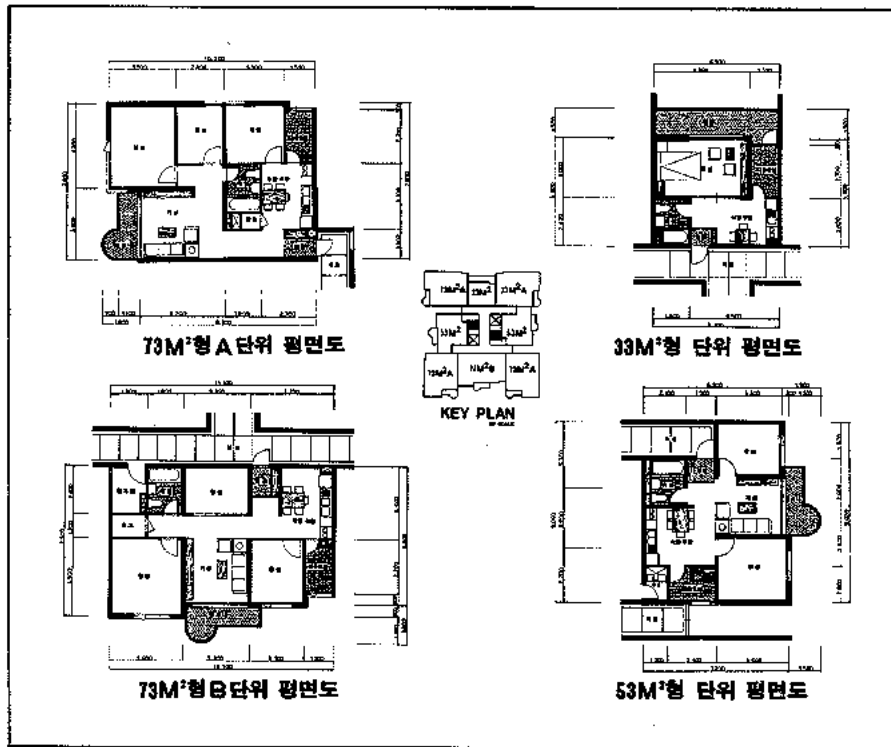
기준층전체
평면도



1층전체평면도



지하층전체평면도



나. 대지면적 :

다. 건축면적 : 639.06㎡ (193.31평)

라. 연 면 적 : 지상 12,449.25㎡ (3,765.9평)

지하 1,247.43㎡ (377.3평)

계 13,696.66㎡ (4,143.2평)

○1-3. 건물계획

가.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내력벽

나. 규 모 : 지하1층 지상20층

다. 기준층고 : 2.6m

라. 총별공유면적비율 : 18.16% (기준층)

마. 주차대수 : 옥내 20대

옥외 32대

계 : 52대

바. 주요설비내역

1) 기계설비 : (가) 중앙공급식난방 (추후개별 GAS BOILER로 교환가능)

2) 전기설비 : (가) 에레베이터 (17인승 2대)

나. 계획의 主眼點

1. 平面計劃

COMPACT한 평면으로 공동면적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평면배열로

입주인의 기호에 부응하고, COMMUNITY ROOM을 설치 인위자가 共同体感을 갖도록 유도하며, 가급적 외기에 면하는 面을 확보 TOWER형이 갖는 모순을 배제하였다.

2. 立面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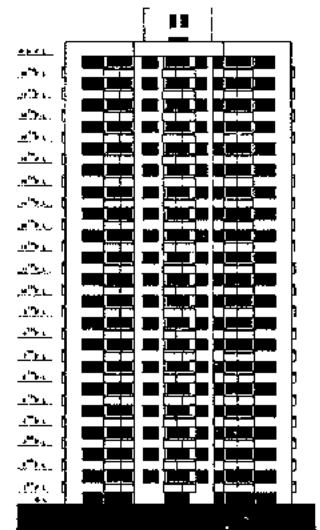
수평과 수직의 길이조화로 균형을 기하여주고 MASS를 단순화하여 입면의 복잡성을 없애고 窓戶의 개폐부위를 축소 풍력 및 고소감을 배제하였다.

3. 構造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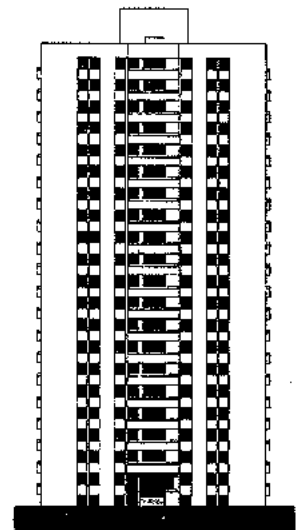
RAHMEN조는 기둥, 보가 실내로 노출되어 室의 유효면적을 감소시키면서도 건물의 층고를 크게하는 불합리함 때문에 내력벽식으로 하고, SHEAR WALL를 면대청으로 배치하고 CORE 부분을 TUBE화하여 횡력에 대비케하고 SPAN을 4.5M 이하로 하여 슬라브 두터를 150MM 이하로 하였다.

4. 配置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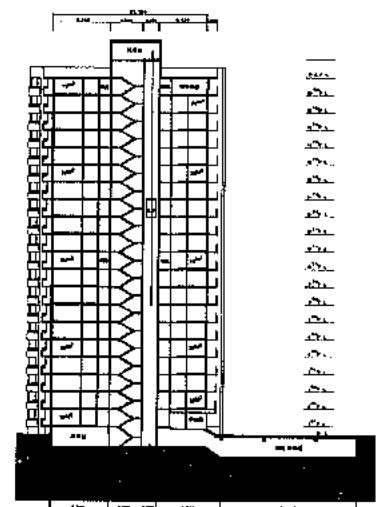
低層과 혼합배치시 이질감을 없애고 格子배치가 가능토록하여 조망감을 부여하고 일층부분을 OPEN 시키지 않아도 SEQUENCE를 갖도록 하였다.



정면도



배면도



일반 단면도

팔방미인이 되어도 모자라는데...

배 동 권
동선건축설계사무소(경남)

그렇게도 좋아보고 맛있는 직업이다 싶어 건축을 전공했던 시대적 배경은 그만 두고라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어지고 이것 아니면 할게 없나 싶을 정도로 그만 두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직업의 선호도와 인기도는 자주 변하는가 보다.

못살던 시대는 배만 부르면 살지 싶었고 먹고 살만하니 먹는 것 보다 잘 입어 뽐내보고 싶고 잘 입고 잘 살다 보니 이제 남보다 멋진 집에서 잘 살아 보고 싶은게 인간의 순진한 욕망일런지? 이쯤 되고 보면 우리 건축사란 직업도 꽤 좋아 보이고 전망의 대상이 될법도 한데 그렇질 못한걸 보면 의식구조의 변화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가 보다.

어느때가 병원 신축 문제로 건축주인 의사와의 대화중에 그 의사는 당신과 직업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섰다하면 병원 건물이요 어지간한 실력자면 개업해서 몇 해 안가 자가 병원을 신축하곤 하는 예를 자주 보아온 터라 나로서는 부럽기 한량없는 직업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바꾸자니 그럴수만 있다면 당장 계약이라도 하고픈 심정이었다. 그들은 하루종일 그것도 매일 웃음을 잃은 괴롭고 고달픈 신병자들만 상대를 하고 우울한 대화만 하고 살아야 하니 이 어찌 좋을수가 있으며 건축사는 돈벌어 출세한 사람들만 상대하니 그만큼 돈벌이도 좋을 것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느냐는 부러운 주장이다.

듣고 보니 건축사가 좋은 직업임엔 틀림이 없는것 같았다. 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우리는 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아야 하는가? 냉정히 가슴에 손을 얹고 자중해 보자. 나도 질세라 반문을 하였다. 당신들은 허약하고 궁지에 빠진 다급한 약자들만 상대하니 그들이 감히 어찌 당신들의 진단에 불복하며 수가를 깎자고만 주장을 하겠는가? 선생님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만 주십시오. 애걸복걸 하는 상대들이기에 늘 큰 소리 지르며 살게 아닌가? 기술외엔 무엇이 문제 이겠는가, 항상 고맙게 생각할 뿐이지라고.

그런데 우리 고객들은 어떤가? 자수성가해서 돈벌어 출세했기에 다들 목에 기부스한 사람 뿐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지 건축사 말을 고분고분 들어 줄려고 해야 말이지. 오히려 칼자루는 건축주가 쥐고 있으니 여기에 우리들의 고달픔이 있다고 본다. 그뿐인가 건축주의 한없는 욕구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가시밭길 같은 건축법을 교묘히 헤쳐 나가도록 인도해야 하니 주무관서 말단 공무원들의 비위를 거슬러서도 안되고 본의 아닌 아양을 부려야 하는 좋은 안면 보다는 고달프기 그지없는 현실이 아닌가?

생활법인 건축법이 이치런 어렵고 까다롭고 애매하지만 앓다면 우리분야에서 무슨 부조리란 용어가 기생할 것인가? 우리들의 업무범위를 보더라도 예술의 경지를 초월해서 팔방미인이 되어도 항상 부족한 직책이 아닌가? 병원을 설계하자면 의사보다 더 박식해야 하고

종교시설을 설계하자면 종교인들보다 더 유식해야 하고 산업용 건물을 설계하자면 그 경영주들보다 더 탁월해야 하니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생활 박사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의 지위를 사회가 갑자기 인정해 주기만 기다리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임무를 위해 사명감을 드높여 성실히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 두건 일감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꾸준한 설득과 이해증진으로 우리의 권위를 찾도록 끝없이 외롭게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깨닫게 된다. 이 팔방미인들이 무슨 부정축재라도 하는남 걸썩하면 부조리 척결이다 하여 에누리없는 도매금으로 죄인무리로 취급 당하기도 하는데 우리 건축사를 만큼 순수하고 순진한 기업인이 없다고 자부하는 나로서는 분통이 터진다. 변호사는 승소하면 변호료 외에도 사례금이란 명목으로 받아 챙겨도 부조리 척결 대상이 아니되는데 주지도 않을 뿐더러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 건축사는 항상 색안경을 끼고 보는가? 안타깝기 한이없다. 어찌하여 세인들은 숲만 볼줄 알았지 나무는 보지 못하는가?

이런 서글픈 현상들이 우리들 중 몇몇 사람의 과거 비행 때문이라 한다면 85년은 그런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하겠다.

自淨能力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로부터 흠모받는 건축사상의 바탕을 85년도에는 기여히 마련하여야 되겠다.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것들

김 무 언

건축설계사무소 하나그룹



요즈음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공해란 말을 자주 들어본다. 우리가 어릴적엔 들어 보지도 못하였던 말이다.

공해란 산업에서 파생되는 부산물로 우선 생각되기 쉬우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 불쾌감을 조성케 하는 경우를 총칭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보람있게 살고자 노력한다. 이에 일생을 바친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생취하기 위하여 고통을 겪기도 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통한 경쟁을 파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접촉과정에서 우리는 온갖 불쾌하였던 경험을 갖게되고 우리는 이를 잊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월부채 구매를 강요 받을 때 불쾌감을 갖는다. 줄을 서서 차를 기다리지 않고 세치기 하는 젊은 사람을 보면 불쾌감을 가진다. 젊은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하면 불쾌감을 가진다. 지나치게 화장을 질게 하고 다니는 여대생을 보면 불쾌감을 가진다.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불쾌감을 가진다. 보도기관이 정확한 사실을 규명치 않고 일방적인 오보를 내는 경우에 불쾌감을 가진다. 운동시합 중 선수나 감독이 관중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항의나 싸움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불쾌감을 가진다. 학업에 전념하여야 할 학생들을 행사에 동원하는 행위를 보면 불쾌감을 가진다. 더러운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불쾌감을 가진다. 일방적으로 회의 약속을 요

구하는 건축주를 대하면 불쾌감을 가진다. 현상설계의 심사를 맡은 심사원끼리 이권 쟁취로 다투는 경우를 보면 불쾌감을 가진다. 젊은 공무원이 나이든 민원인에게 고함 지르는 경우를 보면 불쾌감을 가진다. 조잡하게 시공된 집을 보면 불쾌감을 가진다. 만족할 만한 보상 없이 내 살던 집을 철거당할 때 불쾌감을 가진다. 마구잡이로 파헤쳐 놓고 적당히 복구한 도로를 보면 불쾌감을 가진다. 안내에 관심을 갖지 않는 안내원을 대하면 불쾌감을 가진다. 건물 준공시에 건축사로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불쾌감을 가진다. 건물목이 없는 큰 길을 만나면 불쾌감을 가진다. 가로등이 많지 않은 거리를 걸노라면 불쾌감을 가진다. 청소를 하지 않은 골목길을 지나칠 때 불쾌감을 가진다. 장시간 정전된 신호등을 보게 되면 불쾌감을 가진다. 출퇴근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보면 불쾌감을 가진다. 소독이 전파 되어 있지 아니하여 벌레가 우글거리는 가로수를 보면 불쾌감을 가진다. 연구를 게으르게 한 학자의 연구 발표를 들을 때 불쾌감을 가진다. 응접실에서 무례하게 장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불쾌감을 가진다. 터무니 없이 비싼 값을 치루고 가짜 물건을 샀을 때 불쾌감을 가진다. 교통순경이 운전자나 통행인에게 반말을 지껄리는 경우를 보면 불쾌감을 가진다. 대낮에 도둑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방법이 없을 때 불쾌감을 가진다. 페이지가 누락된

책을 읽을 때 불쾌감을 가진다. 화장실에 자물쇠가 걸려있는 것을 볼 때 불쾌감을 가진다. 깜빡거리는 형광등을 보면 불쾌감을 가진다. 직함을 많이 기록한 명함을 보면 불쾌감을 가진다. 설때가 마땅치 않은 공원에 가면 불쾌감을 가진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비대하여 지는 것을 보면 불쾌감을 가진다. 교직자나 성직자가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을 보면 불쾌감을 가진다. 껌을 씹으며 영화관에서 나오는 스님을 대하면 불쾌감을 가진다. 매표소에서 버스표 교환을 거부하는 여사무원을 대하면 불쾌감을 가진다. 전화로 통화하고자 할 때 꼬치 꼬치 캐어 묻는 여사무원을 대하면 불쾌감을 가진다. 통명스러운 간호원을 대하면 불쾌감을 가진다. 터무니 없이 많은 봉사료를 요구하는 술집 아가씨를 대하면 불쾌감을 가진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통이 두절되고 마비되는 경우를 당하면 불쾌감을 가진다. 대의명분이 없는 데모나 행사를 보면 불쾌감을 가진다.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것을 보면 불쾌감을 가진다. 출입을 금지당한 관청의 출입구를 보면 불쾌감을 가진다. 텔레비전을 통한 정부의 과장된 선전을 대하면 불쾌감을 가진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러한 불쾌하였던 감정을 통하여 사회를 평가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감정을 갖게 됨으로써 정신적인 공해를 입고 있다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공해들로 웅어리진 가슴들을 속시원하게 소리질러 터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산에서 소리치면 메아리가 되어 다시 온다. 우리는 이러한 산들을 갖지 못한 것일까? 이러한 불쾌한 일들이 아픔으로 남아 있을 때 우리는 심한 상처를 입게 된다. 이러한 불쾌한 감정이나 상처는 나만이 갖는 것일까?

건축행정의 문제점

이 상 현
대우건축연구소



「區와 道路」

얼마전 폭 20m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지적도를 떼어봤더니 도로 한복판이 “구”로 되어있다. 알아보니 전에 하천으로 되어 있던 곳인데 복개해서 지금은 도로가 된 것이다. 그래서 市 담당자에게 이것이 “도로”인지 “구”인지 물었더니 “구”라고 한다. 미심쩍어 건설부장관께 정중하게 질의서를 올렸더니 장관께서는 건축법 몇조의 도로의 정의를 알려주시고 자세히 알려면 관할 시장께 물으라고 친절히 회신을 보내주셨다. 법조문대로의 해석이라면 도로는 아닌것이다. 그러면 청계천로는 아직도 도로가 아니고 “구”겠구나 늦게나마 깨우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주차대수 1대 부족

이번 봄에 착공하기로 하고 작년말에 허가를 내놓은 집인데 야속하게도 이제 와서 좀 고치고 싶어졌다. “예라! 설계 두번 해도 할수 없다. 먼져번것 보다는 낫지!”하고 용단을 내려 설계변경을 냈더니 “청천벽력” 주차대수 1대 부족. “연면적은 같은데” 했더니 “연말에 공문 안보셨군요! 골치아프게 될 설계변경을 하세요” 구청담당자의 충고다. 진퇴양난.

종합사무실

금년부터는 크거나 높거나 한 집은 세명이상의 건축사가 보여있어야 설계를 할 수 있단다. 이름하여 종합사무실.

故 이승만박사의 몽치면 살고 흘

어지면 죽는다는 사상이 뒷받침해주는듯 하여 일전 대견스럽다. 앞으로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20층이나 20,000㎡이면 6인, 30층 이상이나 30,000㎡이면 9인이 되는 것은 아닐지. 아주 다 합쳐서 국토설계를 하면 어떨까?

척관법

APT. 설계 하나를 해서 시청에 보냈더니 되돌아왔다. 이유는 도면의 치수가 30cm 단위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벌써 오래 전부터 정부에서는 미터법을 주도해 오고 있는데 이전 어째 옛날 척관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사뭇 회고적이다. 다 생각 깊으신 분들의 배려가 아니었겠나 마는 아직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어 답답할 뿐이다.

앞에서 형설수설한 것은 일을 하다보면 누구나 겪게되는 우리네 행정과 관계되는 일화들로 이미 여러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던 그런 얘기다.

어떤 때는 망신도 당하고 낭패도 한다. 혹은 분노도 하고 한탄도 해보다 어쩔 수 없으면 수준의 문제로 낙착하기가 일쑤인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官 설계는 일이 끝나야 돈을 준다. 한번은 높은 나으리를 알현할 기회가 있길래 돈 좀 미리 받아 볼까 해서 이 문제를 슬쩍 꺼냈더니 “얘기는 알겠는데 대한민국 행정은 제도행정이라 어렵다”는 행정가다운 명답이었다. “제도행정” 이말은 정직

한 행정이라는 의미보다는 경직된 행정이라는 뜻이리라. 버젓이 하천이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적도에 하천으로 되어있다고 어디까지나 하천이라 함은 우리나라 지각행정의 게으름은 물론이려니와 뒤늦게나마 이를 판정해줄 행정부서에서 조차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의 해답자는 누구이며 책임부서는 어디겠는가 알 수 없어진다. 시장한테 물어도 그 질문은 담당과장을 거쳐 다시 담당자에게 내려오게 되고 그 담당자는 똑같은 답을 시장의 이름으로 회신한다는 것이다. 법조문의 해석을 구하고 있는데 그 항목을 되읽어 주고만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만한 문제를 “담당과 선에서 책임을 지지못해 장관이나 시장이 시달리어서는 안될줄 안다. 이것이 바로 제도행정이라는 것일까. 눈에 띄는 일을 해서 공연히 굶어 부스럼만 들 필요없다는 공직자들의 사고방식을 나무라기 앞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네 행정풍토를 탓해야 옳을 것인지, 범법자 다루듯이 하는 감사를 탓해야 옳을지, 아니면 공직자와 자질이니 소신을 탓해야 옳을지……. 어떠한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부서와 접촉에서 자주 느끼는 것은 어떤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기보다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안된다, 못한다, 금지 일변도 보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다 바람직한 쪽으로 유도하려는 협조와 노력을 아쉬워 하게 된다.

빈번한 법 개정도 그렇다. 취지는 더 나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나 그 이전에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게 되는 결과이므로 과거의 “악”에게는 특혜를 보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될 줄 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야단났다고 떠든다고 즉각 말

초적 반응을 보일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 법의 손질은 그 실태를 파악하는 데서 그치지만 말고 그 근본을 찾고 새로운 시행에 따를 파급효과도 아울러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하는 여유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 개정된 건축사법 (종합사무실) 만 하더라도 그 취지는 이해하고 싶지만 건축작업의 행태를 알고 있다면 이런 제도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지명현상설계를 붙여 많은 종류의 안을 수

집하여 이중 장점만을 골라 종합해 보겠다는 사고방식에 똑같은 맥을 두고 있는 것이다.

감리단제도도 무사안일주의의 공직자와 부도덕한 건축사가 결탁하여 창출한 산물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 지속된다면 저질공사가 조장되고 불로소득 풍조는 만연되어 건축가들의 창작의욕을 저하시킬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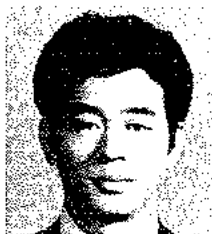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책임이 행정에만 있을 수는 없다. 그것을 들추다보면 우리 모두에게로 책임은 나뉘어져 되 돌아온다. 대화를 통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데 오늘 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建築物과 藝術品

吳基守

오기수건축연구소



최근에 와서 대형 건축물들이 여기 저기 우후죽순적으로 서로 경쟁이나 하듯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건물 주변을 살펴보면 그 나름대로 잘 정리된 미술품들이 適所에 설치되어 있어 호뜻함과 풍부함을 느끼게 된다.

도시공간의 質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法적인 규제에서 비롯된 영향이지만 졸속된 결과와 無用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자가 추구해야 할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된다.

몇몇 인용을 통하여 건축이 무엇이며 설계자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새겨 본다면 Le Corbusier는 “建築은 살기 위한 機械이다” 즉 쾌적하고 건강한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다.

John Ruskin은 “건축은 만인이 배워야 할 藝術이다. 만인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Augste Perret는 “건축은 空間을

組織하는 藝術이다.”

Nikolaus Pevsner는 “건축이라고 하는 말은 美的感動을 목표로 設計된 건물에만 의여 진다.” 라고 건물 (Building) 과 건축 (Architecture) 을 구별하고 건축이란 미적표현을 가진 공간이라고 규정한다.

이상의 인용은 건축이 다른 예술과 구별되고 있는 그 空間的 性質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건축은 인간을 포함한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며 회화는 2차원, 조각은 3차원에 의해서만 존재하나 인간과의 접촉은 그 작품의 表面, 즉 外部에 국한된다.

건축은 그 大小를 막론하고 일정 공간을 점유하고 인간생활에 있어서 도구로서의 기능을 만족시켜 줄 뿐 아니라 외부로 나타나는 形狀, 色彩, 質感, 材料 등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에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는 건축도 문학, 회화, 조각, 음악, 연

극과 더불어 예술의 범주에 속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 준다.

근래 모든 건축관계법규가 빈번히 바뀌어 가고 있다. 그 가운데 마음에 걸리는 한 부분이 있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마치 建築設計者는 예술 또는 미술과 무관하게 취급받는 입장으로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서이다.

건축물부설 예술품설치계획 심의 지침에 관한 것으로 서울시 건축조제17조 제5항과 시장지시 제133호 (84. 7. 17)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기본방침으로 美觀地區 안에서 건축하는 11층 이상의 건축물과 건축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비용의 1/100 이상 금액에 상당하는 예술품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때 예술품 설치 이전에 예술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한국미술협회의 예술품 價額評價 후 심의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여기에 설치되는 예술품 가액 평가는 한국미술협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건축조제의 목적은 도시공간, 도시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미려는 노력의 한 방편으로 성안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法의 조항이 강제 규정으로 대두되어야 함은 참으로 우리의 현실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더욱이 미술품의 價額決定에는 설계자 또는 다른 건축가가 참여할 기회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검토되어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1. 藝術品の 解析 및 定義
2. 藝術品の 價額決定者の 資格 및 身分 指定의 타당성
3. 藝術品の 設置場所의 決定 등에 관한 明確한 指針.

예술품의 가액결정이 객관성을 갖추기 위하여 건축설계자 및 건축가를 포함한 예술인들로 구성된 기구에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우려되며 작품의 선정은 설계자의 의도(Concept, 造形の意志)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고 그 설치장소는 건물의 모든 부분이 결정된 후에 부

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과연 우리는 건축설계자의 입장에서 法이 규제할 때까지 자발적으로 미관 및 미술품을 고려한 설계를 해오지 않았던가? 또한 건축주들도 아름다운 건물,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인식하지 않았던가? 만약 인식하였다면 우리들 자신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자문자답의 기회를 가져본다.

건축을 창작해 나가는 그 작업과정에서 모든 분야(환경)와 충분한 대화를 이루어 가면서 설계에 임하게 된다.

때로는 예술가(미술가)의 입장에서 造形作業을 하며 한편으로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기술자의 입장에서 空間을 構成하게 된다.

환언하면 건축물과 주위환경과의 조화, 그 건축물(조형물)의 意味(Concept)와 설계자의 意志는 본인보다 누가 더 확실히 파악하고 있

을 것이며 예술품 및 환경조형물의 필요여부와 필요하다면 그 조형물의 테마(Theme) 그리고 이들의 설치장소도 설계자 이외에 누가 더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까?

이들의 모든 결정 및 객관성을 가지기 위하여 또는 質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조직이나 기구가 담당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들이 설치될 장소를 결정함에 있어 설계자가 참여하여야 함은 물론 그 구성원의 일부는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느 미술품이나 조형물은 설치되는 위치와 방법에 따라 그 效用 價値가 가감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예술품의 가액이나 그 가치를 정해놓고 그 값에 맞추어 작품을 선정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예술품의 가치는 실질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효용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小考

김 기 철
동명건축



건축허가나 감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30m² 이내의 증개축 또는 대수선을 신고, 그외는 모든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법 5 조), 200m² 이상 건축물과 3개층 이상의 건축물은 공사감리자를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하나 공사감리자를 정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건설부령이 지정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는 단독주

택 및 조립생활시설(2층 이하 1,000m²미만)이다(사규 18조)

건축공사는 건축주의 발주로 설계자 및 감리자와 시공자가 협동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각각의 임무가 부여되어 각자 하는 일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다. 또한 서로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견제하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평형을 이룰 때 안정된 공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때때로 삼각

관계의 균형이 깨어져 건축주가 시공자를 겸하는 경우 건축주 즉 시공자와 건축주가 선정한 설계자(감리자)는 두 사람의 유대관계로 해서 한쪽이 일방적인 독선으로 치달을 때 그 공사현장은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공사는 건설업법상 규정이 있어 작업의 책임 한계가 분명해질 수 있지만 위경우에서는 모든 책임의 소재가 면허가 있는 쪽만 문제삼기 때문에 공사감리자로서는 모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건축허가나 공사감리는 규모(면적)에 따른 규정과 공사안전을 고려한 층수에 따라 규정을 하고 있으나, 건설업법의 경우 주거용 661m²초과 건물공사와 기타 495m²초

과의 신, 증, 개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건설업면허(건설법 4조)를 가져야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규모에 의한 규정만 있고 층수등에 대한 규정이 되어있지 않다.

발표되는 통계자료 등을 보면 건축법 위반건수의 대부분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서 차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공사감리자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반사례를 대다수가 구조적 안정성보다는 대지경계에 대한 사항과 지하실 등의 용도변경, 계단 등의 구조변경, 형태나 층수의 변경으로 대지와 잘 맞지않는 지적도의 기준과 시공자가 건축주인 소규모공사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도면의 몰이해에 따른 공사진행상의 결과인 위반사례에 대하여 공사감리자로서는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진행시키지 않는한, 근본적인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단독주택 등의 소규모 현장에서 2, 3일이면 1개층 정도의 조적 공사는 마무리 되고, 이미 이루어진 변형된 사항은, 공사감리자의 시정지시가 있다해도 건축주에게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재정적인 손실을 생각하는 건축주의 이해부족은 건축현장을 일방적으로 진행시켜 결국 제규정에 위반되는 사례만 남기게 된다. 더욱이 실제공사의 책임자는 목수 등이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 재래 척판법과 미터법의 적용상 차이에서 오는 층수의 변형은 건물규모에 영향을 주게되고 측량기기의 오차를 허용한 계로 하는 행정측면의 기준과는 너

무나 거리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 도의적인 책임 이외에 아무런 책임 의식이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목수 등이 자신이 만든 작업의 결과에 책임질 수 없을 때 모든 손실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책임에 돌아갈 뿐이다.

창문의 규격과 단열재의 두께까지 규정되어 있는 건축관계규정 중 단독주택 등은 설계에서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공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은 기이하게만 생각될 뿐이다. 과거 자기 손으로 직접 집을 지어 살던 시절의 건축주의 불편함을 십분 이해해서 편의를 준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일조권이라든지, 아무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없던 때의 상황이 아닌가 한다. 시공자는 무자격자로서 허가받은 설계도에 의해 집을 짓고, 감독만 잘 하면 모든 일은 순순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감독은 자격이 있어야 하고 모든 책임은 그 감독자가 져야한다는 논리는 그럴듯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설계도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 설계도는 단지 청사진일 뿐이고,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감리자는 가끔 현장에 들리는 감시자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므로 각자의 업무에 능률적이지 못한 구조적 모순을 가져와 엉뚱한 방향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비리의 소지를 만든 결과가 되었고 그 결과는 소규모 공사에서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되는 규제가 나타나고 말았다. 건축주, 시공

자와 설계자(감리자)로 이루어져야 할 건축공사가 건축주, 설계자와 감리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위반사항으로 철거되는 예는 건축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 되며 이를 최소한으로 억제시킬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통계상 건축법의 위반수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연구점토 되어야겠지만 한 방법으로 공사업 면허는 아니라 해도 각종 자격 면허(기사, 기능사 등)를 이용하는 예도 생각할 수 있겠으며 그 적용범위도 타 규정과 맞추어 신고사항 이외에 건축허가사항만을 반드시 유자격 시공자가 시공하게끔 되어야 한다. 설계도서에 의해 의사가 전달되는 현장에서 설계도서의 판독은 의사소통의 필수이며 시공자의 자질이 설계도서의 완벽한 해독정도는 되어야 그 결과에 대하여 각자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해진다 하겠다. 또한 준공 후에 발생하는 각종 사례들에 대하여도 그 책임소재가 명확히 될 수 있는 요소를 줄 수 있다.

보다 근원적인 것은 모든 사람 각자가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스스로 제규정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적 여건에서 감독기능의 총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명쾌한 처리가 뒤따를 때, 물론 제도적 뒷받침 밑에서, 소규모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건축법 위반사례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다.

내시간 소중하면 남의시간 존중하자.

故 김정수 선생님 추모



약력

- 1919. 10. 30. 평남 대동군 출생
- 1941. 경성공업고등학교(현, 서울공대) 졸업.
- 1957. 미국 미네소타대학원 수료.
- 1975. 연세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학위 취득
- 1941-1948. 중앙청 건축계장, 과장, 국장 역임.
- 1948-1961. 삼정토건사 사장
설계사무소 종합건축 연구소 소장
대한건축학회 이사, 부회장, 회장 역임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역임.
- 1961-1984.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학과장
대학원 주임교수, 산업대학원장
- 1985. 2. 18. 서울에서 별세. 향년 66세

추 모 사

김정수 선생님!

끝닿을 데 없는 사랑을 전해 주시던 선생님이 떠나시고 아니게된 이땅, 이 누리에 무심히 지나가는 세월은 또 한번의 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느 봄이었으면 무엇이든, 어떻게든 새롭음을 더해보시려 봄의 그 약동을 자신의 온 몸에서 뿌려내실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렇듯 희망에 벅차있을 이 봄을 선생님을 여의고 오열을 금치못하는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안타까운 마음으로 맞고 있습니다. 어찌 떠나셔야만 했는지 헤아릴 수 없는 속에 인생은 짧다는 귀절이 싫게 새삼스러워질 뿐입니다. 영위하시던 온 생을 통해 건축의 학문으로서의 발전과 예술로서의 창작에 몰두하시던 선생님! 자신만은 인생유한의 철칙마저 부정하신듯, 매사에 항상 의욕이요, 젊은 불길이시더니 어찌 이렇듯 야속하게도 명을 달리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건축활동에서 그토록 탁월하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건축이라는 태두리 안에서의 세태의 흐름에 항상 몇 걸음을 앞서 보시며 우리의 갈바, 나아갈바를 경이롭기까지 하도록 날카롭게 짚어 보이시며 그 자신 실천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현대건축의 모든 면의 모습을 손수 지어내신 작품들에서 보여주시어, 깊은 잠을 못깨고 있던 한국건축 활동을 주도하셨습니다. 더불어 제자들에게 높은 식전을 심어주신 스승으로서 건축예술에 학문적 뿌리를 더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저희들 눈길 닿는 이곳 저곳에 술한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더 없는 귀감일 것입니다. 선생님의 체온이 손끝에 느껴지지 못하고 귀기울임에도 그 음성 와닿지 않지만 모든 이의 가슴에는 더 크게 느껴지고 달아 울립니다. 오히려 영원하리라 믿어지며 저희 가슴 속에서는 결코 외면하시며 이렇듯 떠나시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걸어나가는 힘일 것입니다.

선생님 영전에 얹드린 저희 후학들 정히 가신 다함에 애통함과, 선생님 존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할 뿐이나 굳이 참아보며 선생님의 뜻에 충실한 건축인이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 다짐을 지켜가며 지금의 슬픔을 적이나마 덜어보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멀리 떠나시는 선생님께 향한 애절하고 그리운 마음 짧은 추모사에 모아 담아 하소함이오니 선생님 부디 평안히 잠드시길 비읍니다.

1985. 3

이사 김 봉 훈



인테리어디자인

욕실

趙 聖 烈
큐빅디자인연구소대표

●욕실의 공간성격

현대주택에서의 욕실의 인식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욕실은 일반적으로 장시간 머물지 않는 차고 딱딱한 곳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기존관념을 깨고 욕실은 이제 들어가고 싶은 쾌적한 실내, 청쾌하면서도 안락한 곳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욕실이 가지는 기능을 다하면서도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신문도 볼 수 있는 문화생활 공간의 일부로 변한 것이다.

욕실의 인식이 달라진 것은 현대주택에서 변소를 격리시키지 않고 실내에 포함시켜도 좋을 만큼 위생설비가 발달된 이후부터의 일이다. 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요즈음의 신축주택에서는 정화조와 급탕설비를 하게되므로 냄새, 청결유지문제, 온수의 해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욕실은 입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할 뿐아니라 피로회복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현대주택에서 욕실은 입욕과 함께 세면의 기능 배설의 기능을 통합시키는 단일공간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서구적인 양식을 따른 것으로 입욕, 세면, 배설의 기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설비문제, 내부 마감제, 이용상의 편리한점, 그리고 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경제적이다. 욕실안에 세면기와 변기를 두어 이들의 기능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으나 가족의 수가 많아 사용빈도가 높은 주택의 경우는 불편하며, 독립성이 결여되는 단점이 있다. 욕실의 일상적 기능 이외에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욕실설비와 욕실의 분위기에서 발휘할 수 있게된다.

욕실이 물이 많은 곳, 냄새가 나

는 곳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없애고 다른 실내공간과 분위기에 있어서 큰 구분을 갖지않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감성적인 실내공간이 되어야한다.

●욕실의 평면구성

욕실의 평면구성에 있어서는 공간효율을 높이는 것과 욕실설비의 합리적인 배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욕실은 비교적 제한된 작은 공간에서 편리한 욕실, 넓은 실내로 쓸 수 있게 해야하며 급·배수, 위생설비로 해서 복잡한 배관처리가 단순하게 배열될 수 있는 평면배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다.

욕실에는 평면적으로 욕조, 세면대, 양변기, 비데, 욕실선반, 쓰레기통등의 집기류가 배치되는 것이지만 욕실의 출입구, 욕실의 창, 욕

실거울의 배치가 전체 욕실구성에 큰 작용을 한다. 일별배관을 위해서는 욕실기기들도 나란히 배치되며 면적효율을 높이기 위해 코너로 마주보는 벽에 거울벽을 형성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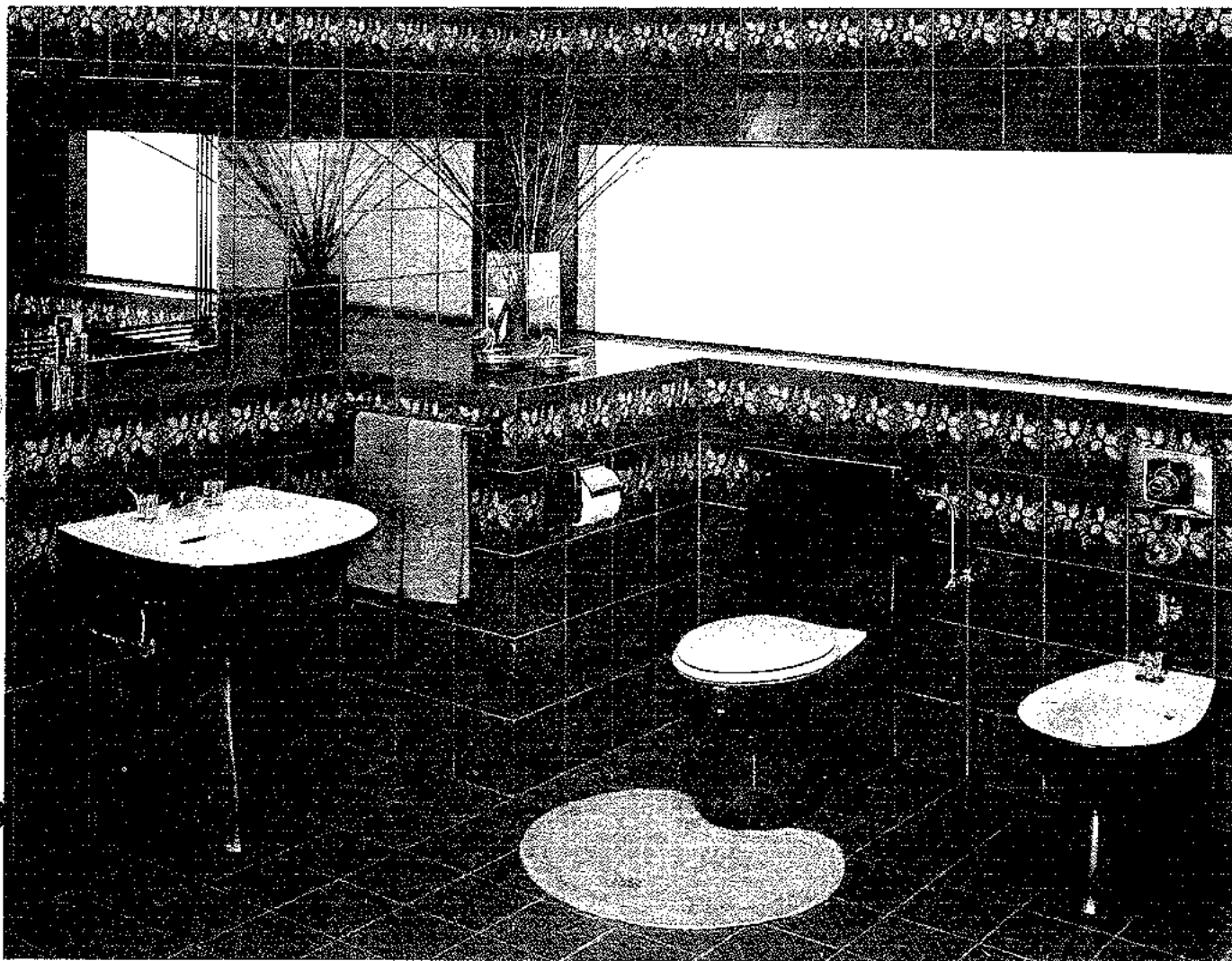
실내공간의 개성미는 하찮게 생각하기 쉬운 선에서도 두드러지게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선이 주축이 된 실내에서는 선의 변화, 면으로 보이는 선, 선의 입체, 선의 반복, 선과 면의 대비, 각을 이루는 선, 선의 생략등 단순하고 간단한 구성적 요소가 개성적인 실내를 형성하는 요체가 된다.

아주 단순한 형태라도 그것이 한 단위가 되어 반복 사용되었을 경우 우리는 그 형태를 웅시하게 되고 흥미하는 쾌감을 갖게된다. 모듈이 된 형태는 규칙적인 것이든지 불규칙적이든지 한 실내공간에서 반복되고 있을때 전체실내 이미지의 기본

형으로 부각되게 된다. 특히 규칙적인 느낌의 욕실공간에서 기본 모듈의 반복, 변형의 적용은 다이나믹하면서도 집약된 공간구성에 부합되는 것이다. 대칭배치가 적용된 실내공간은 가장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실내디자인에 적용되는 비대칭 균형은 디자이너의 시각법칙에 의존되는 것이지만, 대칭배치는 계산과 척도에 의해서도 균형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주택의 면적배정에서 욕실은 대체로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좁은 공간이 넓게 느껴지도록 하기위해 거울벽을 배치하면 시각적인 대칭관계로해서 공간이 배로 확대되어 보이게 된다.

욕실내의 색조를 밝게할 것과 욕실의 채광면적을 확대하여 실내를 밝게 유지하는 것, 벽쪽으로 향한 조명등이 욕실을 넓게 보이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사공간의 형성은



욕실에서 흔히 벽, 바닥, 천정의 색 또는 변기와 욕조의 색을 깨끗한 백색으로 취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청결감을 느낄 수 있으나 단조로움을 생각하여 대비되는 색조를 혼용하는 것이 좋다. 좁은 공간의 욕실은 명도가 높은 색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며 바닥과 벽을 구분하여 배색한다.

● 실내연출

벽면, 또는 벽면끼리의 색대비 연출은 실내에 변화감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욕실 인테리어의 비중을 화장대와 그 주변에 많이 뒀으므로 전체 욕실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게 된다. 세면대 주변의 장식 포인트는 대체로 세가지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세면대 자체의 디자인이다. 요즘의 독립된 세면대의 경우 배관

시설이 감추어지는 도기 세트를 쓰고 있으며 천판을 넓게 책정함으로써 안정감을 준다. 둘째로는 거울면의 연출을 들 수 있다. 넓고 깨끗한 거울면의 형성은 좁은 실내를 한결 시원한 느낌으로 가져간다. 셋째로 조명을 들 수 있다. 주택배치에서 욕실은 북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북향의 욕실은 햇빛이 잘 안드는 곳이므로 낮에도 인공조명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욕실공간의 조명은 넓고 밝게 느껴지도록 계획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욕실에서의 기능이 휴식처 같은 안락한 분위기로서의 제 구실을 할 수 있게 된다. 욕실의 조명은 일반적으로 백열등과 형광등을 혼용한다. 욕실의 전체조명은 필수적인 것으로 방수처리 클리브가 씌워진 백열등을 설치하여 온화한 느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주 좁은 욕실에서는 형광등을 벽쪽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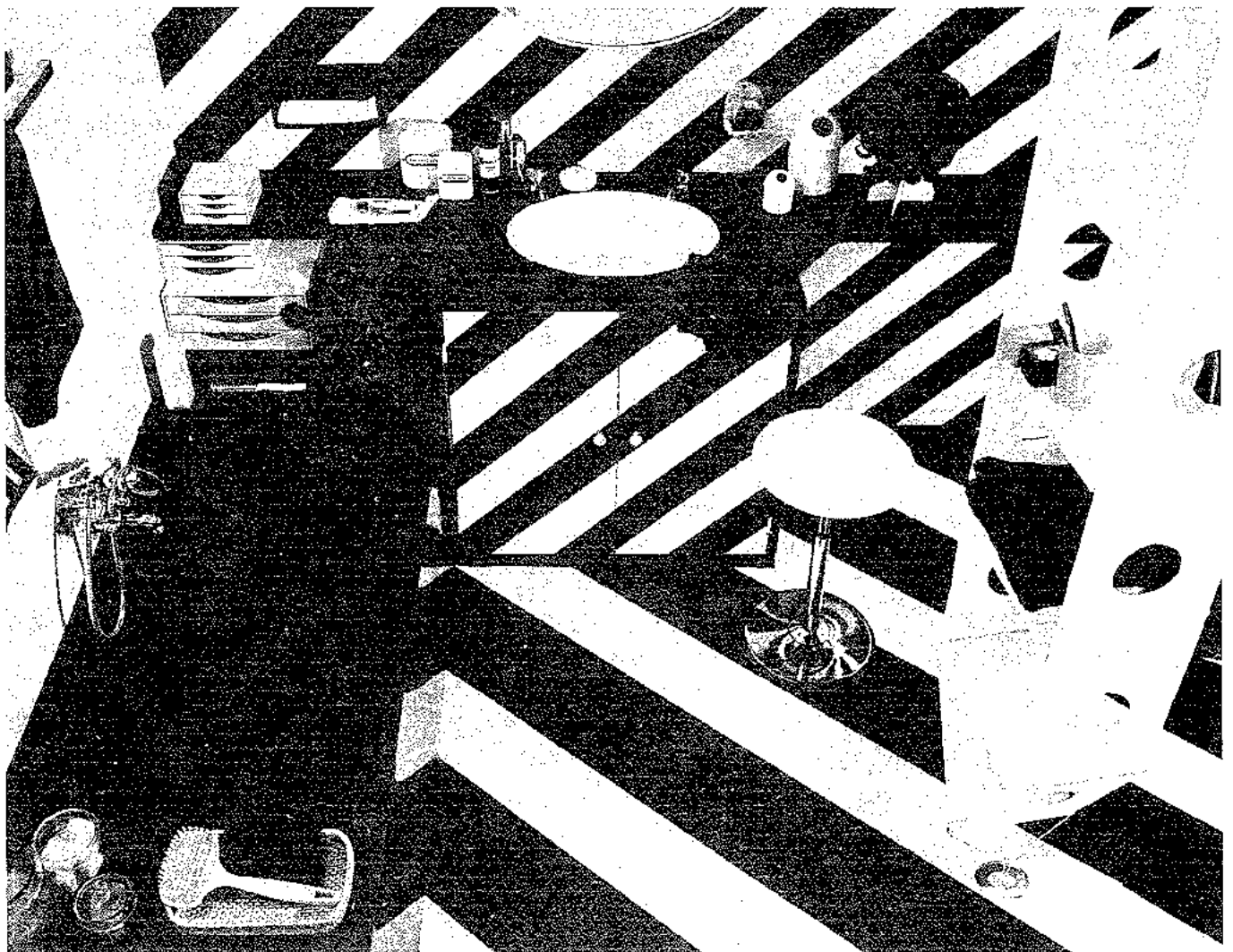
로 배치하여 넓고 밝게 느껴지는 실내조명이 될 수 있게 한다.

욕실의 비품, 소모품등 욕실용품들이 평범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도 그것들의 디자인과 색상선택에 있어 욕실 전체의 분위기에 맞는것을 미치하였을 때 장식성은 한결 더해진다.

좋아하는 색조로 통일성을 갖는 욕실용품, 디자인이 간결하고 아름다운 비품들은 쓰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쾌감을 줄 수 있으며 그것이 욕실의 쾌적성을 높여주는 환경조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욕실의 장식성은 특정한것 하나만의 동떨어진 계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주택의 다른 부분과 같은 차원의 공간으로 다루어져야하며 개성적인 단위공간이 아닌 이어진 공간으로 인식되어지는 장식이 효과적인 것이다.



外部環境設計

— 물(WATER) —

崔 杞 秀
서울市立大學造景學科教授

물(Water)은 그 자체 만으로 인간의 생명력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물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인간에게 장애적인 요소가 되는 것인가 하면 아름다운 미와 자연적인 질을 인간환경에게 제공하는다. 물의 매력은 자연적인 상태에 있거나 인공적인 환경에 놓여졌을 때나 영구적이다. 기록된 역사를 보더라도, 계획된 환경에서 물은 불가결한 요소이거나 가끔 중심적인 요소로서 물을 이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필연적인 요소로서 물은 기능적이며 미적이거나, 실용적인 방법의 변화에 있어 많은 다른 문명에 의하여 사용되어 왔으며, 그것의 형태나 특징은 세계에 대한 관계와 인식에 의해 반응되어왔다. 계획된 외부공간에서 물의 형태와 이용은 환경적인 고려에 의해 영향되어졌을 뿐 만 아니라 그 시대의 지배적인 문명에 의해 발생된 사회학적이고 이론적인 이상에 의하여 형성되어졌다.

1. 계획요소로서의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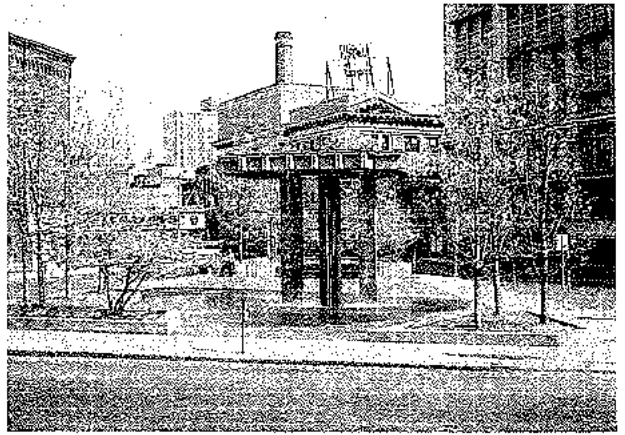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물리·화학적인 성질과 자연상태에서 인간에게 주는 효과에 관해 살펴봄으로 그 중 어느 성질과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밝혀해 낼 수 있을 것 같다.

물이란 화학적으로는 단순히 산소 1분자와 수소 2분자로 결합되어 있는 액체이다. 이 액체는 항상 어

떤 용기에 담겨진 정지된 상태와 어떤 용기를 따라 운동하는 상태를 갖게 됨으로 그 효과가 다양하다. 정지상태로서의 물리적 성질은 접하고 있는 면에 항상 수직하게 압력을 작용하며, 또 그 액체의 일부에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은 변함없이 같은 크기로 물의 각 부분에 전달되며, 액체표면은 응집력때문에 표면이 수축하려는 힘이 생기며, 또 액체의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큰 경우에는 액체는 표면장력 현상에 의해 유리면을 따라 올라간다. 운동상태에서는 유속이 빨라지면 압력이 작아지고, 유속이 느려지면 압력이 커지거나, 같은 량의 물은 유수 단면적에 반비례하여 유속이 달라진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물이 어떤 용기에 의해 정지되어진 것 처럼 보이는 장소 즉 연못이나 호수에서 인간이 감지 될 수 있는 그 주위 환경이 반영되어지는 효과는 실제적인 환경을 보는 것과는 다른 효과를 연출하는 것이다. 더욱이나 수면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수면이 바닥 재료의 변화에 따라 반영되는 것은 시각적으로 다른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상태의 물은 인간에게 어떤 정적이고 관조할 수 있는 느낌까지도 자아내게 하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의 물장난의 요소 혹은 수영이라는 위락적인 요소로 물을 인간의 피부로 감촉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다.

어떠한 자연적인 수로를 따라 흐르고 떨어지는 물리적인 성질을 이



(그림-2). 미국 「세인트 폴(Saint Paul)」시의 교통도에 낙수를 이용한 설계

용하여 그 흐름의 용기와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조각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물이 흐르는 가지 가지 상태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리와 흐르면서 연출하는 모양마다의 효과도 하나의 설계요소가 될 수 있다.

2. 외부공간에서 물 이용의 역사

최초에 물을 인간의 예지발달과 더불어 이용한 것은 일상적인 식용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관개시설로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실제적인 정원에 일정한 수로를 따라 물을 끌어들이 필요했고, 끌어들이 물을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이용하기 위해 연못이나 저수지가 생겼으며, 그곳에 식용을 위해 물고기를 기르든가 연꽃등의 식물을 심어 실제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강우량의 적은 스페인의 「코로도바(Cordoba)」의 오렌지정원(Court of Orange)에서는 식재한 오렌지 나무사이를 수로로 서로 연결되도록 만든 관개시설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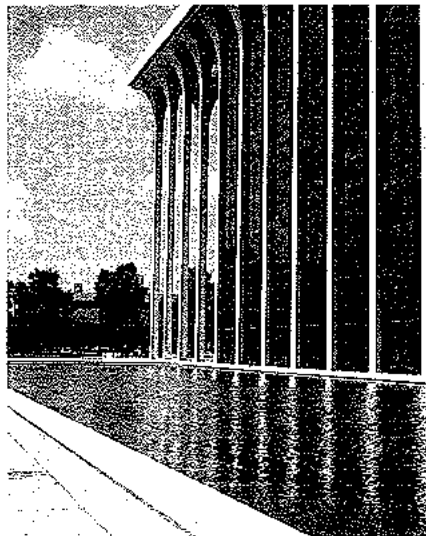
이러한 실용적인 이용과 더불어 스페인의 「알함브라(Alhambra)」에서 볼 수 있는것과 같이 기후가 건조하고 더운 지역에서는 수로를 이용하여 물을 내부공간까지 끌어들이 공기를 식히는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공간의 연속성을 주며, 그 공간내에 주요 축점이 될 수 있는 장식요소로서도 이용하였다.

화약이 발명되기 전에는 물을 성곽 주위에 간우어 「해자(moat)」를

만들어 외부로부터 침입을 억제하는 방어의 목적으로 불란서에서는 이용하기도 하였다.

물을 용기에 모아두어 건축물을 반영시켜 시각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느낌과 욕상에 잠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인도의 「타지마할(Taj Mahal)」과 같은 요원과 우리나라 경복궁의 경회루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림-1)



미국 「노스 웨스턴보원」건축물의 반영을 이용한 물

가장 장식적으로 물을 잘 이용한 것은 「르네상스」시대의 이태리와 그의 영향을 받은 불란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빌라(villa)」를 건축했기 때문에 지형의 조건을 이용하여 물을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 그 물의 낙차에 의한 수압을 이용하여 각가지 분수의 장식과 분출 효과, 가지 각색 모양의 용기에 따른 흐름은 이태리의 「빌라 디에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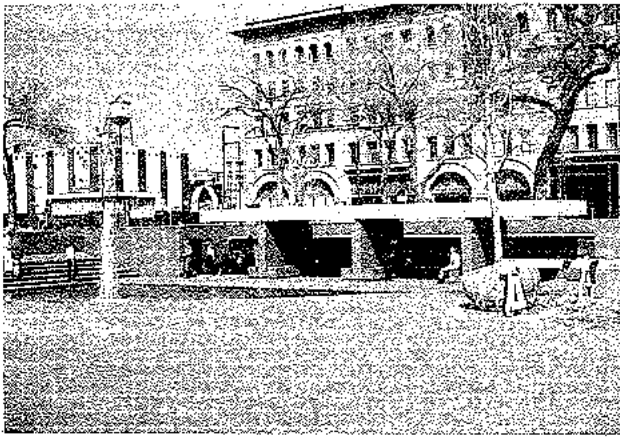
테(Villa d'Este)」와 같은 곳에서 정수를 볼 수 있으며, 또 교묘한 땅가름에 의한 축의 이용에 의해 교차되는 곳이나 주요 축점이 되는 곳에 화려한 장식적인 분수를 위치하게 한 것은 불란서의 「베르사이유」궁전에서 볼 수 있다.

방문자에게 재치·운치와 유모아를 줄 수 있는 물의 이용도 볼 수 있는데, 시간적인 간격을 두어 물이 분무장치를 통해 뿜어 나오므로 지나가는 사람을 놀라게하여 준다든가 물의 흐름으로 음악소리를 내게 하는 장치도 하였다. 또 경주의 포석정과 같이 식탁에 물을 가두어 상대방끼리 잔을 물에 띄어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장치한 것을 이태리의 「빌라 란테(Villa Lante)」에서 볼 수 있고, 해학적인 조각물을 통한 분무장치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지의 배수시설의 목적으로 외부공간에 물을 모아두어 처리함으로써 인해 자연적으로 그 곳에 정자를 짓는다는 식재를 하여 실용적인 목적과 더불어 위락적인 요소로 이용하였다.

3. 설계에서 고려 할 사항.

가장 실제적인 문제는 광장과 같은 넓은 지역에서 잉여의 물의 처리도 하나의 설계의 고려 할 문제일 것 같다. 물을 면(面)으로 처리하느냐, 선(線)으로 처리하느냐, 혹은 한 곳에 집수(集水)시켜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방법이나 바닥 포장의 패턴이나 경사도, 또 물을 집



〈그림-3〉. 도심부에 수벽과 분수를 이용한 공원

수하는 시설장치(예: catch basin, french drain 등)의 설계도 틀릴 것이다. 이 집수된 물을 어떤 경로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다음에 문제가 된다. 그것은 물의 청결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대체로 명거(明渠) 방식으로 혹은 암거(暗渠)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고, 명거방식을 택하였을 때는 그 수로의 모양, 바닥재료, 흐름의 속도등을 고려하여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미적인 문제로 단일 요소로서 이용과 구성적인 요소로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단일요소로서의 물의 이용은 하나의 분수라든가 혹은 어떤 조각이나 상징적인 것과 더불어 설치되어진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물을 이용한 시설 설계의 기본적인 고려 사항은 위치이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든가 그늘진 북쪽에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쓸쓸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분무장치를 설치했을때 제대로의 효과를 발휘시킬수 없다. 또 물은 공기중에 있는 먼지등을 끌어들이 집적해 두기때문에 이러한 장애요소를 고려한 주변시설이 없으면 유지관리에 경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항상 지저분한 웅덩이가 되고 만다. 또 일년 중 기후에 따라 혹은 관리비용에 따라 어느 정도 이용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겨울철이 긴 지역에 설치 할 경우 혹은 자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분수 장치를 위한 상수관의 노출은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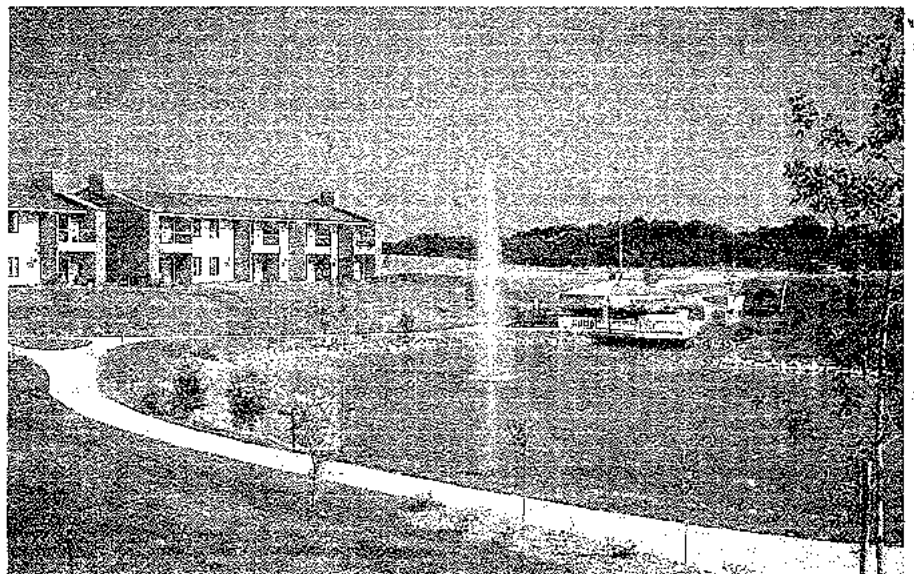
장을 보는것 같아 장치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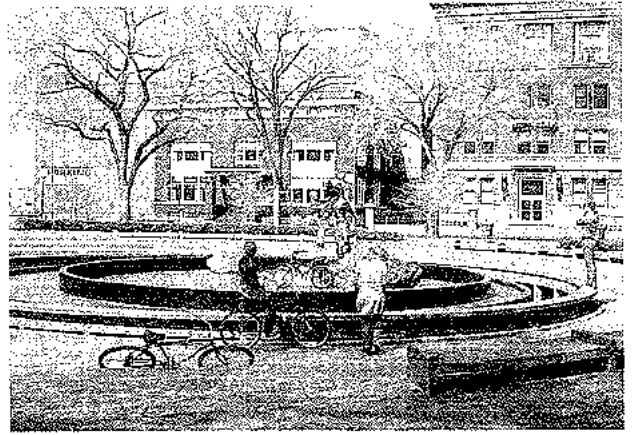
단일 요소의 시설로서 중요한 것은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규모를 갖고 있느냐하는 것이다. 즉 분수가 놓여질 곳에 공간의 체적, 즉 높이·폭과 깊이를 조사해야 하고, 그 규모에 따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대적인 크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수반의 깊이와 크기, 부속 시설의 비율과 높이, 물 효과의 용적과 성질 등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분수의 분출되는 모양과 효과는 수반의 크기를 결정하고, 분출되는 물의 용량과 물의 순환장치 능력과 물 속의 조명 장치는 수반의 깊이를 결정하며, 바닥의 재료나 패턴도 여러가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있다.

구성적인 요소란 단일적인 특징으로 된 것이 아닌 규모가 큰 종합

적인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어떤 특수한 건축물이나 시설의 배경적인 요소이거나 어떤 장소의 쏠점을 모으기 위한 구성의 중심이 되고,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축에 의한 설계에 물을 이용한다든가 혹은 전체적인 환경을 물을 이용한 시설이나 수변 정리를 통해 조성되는 환경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성에는 단(端)의 처리가 설계되어질 목적에 잘 나타내기위해 세부적이어야한다. 자연적인 성질이 만족스러운 연못의 단(端)은 경사진 식재지역이나 주변 재료의 이용으로 부터 모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하게 시각적인 효과를 노려야한다. 때에 따라 단(端)은 명백하게 물의 선을 제한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단처리를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다른 시설에서 물을 이 단으로 부터 낙수시킬 경우에는 떨어

〈그림-4〉. 미국 「조나선(Jonathan)」사의 주택단지내의 분수와 수변정리된 설계.





(그림-5). 조각물과 분수의 복합 구성물이 어린이 놀이 시설로 변한 예.

어지는 물의 효과에 따라 월류보(weirs)로 하느냐 「립(lips)」으로 하느냐를 결정하여야 한다. 립이 사용될 경우는 떨어지는 물의 난류와 희게 보이는 물의 효과를 갖게하며, 월류보는 물의 동요를 흡수하고 효과적으로 물이 앞으로 흐르는 유속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용량의 물을 부드러운 면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의 표면 처리가 거칠면 거칠수록 거칠어진 물의 흐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은 자연적요소로서 고유한 특질을 갖고있어, 다른 재료와는 달리 자유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물은 어떻게, 어느 곳에 담을 것인가하는 용기의 형과 작용시키는 질에 따라 효과나 시각적 느낌이 달라진다. 특히 도시속에서 물의 존재는 딱딱한 주위 환경에서 생활하는 인간에게 시각을 유인하는 중심적 존재가 될 수 있으며, 휴식의 분위기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4. 설계의 이용

앞에서 살펴 본 물의 성질 및 물의 기능 및 미적 이용의 역사와 「조경학(Landscape Architecture)」의 저자인 「싸이몬드(John O. Simonds)」가 이탈리아의 「빌라 디에스테(Villa d'Este)」를 방문하고 물의 상태를 묘사한 내용을 갖고 구상해보면 어떠한 분무장치와 용기가 그 느낌을 갖게하여 줄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것 같다. 그는 빌라에서

왈칵왈칵 흐르는 물(rushing water),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는 물(pouring water), 솟아오르는 물(gushing water), 거품처럼 흘러나오는 물(foaming water), 뿜어나오는 물(spurting water), 토하듯이 나오는 물(spewing water), 큰 물결로 노도와 같이 밀려나오는 물(surging), 풍풍 흘러나오는 물(gurgling water), 줄줄 흐르는 물(dripping water), 똑 똑 떨어지듯 흐르는 물(trickling), 잔잔하게 흐르는 물(riffling), 반사되는 물(shining)과 반영되어지는 물(reflecting water)의 상태를 관찰한 것을 보면, 그 빌라가 어느 정도로 물을 잘 이용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맑고 잔잔한 물은 정적인 느낌과, 관찰자에게 주위 물체의 반영되어지는 실형과 사형을 구분하게 하며, 물 자체의 유동성의 작용과 빛의 반사에 의하여 시각적인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다. 미국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6층의 보험 건물(Northwestern Insurance Building)은 건물 외관의 기둥과 벽의 장식이 물에 반영되는 것을 연출하게 물을 모아두어 보행자로 하여금 시시각각의 변화하는 화폭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하고 있다(그림-1).

위락적인 물의 이용은 어린이를 위해 일반놀이시설과는 달리 도섬지(wading pool)를 만들어 물과 접하게 한다든가, 「로렌스 할프린(Lawrence Halprin)」이 설계한 「러브조이 광장(Lovejoy Plaza)」과 같

이 조각적인 자연 형태의 구조물에 물을 이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보아서 느끼는 즐거움과 시설에 직접 접하므로써 인공적인 도시 속에서 자연의 한 요소를 접하게 하고 있다. 또 교차로 가각 정리에 의해 생기는 교통도에 격자 무늬를 한 시설물을 물과 더불어 설치하여 무더운 여름에 보행인에게 시원함과 생동감을 갖게 할 수 있다(그림-2).

좁은 공간이나 시점이 막히는 부분에 수벽(水壁)을 만들어 높은 곳으로 부터 물을 떨어지게 하므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동감을 유발시키며, 그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음으로 자연속에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미국 뉴욕의 「파레이 공원(Paley Park)」의 소공원과 수벽에 파콜라와 같은 그늘을 덧붙여서 도심부를 이용하는 보행인에게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시설을 갖춘 공원도 있다(그림-3).

중심점이 되는 장소에 여러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분무하게 한다든가, 하나의 분무장치로 힘차게 뿜어내는 물을 보므로써 환희와 대기를 짜르는 것과 같은 명쾌감을 줄 수 있으며, 또 요란스럽게 떨어지는 물은 청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생동감을 준다(그림-4). 분수시설과 조각물의 복합 구성을 시켜 어떤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설 할 장소에 많은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그림-5).

「都市雜想」

朴 研 心

중앙건축연구소

어쩌다 아이들 방을 치우다 보면 어지럽힌 방바닥에서 스톡홀름행 왕복비행기표를 줌게 된다. 그러면 마치 내가 아이들 여행놀이의 동반자가 된 착각에 빠지며 공연히 가슴을 설레이는 것이다.

나는 도시를 꽤나 좋아하는 편이다. 거기에다 외국의 선진도시들은 나의 동경의 대상이다. 어원 쇼의 소설 「페이톤 플레이스」의 아리슨처럼, 「날개」의 작가 李箱이 東京을 동경하였던 것처럼, 도시의 의미는 저 악명높은 뉴욕에서부터 내게는 곧 「Human Documents」의 시작이라 생각된다. 거기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상태의 참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인 것일까. 거대한 굴레의 작은 나사로써 억압의 시간 속에 찰라를 살고 가는 한 인간이 각양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때문일까. 아침마다 식탁위에 보다 싱싱하고 값싼 정보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일까. 약속 시간의 경황중에 잠시 잠시 돌볼 수 있는 화랑과 전시장 때문인가. 보이지 않는 노동의 보람보다도 하루의 댓가가 손에 쥐어지는 환금성 때문인가.

그런고로 이런 여러가지의 공통된 이유로써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

는지 모르겠다. 서울의 도시화율은 대단하다. 이러다가는 독시아디스의 이론처럼 인구 600만이 넘는 메가로 폴리스가 될 것 같다. 도시도 신진대사를 한다는데 이런추세면 문화적인 에너지의 카다르시스 말고는 스모그에 쌓인 서울의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다. 르꼬르바지에의 「빛나는 도시」- 이 이론도 결국 최근에 와서는 비난을 받았지만- 「빛바랜 도시」가 되버리는게 아닐까. 도시의 빛은 굴절되며 不動的의 공기는 중앙청 앞 대로에 은행나무잎 마저도 제대로 단풍을 들지 못하게 하여 어떻게 빛바랜채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의 추억을 잃게 만든 것이다.

서울의 명동도 한때는 도시적 매력을 갖고 있던 곳이었긴 했나 보다. 문화가 숨쉴 수 있었던 곳이었고 또 뜻있는 곳으로 저절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 언젠가 신문에서도 이것을 3면 톱기사로 다룬 것을 본 적이 있다. 이제는 그 시대의 흔적만이 떠돌고 있을 것이다. 30년대의 작가 李箱도 그의 일기중에서 서울을 그리워하는 대목을 남기고 있다. 요양중의 오랜 시

골생활중에서 도시의 만남을 그리워 했는데 지금 어느 누가 얼마나 오래 서울을 떠나 있었기로 서울을 그리워 할까 보나. 누군가는 「서울에서 살립니다」를 노래했지만.

서울은 어쩐지 主人이 없는 도시처럼 생각된다. 겹겹만 있는 도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도시. - 외국인 친구가 왔을 때 더욱 강하게 느꼈던 느낌- 「세계는 신이 만들었으나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이 만들었다」는 말이 있듯이 서울은 서울사람이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된다면, 터론토에서 활동하던 피아니스트 「글랜·골드」처럼 「터론토가 싫증이나면 그다음은 죽음을 택하겠다」- 그의 사후에 자살이나 심장마비나가 거론되긴 하지만- 할 정도로 서울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네덜란드인의 국민성을 인용하면 「그들은 주의깊고 집요하다. 또한 현실적이고 근면하며 대담하고 예리한 장사수완을 발휘한다. 그들은 중후하고 생각이 깊으며, 함부로 행동하거나 맹세하지 않는다. 반면에 더없이 자유를 사랑하고 자기 권리를 지킨다. 그들은 또 자기 소유물에 대해 깊은 애락을 갖는다.

작은 도구, 아담한 집, 좁은 뜰이 모든 것이 항상 애정으로 손질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까지나 신선감을 잃지 않는 깨끗하고 우아한 환경을 갖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극도의 상반된 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고대 그리스시대의 유적과 함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문화부장관을 지낸 가수이며 배우 출신의 「메리나·메르쿠리」는 문화유적 뿐만이 아니라 불량주거환경까지도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저소득층의 다수의 표를 - 국회의원에도 제직중이었다 - 의식하고 인기전술을 부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한때 군사정권에 의해 반정부인사로 낙인찍혀 3년간을 외유생활을 하였는데 바로 그때 아테네의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하였고 또 더욱 아테네란 도시를 객관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일까. 아니면 오랫동안 떠나 있지 않아서일까. 좀더 애정을 갖고 보지 않아서일까.

존경하는 선배님은 “도시인 개인 개인의 삶이 보다더 절실함에 매달

릴 때에” - 그 절실함이란 1930년대의 CIAM이 아니더라도 “빛과 공기와 녹지”의 절실함이 상각키우는 - 좀 더 살만한 가치가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뉴욕 5 번가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뉴욕 타임즈의 「존·프랜틀」 - 우리에게서 낯설은 이름이다 - 은 뉴욕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타임즈 스퀘어 가든」과 「센트럴파크」라고 하였다. 겨울에는 「타임즈 스퀘어 가든」이 스케이트장으로 변하는 모양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 때 스케이트를 즐기는 모습이란. 「센트럴 파크」의 전위적 스케일과 함께.

인공토지, 수상도시, 공중도시의 미래지향적 어구에서 우리는 미리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개발은 곧 파괴라는 선입견과 재개발이라는 항목에와서는 또한번 놀라게 된다. 서울의 봉천동무허가주택군을 거닐어 본다. 하수도시설, 전기, 난방은 잘못됐을지언정 골목어귀에서 어쩐지 친근감이 가는 작은 장독대를 만나며 싸리올타리 밑의 봉선화는 사과궤짝의 간이 화분대에서 즐고 있다. 비싼 정원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지가 불균형하게 자란 야카

시아랑, 그리고 빛잘드는 툇마루들 이웃과의 별 버젓한 담도 없이. 그런 지역이 재개발된다고 하여 그다음의 모습을 상상해보니 무엇인가 좋은 방법의 연구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 밀도에, 그 경제적조건에, 그 환경에 맞는 가장 한국적인 방법을. 보다 절실함을 갖고서.

시카고하면 상업도시이고 흑인이 많이 살고 있고 씨어즈타워와 존 핸코크 빌딩이 있고 시카고파 (Chicago school)의 건축물이 많은 곳 정도로 알고 있으나 여기, 시카고의 연기안개 자욱한 술집의 리듬 앤 블루스 사랑하고 그리고 도시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낡은 전철의 그 절대적인 힘 - 서민들의 교통수단이기 - 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의 소음을 즐길줄 아는 시인의 이름은 잊어먹었지만 그가 지은 시귀의 한 귀절을 소개한다.

하루의 첫 햇살이 미시간호를 지나면

시카고는 또다시 꿈틀댄다.

방음벽을 뚫고 나와 나의 어깨를 흔드는 너.

아침 토스트속의 부루스보다 감미로운 너.

環境과 環境設計

梁 銳 在
서울대 環境大學院 教授

관계로 본 環境과 設計

불과 이십여년전 까지만 해도 그다지 보편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던 '環境'이란 말이 근래에 와서는 자주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現象은 環境이라는 용어가 가진 매우 복잡적이고 전문적인 개념을 깊이 인식하여 사용하고 있다기 보다는 辭典의인 의미로서의 環境, 즉 주변상황이라든가 분위기 정도의 가벼운 뜻으로 쓰게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요즈음에 와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人間의 物理的 環境, 예컨대 建築이나 都市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깨닫기 시작한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전문적인 입장에서 環境의 의미는 對象에 따라, 또는 認識의 方法이나 相關분야에 따라 다르게 定義되고 이해될 뿐만 아니라 학자들간에도 견해의 차이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環境의 意味나 定義를 내릴 수도 없고, 이 글의 취지상 그 필요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본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설계라는 행위의 대상으로서의 環境을 環境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環境문제에 관한 내용과 의미의 파악이 더욱 중요시 되는 것이다. 설계란 어떤 대상에 관하여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조건속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며 설계라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간이며 장소이다.

공간이나 장소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물이 서로 얽혀져서 고리를 만들어가듯이 연속적이며 복합적인 관계에 의해 형성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環境을 하나의 체계(System)로 보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관계로서 環境을 파악하기 때문이며, 環境문제들도 環境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요소들간의 관계속에서 생겨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간이나 장소, 즉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人工環境은 때로는 자생적으로,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투쟁의 산물이며,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 발달되고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人工環境의 각 요소들은 각기 세분화된 전문 분야에 의해 대부분이 만들어진 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물리적 環境에 관여하고 있는 분야로는 대체로 도시계획과 건축, 토목, 조경 등이라 하겠으며, 이들 분야들은 본질적으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으나 본격적인 전문분야로서 정

립된 것은 약 1 세기를 전후해서라고 보겠다. 이들 개개의 전문분야들은 각기 특정한 계획이나 설계의 과정을 거쳐 현실적인 문제를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획이나 설계의 대상과 조건에 따라, 또는 그 대상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지는 공간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각기 해결의 방법이나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되어진다. 이들 전문분야는 때로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또는 공존의 체계를 유지하기위해 서로 돕고, 경쟁하며 자기분야의 독자성을 유지해가고 있으며, 교육이나 실무 등을 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을 양성하고 그 분야의 발전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기반을 다져왔다.

우리가 살고있는 人工環境은 環境설계에 속한 분야들에 의해 만들어진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독자성을 지니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관계속에서 공간이 구획되어지고 장소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살기좋은 環境, 잘 가꾸어지고 의미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環境설계에 속한 모든 분야들의 공통된 목표라 할 때, 각 분야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전체로서의 環境이 조화롭고 질서가 유지될 때 비로소 바람직한 環境이 조성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집이나 가구들도 값이 비싸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것들이 아무렇게나 놓여진다고거나 전혀 다른 의도로 사용될 때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없듯이, 우리가 한데모여 생활하고있는 공동의 環境인 거리나 도시도 잘 지어진 몇 개의 건물이나 값비싼 몇 그루의 나무, 들 또는 말끔히 포장된 도로가 있다고 해서 그 거리나 도시가 아름답다고 하기는 어렵다.

도시環境과 環境설계

도시는 인류가 모여살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생활양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지배적인 것이다. 이 정주환경은 인간이 자연환경을 소재로하여 만든 인공환경으로 거시적으로는 도시의 다양한 활동을 미시적으로는 시민 각자의 삶을 담아주고 받쳐주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도시는 참으로 복잡적이고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몇마디의 말이나 글로 표현될 수 없을만큼 복잡하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도 과거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제각기 터를 닦아 집을 짓고 서로 왕래하며 길을 만들고 필요에 의해 갖가지 시설들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모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요즘처럼 도시의 구조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도시란 자연적으로 생겨나거나 있는 그 자체로서의 환경이 아니라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요소들간의 복잡한 관계를 찾아내게 되었으며 도시는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과 단절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도시계획이란 바로 이러한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분야라 할 수 있겠으나 이는 도시를 거시적이고 평면적으로는 다룰 뿐 아니라 특히 최근에 와서는 과거의 실천적인 방법이나 기술은 학문적인 과학화로 바뀌어져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에 관한 관심보다는 추상적인 이론에 접근하려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전문분야로 부터 필요이상의 세분화와 특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입체적이고 장소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파악하며,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와 그들 요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과 그 속에 담겨지는 사람들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각 요소들간의 관계를 서로 맺어주고 조절하며 한때

모아 전체로서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필요하다.

환경설계란 일반적인 인식이나 범분야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건축이나 조경,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등 물리적 환경에 관여하는 전문분야들의 총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도 하겠으나 이를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의 역할이나 내용에 관한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문분야라고 할 수도 있다.

예컨대 단지설계를 한다거나 하나의 가로를 꾸민다고 할 때 건축은 건축대로 건물만 설계하고 토목기술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상하수도를 놓고 길을 닦는다든지, 조경은 다른 것과 상관없이 가로수를 심고 놀이터를 만들며 휴지통이나 가로등도 주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다면 비록 각각의 건물이나 시설들이 훌륭하다고 해도 단지나 가로들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불편하게 되고, 모든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또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과 같은 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그에 수반되는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설계의 일들이 제대로 인식되고 환경설계가 우리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째, 각 설계분야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서 환경존중의 사고 방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둘째, 각 분야는 환경설계의 태두리 안에서 그들의 독자성이 발휘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환경설계의 역할

환경설계는 환경조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구성해 주는 역할을 담

당하도록 하며 각각의 분야에서 해야 할 세부적인 일을 일일이 간섭하거나 관여해서는 안된다. 환경설계는 각 분야에 독자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열개를 짜주며, 그들의 일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에 대한 규제의 방침과 기술을 논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방법론이 제시될 수 있어야만 '환경설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구체적으로 단지설계나 도시재개발 등의 마스터플랜이나 지구계획 등에서 나타나는 각 설계분야에 대한 규제와 설계지침 및 계획전체의 틀을 마련하는 일들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환경설계의 일들이 제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리라 생각한다. 첫째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인간환경의 대표적인 공동 공간인 도시의 예를 들어보면 도시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변화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모든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문제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환경문제는 그 구성요소의 관계가 서로 얽혀 움직이는 속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효과적인 파악을 유사한 것들을 함께 묶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구성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의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환경의 질에 대한 심미적인 감성의 개발이 필요하다. 환경은 인간이 창조한 기계는 아니며, 기능과 효율성만으로는 '좋은' 환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따라서 환경의 정신적인 감성과 심미적인 요소가 수반되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편리한 환경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人間과 環境 環境心理的 接近

李 揆 穆

(서울市立大 副教授：都市造景)

1. 序 言

오늘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종류의 공간을 총체적으로 “인간과 그 환경 (man and his environment)”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주위환경을 체험한 때 어느 하나의 실내공간이나 건축공간 혹은 외부공간으로 구분하여 지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종류의 공간들이 일련의 연관성을 갖고 우리에게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란 대체로 可視的인 물리적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데 이것은 대체로 자연적 요소가 지배적인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을 담는 인공환경으로 구분된다. 산업화나 공업화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파괴되고 자연환경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자 이것에 대처한 폭넓은 접근 방법으로 생태학(ecology) 이 크게 대두되었듯이, 인구가 과밀되면서, 생활환경이 지나치게 조악하고 불편해지자 이러한 인공환경의 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심리라는 분야가 근래 각광을 받게 되었다.

환경심리란 간단히 말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혹은 인간을 기본으로하여 환경의 문제에 접근하려는 것이다. 이 분야는 대략 60년대까지는 심리학의 한 분파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60년대이후 사회학·지리학·건축도시·조경 분야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단지 심리학 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친 일종의 종합과학적인 성질을 가진 학문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환경에서 종종 발생하는, 인간의 행태나 선호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여러가지 부적합 현상의 문제는, 이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부응하는 인간중심의 설계방법론을 찾도록 촉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건축·도시·조경·실내설계 등을 모두 포괄하여 환경설계라는 용어를 쓰지만,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정의한다면 환경설계란

그것이 어느 분야에 속하든,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환경심리를 바탕으로 설계에 접근하고자 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심리학자가 아니라 바로 이런 측면에 관심을 가진 환경설계가로서, 그동안 몇 년 대학원에서 강의하여 오던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심리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 글은 앞으로 전개될 환경심리와 환경설계에 관련된 일련의 논술에 대한 序論의 부분임을 밝힌다.

2. 인간과 환경의 關係模型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 전부터 인간의 행동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행동은 무엇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에 대하여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어 왔다. 하나는 모든 인간의 행동은 원인이 있고 순수한 우연이나 임의의 행동은 없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행동 혹은 행동하고자 하는 결정은 아무런 외부의 영향이 없이 전혀 자유롭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전자가 결정론적인(deterministic) 입장이라면 후자는 자유의지(free will)를 지지하는 입장이다(Bruno 1980). 예컨대 한 사람이 어느 장소를 방문하려는 결정이 순전히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슨 요인이 있는가는 쉽게 해답을 내릴 성질이 아니다.

이러한 인간 행동의 동기에 대한 내적인 요소와 아울러, 우리 행동의 특성이나 자질이 선천적인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인가에 대한 또하나의 해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만약 어느 개인의 행동특성이나 그의 재능이 天性(nature)에 의한 것이라면 그는 본래부터 타고난 것이요, 그것이 태어나고 부터의 養育(nurture)에 의한 것이라면 그는 그의 자란 기간 동안의 환경-부모·교육·장소 등등-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결정론적인 입장에서는 양육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자유의 지론자의 경우에는 天性和 타고난 자질이 문제로 될 것이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도 이러한 국과 국의 입장의 어디에 치중하느냐에 따라 몇가지 관계모형을 찾을 수 있다. 인과와 환경의 관계는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환경이 인간에 영향을 주는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과연 인간이 환경에 의하여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 하겠다. 대략 다음과 같이 환경결정론, 환경가능론, 환경개연론의 세 가지 견해가 특히 문화 지리학이나 환경설계연구분야에서 거론되어 왔다. (Rapoport 1977)

環境決定論 (environmental determinism)은 환경을 인간의 지배자로 보는 경우이다. 이것은 19세기 다윈의 進化論과 適者生存의 원리가 그대로 인간사회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미 고대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氣候決定論을 주장하여 적절한 기후조건과 그리스문화의 수준을 다른 문화와 비교 고찰한 바 있다 (Porteous 1977). 일본인이 만든 植民史觀에서 우리나라는 반도로 되어 있어 정체성과 타율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도 지리적 결정론의 한 예이다. 계획과 설계 분야에서도 이것은 매우 오래된 전통적인 관점으로서 예컨대 인구가 과밀하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현상이 어떤 인간관계가 있다고 보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결정론적인 사고는 인간을 완전히 원인결과적 체계 (cause effect system)에 속박시켜 버린다. 어느 특성의 현상에 부분적으로는 적용될 수는 있지만 일반화될 수 있을 만큼 보편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음, 環境不能論 (environmental possibilism)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대략 1920년대 이후 주장되어 온 것으로 (French School of Possibilism, Broek 1978), 이것은 환경을 인간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때

개체로만 간주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똑같은 외적 영향이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낸 경우가 무수히 많은데, 이것은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가 실현되는 정도에 달렸고 이것의 실현여부 (may or may not happen)는 인간의 선택과 노력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물론 능동적인 주체가 되지만, 이것은 인간이 환경의 지배자란 뜻은 아니고, 환경이 부과하는 제한이 매우 관대하여 인간의 재량권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크게 강조된 것으로 예컨대 인간이 경제·기술 측면에서 노력을 경주하면 그만큼 우리는 효과적으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경우로서 1차대전시에는 국가간의 戰力은 지상군과 해군력에 의존하였는데 2차대전시에는 공군력 그리고 앞으로는 미사일 등의 개발에 의하여 국가간의 전력의 완전히 달라진다는 견해를 들 수 있다.

끝으로 環境蓋然論 (environmental probabilism)은 기계론적인 결정론과 법칙부재의 가능성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간의 행동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는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견해이다. 즉 환경은 지배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잠재적인 기회와 선택가능한 代案들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선택되는 것과 인간의 동기 사이에는 어떤 개연성 (likely to happen)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식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확률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이 개연론은 인간의 동기가 어떻게 작용하고 또한 환경은 어느 정도로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하여 많은 불확실성을 제시하였다. 한 개인의 행동이나 행동하려는 결정을 알 수는 없지만 가능한 범위와 그 중 가장 실천가능한 대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이것이 바로 환경심리라는 학

문의 관심영역이 된다고 본다.

인간과 환경은 상호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국의 하원의사당을 새로 지을 때, 옛 것과 똑같이 짓기를 주장하면서 윈스턴 처칠은 “우리가 건물을 만들면, 다음에 건물은 우리를 만든다 (We shape our buildings, and afterwards our buildings shape us)”라고 했다. 이것은 건물의 모양을 바꾸면 의회의 논쟁의 형태를 바꾸며 이것은 나아가 영국 민주주의의 구조 그 자체를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Pocock and Hudson 1978)는 것이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있어 이러한 兩方向的 흐름을 설정하는 것이 환경심리의 기본적인 자세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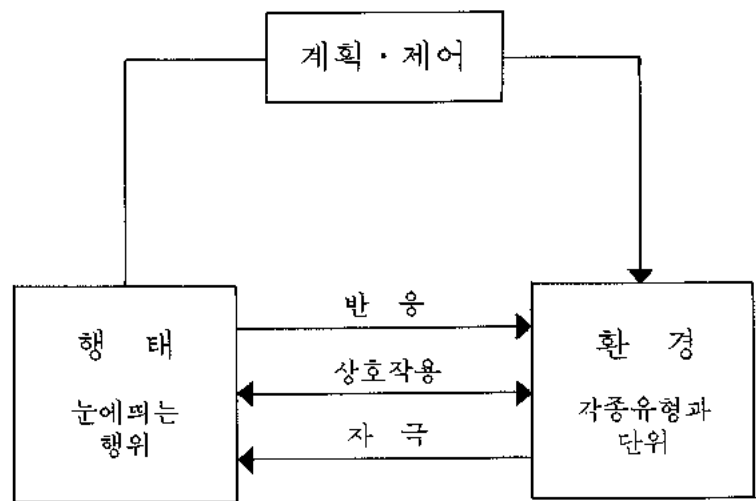
3. 環境心理의 定義에 關하여

환경심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또 학자마다 다소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 검토하여 불필요가 있다. 가장 간단한 정의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과학적 연구 (T. Lee, 1976)”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과 환경을 하나의 셋트로 볼 것이다. 그런 수많은 특성을 가진 인간의 여러면 중에서 어느 측면이 환경과 관계하는지, 또한 환경이라면 그 애매하고 개방된 (open-ended) 성격의 환경 속에서 어느 요소와의 관계인지 애매하다. 좀더 구체적인 정의로 “인간의 행태와 인공·자연환경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Bell et al. 1978)”라고 한 것도 있다. 이것은 인간의 행태와 인공·자연 환경의 관계라는 구체적인 한계를 명시하였으나, 오히려 범위를 너무 좁게 한정하여 인간의 겉에 나타난 행동은 포함했지만, 인간이 어떻게 환경을 지각하고 인지하며 또 지식을 축적하는가에 대한 것 즉 환경체험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하나,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인간의

행태 및 체험과 그 인공환경 사이의 이론적·경험적 관계를 확립하려는 시도(Proshausky 1976)"라고 했는데 이것에는 인공환경과의 관계만 포함되지 자연환경은 제외되었다. 끝으로 가장 최근에 Holahan(1982)는 "물리적 환경과 인간의 행태 및 경험과의 상호관계의 연구에 초점을 둔 심리학의 한 분야"라고 하였다. 이것은 매우 포괄적이긴 하나 환경심리학의 종합과 학적 특성을 덜 중요시하고 어디까지나 심리학의 한 분야로서 범위를 국한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필자 자신은 "인간의 지각 및 체험과 물리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종합과 학적 연구"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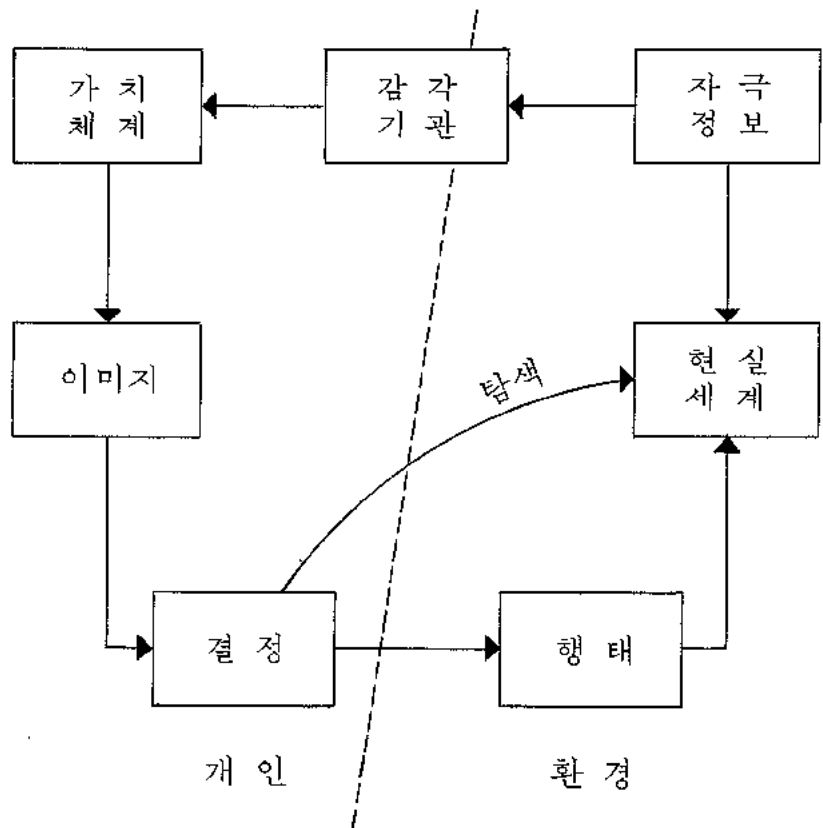
그러나 사실상 환경심리학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패러다임이 없고 (Lang et al. ed. 1974), 또한 理論的 定義는 그 바탕이 애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작적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가 가능한 것 같다. 즉 환경심리학은 바로 환경심리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Proshausky 1970; Bell et al. 1978). 이런 관점에서 환경심리학자들의 관심영역을 대별하여 보면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된다.

- (1) 기본적인 심리학적 개념들을 환경과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것—학습, 지각, 인지, 정서 등등
 - (2) 행태와 관련된 개념들을 역시 환경과 관련해서 검토하는 것—영역성, 프라이버시, 個人空間 (Personal space), 過密 (crowding) 등등
 - (3) 사회적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에 관한 문제들—생활주기, 생활양식 등과 도시공간과의 관계 등
 - (4) 환경계획과 설계에서의 환경심리학의 역할과 적용사례의 연구
- 이상의 이론적 정의와 영역적 정의를 종합해 보면, 환경심리학은 일반심리학과 달리 모든 주제를 항상 환경과 연관시켜 그 상호작용 (interrelationship)을 연구하며, 이



(그림 - 1) 인간-환경 관계의 개념구조 (1)

자료 : Porteous (1977) *Environment and Behavior*, Reading, Mass., Addison-Wesley, p. 14.



(그림 - 2) 인간-환경 관계의 개념구조 (2)

자료 : Roger M. Downs, "Geographic Space Perception," (1970) *Progress in Geography*, 2, Edward Arnold, London, p. 85.

론적 탐구보다는 현실세계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응용적 탐구에 관심을 가지며 종합과학적 성격을 가져 건축·조경·도시계획 등의 분야와 매우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4. 環境心理學의 개념적 틀

심리학이 정신생활(mental life)의 사실과 법칙을 연구하는 과학인 가 아니면 생체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인가는 매우 오래 전부터 이 분야의 두 갈래 조류였다. 대략 1900년대까지는 前者에 치중한 분야가 발전하여 인간의 내적 체험·기억·의지·상상·동기·사고 등에 관심을 갖고 주관적이며 다소 사변적인 접근방법으로 연구하였으나, 1919년 John B. Watson이 눈에 띄는 행동에만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한 이래, 이 행동적 접근은 급세기 전반부를 장식하였다. (Bruno, 1980). 하버드大學의 심리학자 D. F. Skinner의 S-R심리학은 이 방면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그는 생체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외부의 자극에 대한 눈에 나타난 반응에만 관심이 있었다(Hilgard et al. 1981).

환경심리학도 이러한 심리학의 二大潮流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다. 하나는 Watson이후의 미국계통의 심리학 조류로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환경이 주는 자극이 어떻게 인간의 눈에 띄는 행동으로 반응하였는지 연구하고 그것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그림-1 참조). 예컨대 어느 아파트의 내외부 공간구조가 어떻게 그 아파트의 각종 범죄의 발생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는 사례(Newman 1972)가 좋은 경우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의 定義에 관한 점토에서도 밝혔듯이 행동자체에만 관심을 두었지 환경

자극이 어떻게 인간에게 지각되고 그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행동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것은 무시하고 있다.

앞에 필자가 정의한 대로 환경심리학의 영역이 행동 뿐 아니라 내적인 체험까지 포함한다면, 개념적인 틀에도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 그림-2는 이보다 더 상세하게 인간과 환경의 상관관계를 圖示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부터 과정을 설명하면, 현실세계는 모든 자극과 정보의 보고로서, 이것이 주는 각종 자료가 감각기관을 통하여 개인에게 들어간다(시스템적으로는 入力이라 한다.). 이 정보가 갖는 개인적 의미는 개인의 가치체계와 태도, 현실세계에 대한 기준의 이미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것은 개인이 갖는 주관적인 지식으로서의 이미지로 전환된다. 개인은 이 이미지를 기초로 해서 현실세계에 자기자신을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 필요성은 다음의 결정과정으로 표현되는데 이 결정은 바로 행동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탐색(search)이라는 재순환과정으로서, 충분한 정보가 얻어지지 못했을 때이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하거나 시간적 제한 등이 있어 더 이상 탐색을 못할 때 까지 이 과정이 계속된다. 후자의 경우는 곧바로 결정과정에서 이미지를 바탕으로 행태패턴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出力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타난 행태는 다시 현실세계에 영향을 주어 현실세계는 또 변하고,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서 다시 똑같은 과정이 반복된다. 요약하면 환경이 주는 자극이나 정보를 지각하고 자기의 내적 체험과 결부시켜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며 이것은 다시 환경의 일부가 되어 새로운 자극으로 된다. 즉 자극→지각→인지→행태→새로운 자극(stimuli→perception→cognition→behavior→new stim-

uli)의 관계로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반복된다.

5. 環境心理學의 研究方法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접근하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행태나 지각의 일반원리를 찾아내어 이에 친숙해지는 이론적 연구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집단이나 지역사회의 구성원과의 직접적인 대화·면담 그리고 관찰을 통하여 이 결과를 환경의 계획이나 설계에 반영토록 하는 실제적인 연구방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심리는 순수한 이론적 연구보다는 환경의 맥락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 연구가 많다. 이것은 다시 실험실적인 환경에서 연구하는 방법, 완전히 자연스런 환경속에서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이들 두가지 방법을 절충한 방법의 세 가지가 있다.

환경심리의 연구는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하므로 어떤 방법이 얼마나 유효적절한지 또는 효과적인지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연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Campbell등은 外的 妥當性과 內的 妥當性의 개념을 사용한다(Holahan 1982). 예를 들어 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서울에서 이사를 하는 동기가 學群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내적 타당성의 입장에서, 이런 이사의 동기가 과연 학군 때문이고 다른 독립변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고, 외적 타당성은 이런 결과가 다른 도시나 다른 사회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일반화의 문제에 관련된다.

(1) 實驗法(Laboratory Experimentation, Experimental method)
(이하 Holahan 1982; Heimstra 1978 참조)

고도의 내적 타당성을 얻으려면 실험실과 유사한 상황에서 실험법을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 조사자는 어떤 행태적 상황에 적용되는

독립변수를 체계적으로 조절하면서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음수준을 단계별로 조정하면서 집중력을 검토한다. 이 경우 집중력은 종속변수가 된다. 이 방법은 내적 타당성은 매우 높지만 자연상태에 적용했을 때 문제가 있고 외적 타당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2) 현장조사방법 (Field Correlation Studies, Naturalistic—observation Method)

실제의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활동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것은 고도의 외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나, 어느 변수가 실질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인구의 과밀이 도시의 병리現象과 분명히 관계가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빈곤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외적 타당성은 높지만 내적 타당성은 낮기 때문에, 어떠한 셋팅(setting)을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분류 관찰할 것인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행태를 관찰하려는 自然的 觀察法(naturalistic observation)과 어느 주어진 환경에 대한 태도와 체험 등 내적인 요소를 면담이나 기술로서 탐색해가는 調査研究法(Survey research)이 있다.

(3) 현장실험법 (Field Experimentation, Test Method)

이것은 실험실적 방법을 현장에 사용하여 양자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능·성격·적성 등을 테스트라는 標準刺戟狀況을 만들어 동일한 양식에 외거 측정할 수도 있고, 일정한 설문리스트(questionnaire)를 만들어 표준 양식에 외거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 이것은 외적 타당성과 내적 타당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데, 설문의 구성이나 설문을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

어 현장조사법보다는 외적 타당성이 낮아질 수 있다. 예컨대 똑같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태도조사에서 “매연이 당신을 괴롭힙니까?”라는 질문과 “이 지역에서 무엇이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은 다른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

이들 여러 방법은 어느 경우이나 그 결과를 직접 도시·건축·조경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주거유형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여 앞으로 바람직한 주거유형이 단독주택인가, 연립주택인가 아니면 아파트인가 파악할 수도 있고, 쇼핑에 대한 태도와 선호도를 파악하여 구매행위에 부합되는 쇼핑센터를 설계할 수도 있다.

6. 환경심리와 환경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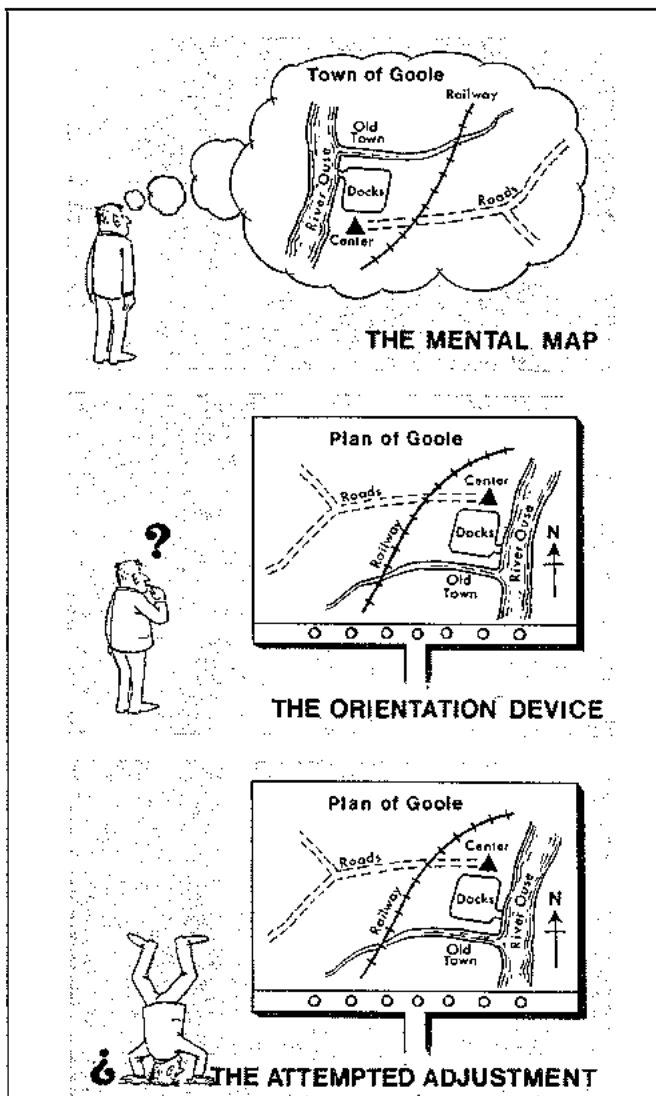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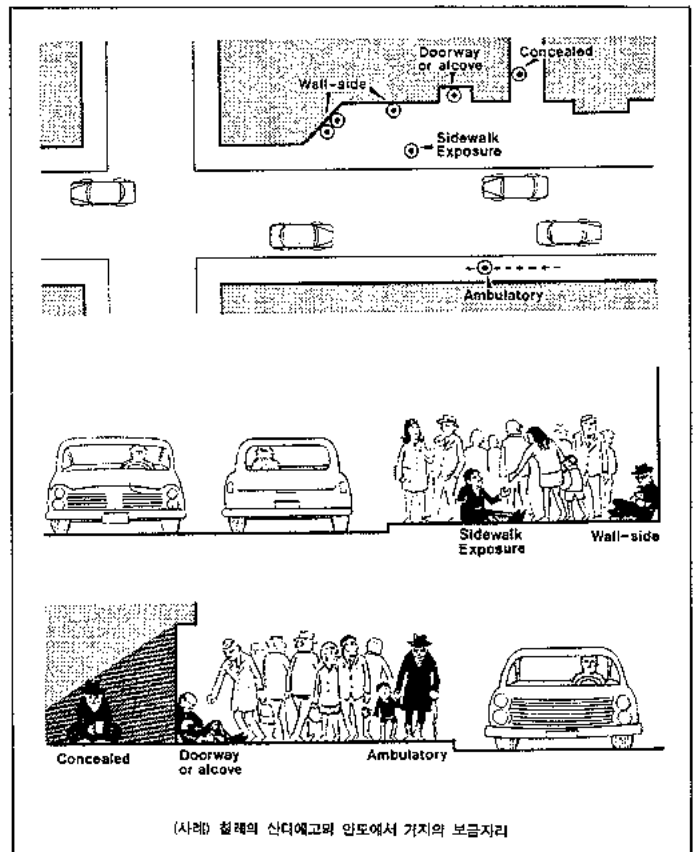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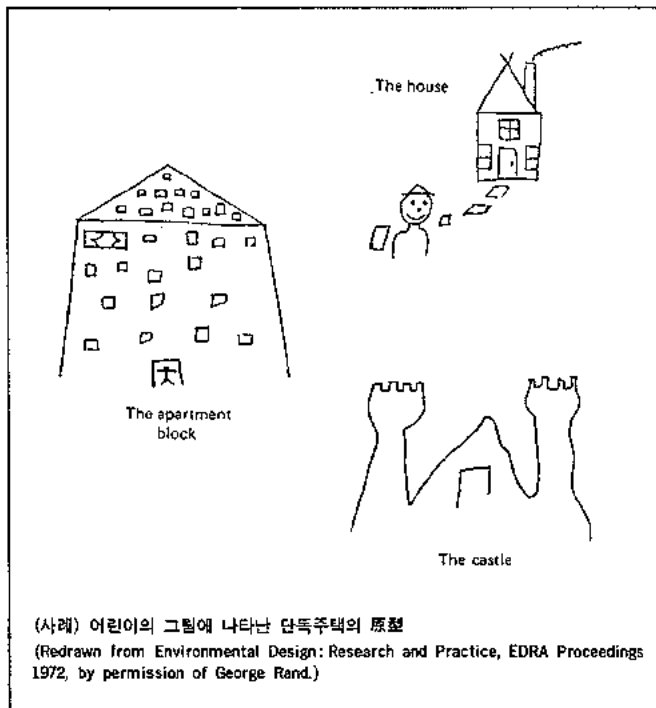
지금까지 환경심리학의 개념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환경심리가 환경설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시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사례나 수많은 적용 사례를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설계에의 적용방법을 간략히 제시하여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우선 환경지각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이 어떤 환경을 선호하고 어떤 환경에서 지각적인 만족을 느끼는가를 객관적으로 파악 평가함으로써, 이들의 지각선호에 알맞는 환경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환경에 대하여 갖는 환경 이미지와 圖式(schema)을 조사하여 그 특성·구조·명료성·독자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도시나 가로경관의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인간이 장소에 대하여 갖는 각별한 의미와 그 근원을 분석하여, 공간에 場所性(Sense of place)을 부여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다. 아마도 가장 연구도 활발하고 응용사례도 많은 분야는 인간의 행태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각종 설계방법의 연구일 것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프라이버시·개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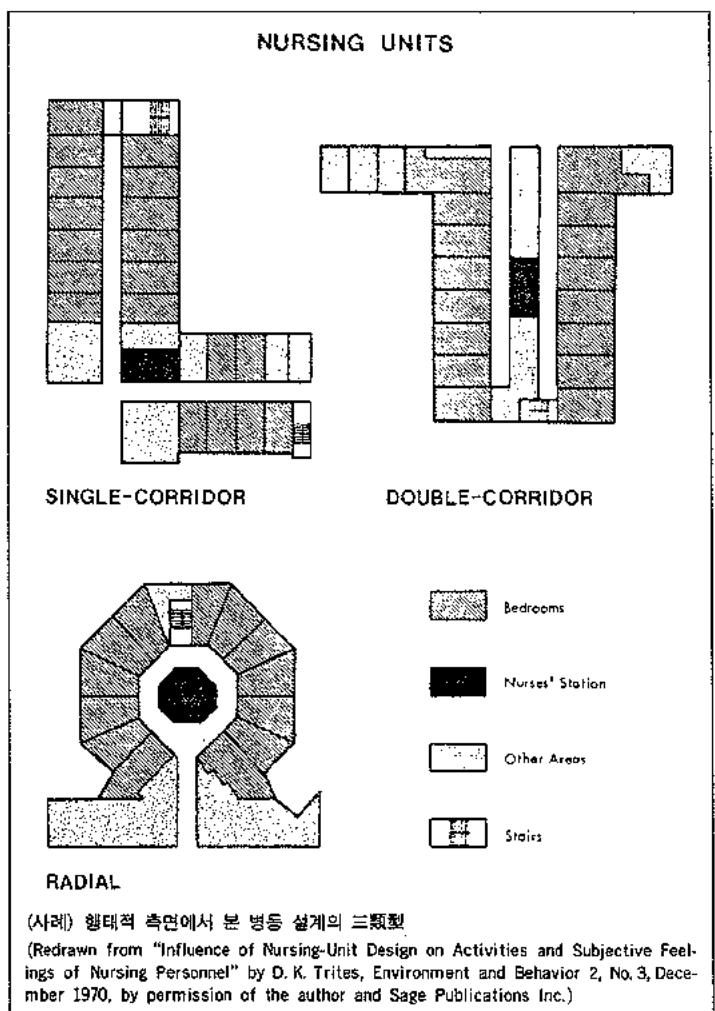
간·영역성·사회적 접촉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고 이들 연구결과는 직접 간접으로 환경설계에 응용이 가능하다. 끝으로 인간은 환경이 주는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상징화하여 그 象徵에 반응하는 상징적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상징이나 기호로서 인간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인간의 상징화에 의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도 환경심리적 측면에서 환경설계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引用 및 參考文獻

- Bell, Paul A. et al. (1978) *Environmental Psychology*, Philadelphia, W. B. Saunders Co., PP. 1-20.
- Broek, J. O. M. and J. W. Webb (1978) *A Geography of Mankind*, N. Y., McGraw Hill Co., P. 30.
- Bruno, Frank J. (1980) *Behavior and Life*, N. Y., John Wiley and Sons., PP. 27-31.
- Hilgard, Ernst R., et al. (1981) *Introduction to Psychology*, 홍대식 역 (1981), 心理學 概論, 서울, 博英社, PP. 6-11.
- Heimstra, Norman W. and L. H. McFarling (1978) *Environmental Psychology*, 2nd ed. Monterey, Cal., Brooks/Cole Publishing Co., pp. 1-36.
- Holahan, Charles J. (1982) *Environmental Psychology*, N. Y., Random House, pp. 1-22.
- Lang, J. et al. (1977) *Designing for Human Behavior*, Stroudsburg, Penn., Dowden, Hutchinson and Ross., p. 11, p. 72.
- Lee, Terence (1976) *Psychology and Environment*, Methuen, pp. 1-16.
- Newman, Oscar (1972) *Defensible Space*, N. Y., Mac Millan Publishing Co., Inc.
- Pocock, Douglas and Ray Hudson (1978) *Images of the Urban Environment*, London, The Mac Millan Press Ltd., p. 81.
- Porteous, J. Douglas (1977) *Environment and Behavior*,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pp. 1-16.
- Proshansky, H. M. et al. ed. (1970) *Environmental Psychology*, N. Y., Holt, Rinehart and Winston, pp. 1-6.
- Proshansky, H. M. "Environmental Psychology and the Real World," *American Psychologist* (1976) 31, pp. 303-310.
- Rapoport, Amos (1977) *Human Aspects of Urban Form*, Oxford, Pergamon Press, pp. 1-3.
- Saarinen, Thomas F. (1976) *Environmental Plann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 pp. 1-17.



(사례) 영국 Goole이라는 도시의 일반에 알고 있는 이미지와 공공의 이미지의 비교 : 방향감각 착오의 경우
(Reprinted from Environment and Behavior 3, No. 2 (June 1971), by permission of the publisher, Sage Publications Inc.)



都市 plan의 研究

—都市 plan의 形과 그 變容過程—

鄭慶雲
東國大學校 教授

1. 머리말

신라王京은 六村村落社會의 촌락을 모체로해서 A.D. 20세기의 오늘날까지 계속 거주지역으로 승계되어왔다. 그간 성곽의 물결이 있어 규모의 대소로서의 변용은 심했지만 한번도 방기 된적이 없는 유일한 도시이다.

도시개발은 인류에 있어서 최대의 사업이 된다.

이 小論은 신라國의 육촌촌락사회말에서 사료國을 거쳐 삼국시대의 신라王京까지 (A.D. 6세기, 불교가 수용되기 전까지, 또 律令 반포 전까지) 이르는 동안 도시Plan의 形이 어떻게 구성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용해 나온 것인가를 해아려본다.

한국의 文化의 定立은 신라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따른다면 신라의 고대도시 plan의 形을 찾아내면 이것이 한국都市plan의 形의 근원적 pattern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외래문명의 到來前까지의 한국인의 순수한 세계관위에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근원적인 것으로 된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도시는 목조건축이었기 때문에 소실되고 유적이 없다.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성벽의 유적도 신라에는 없다. 그러므로 도시plan의 形을 찾아 보기가 아주 힘들다. 그렇더라도 문헌을 통해서 도시발생과 발전의 요소인 정치, 사회, 경제, 인구규모와 생활양상을 도시계획적인 측면으로 정리해보면 都市plan의 形이 추출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正確한 것은 못된다 하더라도 試論적인 것은 된다고 하겠고 또는 도시plan의 形을 찾아내는 Approach가 된다고 생각했다.

한국의 국가형성 전부터 영향력이 큰 나라인 중국과 인도의 고대도시plan의 形을 찾아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六村長業 촌락형성pattern이 王宗의 도시plan의 形의 모체로 되

는 과정을 정리 해본 것이기도 하다.

2. 亞細亞의 古代都市plan의 形

한국에 영향을 준 중국과 인도의 두 나라의 고대도시plan의 形을 해아려 본다.

a) 中國의 古代都市plan의 形

중국의 고대도시plan의 形은 4각형을 이루고 있다. 도시를 성벽으로 둘러싸은 것이다. 도시plan의 계획에는 卜筮과 종교가 큰 역할을 했다.

성벽은 도시에 있어서 가장 신성한 부위로서 삼겨된다. 이 성벽은 제일먼저 축조하고 그 안에 4개 정도의 main street를 두고 그 끝에 요새와 같은 대문을 축조한다. 전쟁이나 혼란시는 가로들이 다른데서부터 격리되게끔 했다. 또 성안의 건축물은 王宮을 제하고는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plan으로 된다.

중국의 도시는 시초부터 하나의 전체로서 생각하고 성벽을 사각형으로 둘러싸고 성안은 서서히 가옥과 공공건물 등으로 메꾸어 나가는 과정을 갖는다.

성벽은 군주와 군주의 도시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이때의 중국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大地 자체가 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도 사각형이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도시plan의 形은 사각형이 주류가 된다.

중국 고대 도시는 명료한 조직, 즉 군주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 지배된 명료한 계획인 도시plan으로 되었다. 따라서 도시plan의 layout의 하나는 개축조된 성벽이,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성안의 도시에 王宮을 중앙에 놓고 그 자체를 또 성벽으로 둘러싸고 도시속의 도시로서 장대하게 형성해 가는 형이다. 그리고 귀족들의 주택도 군주의 왕궁과 같이 했는데 다만 소규모로 된 것이 다를 뿐이고, 각기 성벽으로 둘러

러싸인 안에 작은 마을을 구성했다. 이들 작은 마을 속에는 개개의 가족들의 주택이 있고 그 하나 하나가 또 다시 벽으로 에워싼 것으로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되풀이해서 구성하고 체계를 이루고 王宮을 향하게 했다.

중국 고대 주민은 누구나 모두 兄弟로 된다는 초기의 사상때문에 공동체의 의식도 자치적인 지방정치도 발전하지 못했다. 따라서 자유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도시는 君主와 重臣들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자치적 도시이고 고대 중국의 도시변형은 주민의 자발성이 아니고 군주의 행정능력에 걸려 있었다.

도시plan의 layout의 두 번째는 주위에서(성벽으로부터) 내부로 발전하는 것으로서 內側에서 外側으로 퍼져나가는 일은 없었다. 이때문에 성문은 중요한 요소로 된다. 이 성문은 어떠한 때라도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 즉 하나의 부분으로부터 다른 부분으로 뻗어지는 main street의 system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특히 南門은 신성시했다. 北門은 위험이 있는 곳이라는 관념으로 main street는 명확한 pattern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기타 대소도로는 格子型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택은 중요한 요소로서 도로는 주택의 배치에 종속된다. 도로는 직각으로 꺾이고 小路는 막힌곳이 많게된다. 주택의 입구는 가능한 南面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의 Layout가 무질서이고 迷路와 같이 보이게 되는 원인이기도 했다.

상천과 같은 Layout로서 조직적으로 계획되는 한편 세부 detail가 풍부하게 되어있고 main street와 성벽이란 틀 때문에 도시plan은 통일된 전체로서 생각했을 때 생기는 모든 이익을 갖는 도시plan의 형이기도 했다.

c) 印度의 古代都市 plan의 形

인도의 고대도시는 크기가 한정되어 있었다. 도시plan은 불교의

흐름을 길는 북부인도의 종교도들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즉 “지구는 第一內側에 있는 円이고 그 둘레를 環狀의 大洋이 둘러싸고 있고, 지구의 중심에는 메루(meru)라는 고산이 높이 솟고있다. 거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와서 4개의 대륙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세계관이다. 이런 세계관으로 고대 인도 도시plan의 형을 구성했다.

도시를 성벽으로 둘러싼다는 원리를 만들어냈다. 예컨대 12支에 대응하는 12大門의 성문 등에서 볼 수 있는 symbolism한 것과 색채의 symbolism 등등 추상적인 세계관을 구체적인 건축에 그대로 置換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도시의 형은 거의 모두 사각형으로서 성안의 가로망의 주요가로는 格子型으로 된다. 또 円型으로 구성된 도시plan의 형도 하나 둘 있다.

고대인도의 사상으로는 우주의 힘이 각 개인의 생활을 규정하고 있다고 믿는데서 도시나 주택이 그 영향력에 대응해서 구성되어야 했다. 더해서 종교적 미술적, 地卜의 인 생각이 중요한 도시plan의 요소로서 되곤 했다.

街路의 Layout는 경험과 직시력의 결합에 의한 미술적, 상징화의 命대로 했지만 그래도 실용적인 배료를 무시하지는 않았다. 집들의 방향은 도로의 Layout에 영향을 준다. 또 村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하나의 지구를 구성하는 단위로 했다.

집의 symbolism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주택이란 인체를 Model로 해서 만들어진다. 동쪽벽에 입구와 格子手工장식이 있어야 한다. 또 벽에는 인간의 눈에 해당하는 龕壁이 두 개 있어야 한다. 창은 사람의 코에 상당하고 中庭은 주택으로선 肺의 역할을 갖고있다. 즉 魂이 사는 집이 肉体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궁전, 주택, 사원이나 도시의 건설일 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형태 및 시각적 표현을 주는것

같다. 이와같이 造家의 기술이란 자연이 벌써 시작한 과정을 더욱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인도의 도시plan의 형을 이루는 pattern이 된다고 한다.

3. 사로國 人口의 規模

斯盧國(모체는 六村 村落社會도 됨)의 인구는 얼마나 되었었나를 추정해 본다.

이에 대해서 문헌에 나오는 해당부분의 기록과 고고학적인 자료들의 뒷받침이 기대 되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주 힘드는 일이다.

따라서 애써 이에 대한 얻을 수 있는 자료들로서 추산해 나가 본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론적인 수치는 얻어진다고 생각한다.

한편 사로국은 고대 농업혁명이 이루어진 후의 사로국 건국이라고 본다면 인구추정은 생물의 성장곡선식으로 추산할 수도 있겠지만여기서는 人口歷史學에서 가정하는 고대인구의 연 증가율을 적용해서 추정해 본다.

인구는 도시plan의 형을 성립하는 원동력이고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또한 역사의 연륜이기도 하다. 사로국의 인구는 農耕生活이 주로 되는 시대의 인구증가양상을 바탕으로 생각해서 산정해야 된다고생각한다.

A. 三國誌(東夷傳) 記錄으로 본 人口

三國誌의 다음 기록으로 추산한다.

三國誌(東夷傳, 馬韓)……凡五十餘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萬戶.

三國誌(東夷傳, 弁韓)……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이 기록을 A.D. 3세기 후반경의 사정이라고 본다면(全海宗:東夷傳의 文獻의 研究) A.D. 3세기 후반경의 사로국은 적어도 4,000~5,000호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된다.

그러므로 4,000~5,000호×5인/호=20,000~25,000인 정도의 인구 규모였다는 것으로 된다.

(여기서 5인/호로 잡은 것은 金正基: 韓國堅穴住居址考: 1974, 考古學, 古代住居址가 5~6인이 살 수 있는 space로 되어 있었다는 데 의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로국의 건국시(六村 村落社會의 末葉) 즉 57B.C. 때의 인구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P_0(1+0.008)^{300} = 25,000\text{인}$$

$$10.91P_0 = 25,000\text{인}$$

$$P_0 = 2,291\text{인}$$

$$\text{호수는 } 2,291 \div 5 = 546\text{호}$$

고로 57B.C. 경의 사로국 인구는 약 2,300인의 규모이고 호수는 460~500호 정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A.D. 3세기경은 이웃 辰韓小國들을 복속시키고 小國들의 지배자였던 자들의 이주를 생각에 넣으면 이 기록의 계산보다 작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B. 三國史記·三國遺事의 記錄으로 본 人口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다음 기록으로 추산한다.

三國史記, 3, 慈悲麻立干 (A.D. 469 12년) ...十二月春正月, 定京都坊里名...

三國遺事, 1, 紀異, 辰韓...新羅全盛之時, 京中 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

이 기록은 신라 전성기의 사정의 기록이 된다. 이 전성기를 文武王시대로 잡으면 A.D. 600~700년경으로 된다. 따라서 상기 기록은 A.D. 700년경의 신라 王京 (王京의 母體는 斯盧國)의 호수는 178,936호이고 인구는 178,936호×5인/호=894,680인 (1,360坊 55里)으로 계산된다.

즉 인구가 약 895,000인 이었다는 것이 된다. 이 인구수를 고대인구의 연 증가율인 0.8%로서 계산하면 57년 B.C. 때의 사로국의 인구수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즉 A.D. 700년의 人口 上記記錄에서

$P=895,000$ 인 고로 57년 B.C. 때의 인구를 P_0 라고 하면

$$P_0(1+0.008)^{757}=895,000$$

$$416.5P_0=895,000$$

$$P_0=2149\text{인}$$

으로 된다. 즉 57B.C. 사로국 건국시의 인구는 2,149인이었다는 것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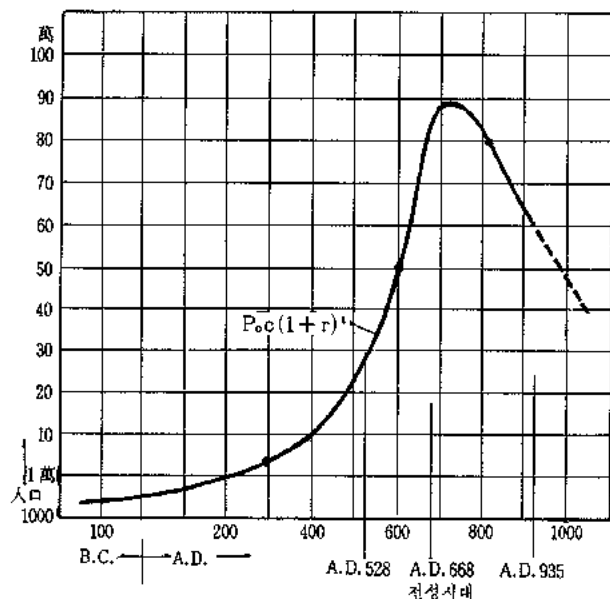
이 數字는 A항에서 추정한 三國誌의 기록으로 계산된 인구 2,291인과 거의 같다는 계산으로 된다. 즉 三國誌의 기록과 三國遺事의 해당기록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이 三國遺事의 기록으로 연대별로 계산하고 三國誌의 기록과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이 결과를 도표화한 것이 (그림 1)이다.

C. 신라 村落六書 1烟當 10인 내외라는 기록 (旗田巍: 新羅의 村落, 朝鮮中世社會에 研究, 1972.)으로 계산하면 王京人口는 178,936호×10인/호=1,789,360인이 된다. 이것은 연 증가율이 1.8%가 된다는 것으로 된다.

10인/호란 상기 문헌은 평균치가 아니고 10명 내외의 집도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王京의 영역의 면적으로 보아도 전성시의 王京人口가 178만명이란 것은 납득하기가 힘든 수치라고 생각 된다.

D. 金鍾旭 (金鍾旭: 신라 國家 形成史 研究에서, 1982)은 사로국 건국시 (57. B.C.) 500호 정도 있었다고

年代	三國遺事의 記錄으로 본 人口數	三國誌의 記錄으로 본 人口數
57. B.C.	$P_0 = 2,149\text{인}$	2,272인
A.D. 1. B.C	$P_0(1+0.008)^{57} = 3,374$	3,367
A.D. 100	$P_0(1+0.008)^{157} = 7,496$	7,725
A.D. 200	$P_0(1+0.008)^{257} = 16,647$	17,608
A.D. 250	$P_0(1+0.008)^{307} = 23,456$	25,000
A.D. 300	$P_0(1+0.008)^{357} = 36,924$	39,055
A.D. 400	$P_0(1+0.008)^{457} = 81,946$	86,654
A.D. 500	$P_0(1+0.008)^{557} = 181,785$	192,226
A.D. 600	$P_0(1+0.008)^{657} = 403,365$	426,545
A.D. 700	$P_0(1+0.008)^{757} = 894,680$ (全盛時의 人口)	946,288



(그림 1) 신라王京의 人口

계산하고 있다. 그러면 인구는 500호×5인/호=2,500인으로 된다. 이 수치는 상기 A항과 B항의 추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E. 支石基 築造時代末期(90. B. C. 경) (六村 村落社會末期)의 인구를 생각해 본다.

지석기 건축시 蓋石을 운반하는데, 蓋石의 무게가 3~14ton 에서 5~6ton 정도라고 하니까(金之龍: 青銅時代와 文化, 1977) 운반하는데 80~100명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인원을 각 호당 1~2명씩 동원했다고 가정하면 촌락의 호수는 80~100 호로 되니까 인구는 400~500명 정도라

는 계산이 된다. 따라서 六村 村落 人口는 400×6=2,400인의 정도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F. 遺跡數를 가지고 고대인구를 추계를 한 小山修三의 연구의 계산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유적수로서 고대인구를 추산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일본 학계의 분위기에 따라 承略한다.

이상과 같이 인구규모를 추계했지만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 일단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고대의 인구를 추계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이상으로 사로국 建國時(57. B.

C.)의 人口規模計算을 한 곳에 모으면 다음과 같다.

④ 三國誌 기록으로의

추계인구 2,272인

⑤ 三國遺事 기록으로서

추계인구 2,149인

⑥ 旗田巍의 호당 10인으로서의

계산인구 4,298인

⑦ 李鍾旭 계산인구 2,500인

⑧ 支石基 築造時의 노력으로의

추계인구 2,400인

여기서 ⑥항을 제외한 평균은 2,330인으로 된다. 六村 村落社會가 사로국으로 출발시의 인구규모는 2,330인(호수 약 500호) 정도일 것이라고 헤아려진다. 따라서 이때의 마을은 Village라 할 수 있다.

4. 斯盧六村의 村落Plan의 基本型

사로六村의 촌락plan은 신라王京의 모체가 된 사로국의 도시plan의 전신인 六村 村落社會의 촌락구조를 말한다.

이 육촌촌락사람들은 支石基를 축조하던 사람들이고 청동기, 무문토기를 사용해 왔던 농경생활을 영위해 나온 농경민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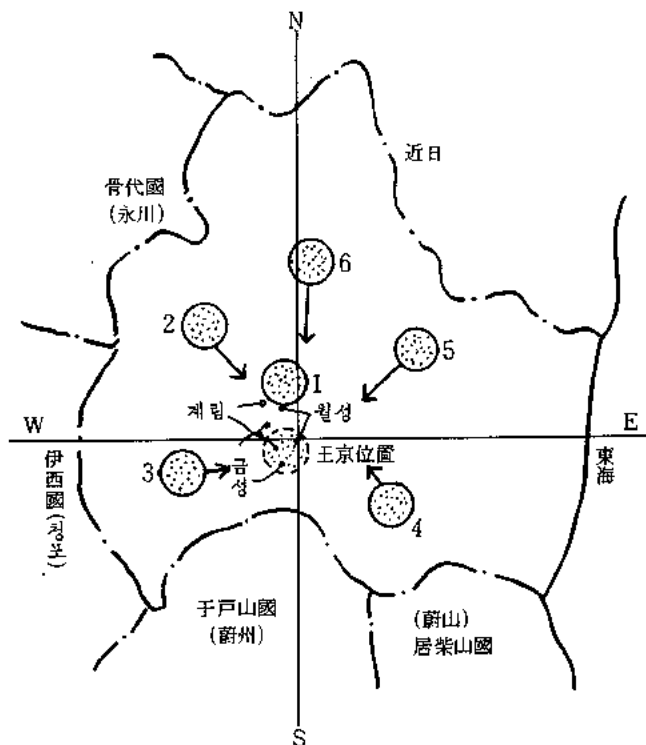
이때의 육촌촌락사회는 지금의 경주시와 월성군을 합친 면적 약 1,000km² 정도가 되는 영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각 村長 村落(village)은 경주평야를 중심으로 직경 10km 내외의 자연조건에 의해 다음과 같이 위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경주평야의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에 關川楊山村의 村長마을이 있었고 그 남쪽에 펼쳐진 평야에는 突山高爐村의 촌장village가 위치하고 關川楊山村의 村長村落의 서쪽에 茂山大樹村長의 촌락, 동남쪽에 鶯山珍支村長의 촌락, 동쪽에 金山加利村長의 촌락, 북쪽에는 明活山高耶村長의 村落이 자리잡고 있었다.

a) 사로六村의 住民構成

사로六村의 주민은 氏族長系와

	사 로 六 村	王 京 六 部
C	사로國의 王都	王都의 母體
1	關川 楊山村	乃 梁 部
2	突山 高爐村	沙 梁 部
3	茂山 大樹村	弁 梁 部
4	鶯山 珍支村	本 彼 部
5	金山 加利村	漢 岐 部
6	明活山 高耶村	習 比 部



(그림 2) 사로六村의 村長 village의 分布

그 밑에 家系長系 다시 또 그 밑에 小家系長系로 나누어지고 있었다. 이들은 민족집단으로 구성하고 血族원리에 의해 통솔하고 혈연 계보상 서열이 위안자(seniority)가 村長으로 되어 지배자로 된다. 이들 家系lineage집단은 인구증가와 농경지 부족으로 씨족장촌락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새로운 촌락을 이루곤 했다. 이 촌락을 家系長集團이라 한다.

이런 가계장집단의 촌락이 4~6개 촌락으로 되면 다시 가계장촌락의 인구증가로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새로운 小家系長村落을 형성했다. 즉 分家部族(segmentary tribe)의 촌락을 구성해 나간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촌락구성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즉 내측에서 외측으로 퍼져나가는 성격을 가졌다고 본다.

그리고 사로六村長은 서로 친족 집단의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촌락의 성격이나 구조는 동일하고 또 주민구성이나 문화, 사회 체제도 동일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戶口數는 差違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b) 사로六村의 경제

사로국 직전의 사로六村은 農耗 기술(鐵製도구사용)의 고도화로서 자급자족의 경제system과 고도의 목공기술의 뒷받침으로 촌락의 구조가 도시화로 향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鐵製釘 發見. 木棺의 정밀성에 의함)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각 촌장의 촌락간에 물자교류가 많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도로의 정비가 아니되고 주민들의 이동도 그리 자유롭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교역이 있었다는 史實이 있다고 하나 촌락구조에는 크게 영향을 주는 단계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c) 사로六村의 村落의 構造

사로육촌의 村長の 촌락을 구성

하는 核은 촌장의 거관으로 되고 Frame의 조직은 원시농경사회의 pattern인 선상pattern(그림 3)으로 이루어져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로육촌 촌락의 성격이 가계lineage집단이고 인구증가로 선상으로 퍼져나갈 수가 없다. 따라서 사로육촌장 촌락은 放射 집중pattern(그림 4)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유는 선상pattern은 인구증가에 따라 村長居館과의 거리를 일정한 거리에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촌장거관과 일정거리를 두고 생산지(농토)까지의 거리도 일정하게 되는 방사집중pattern(그림 4)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방사집중pattern도 인구증가에 한계가 있는 고로 한계에 달하면 일부는 떨어져 나가 새로운 마을을 형성한다. 즉 외측으로 확대시키는 system을 밑에 깔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교통수단 보조가 없을 때 농부는 거리 1km까지는 100% 경작이 가능하고, 1km에서 2km까지의 사이의 경작은 50% 밖에 안되고 2km에서 3km사이의 토지는 30% 정도 밖에 경작이 안된다. (그림 4) 따라서 수송차량(이때는 牛馬車)의 출현으로 상기 거리가 확대되지만 그때까지는 (그림 5)와 같이 구성해 나갔다고 생각 된다.

放射集中pattern으로 구성된 육촌 촌장촌락이 인구증가로 일정거리를 두고 가계장으로 분가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5~6개 마을이 되면, 다시 가계장마을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小家系長마을을 5~6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6) 이때의 사로六村村長村落(village)는 주거 시설 외에 다른 용도를 가지는 항구적인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시대의 주민들은 가계lineage집단의 성원이기 때문이다. 村長居館도 정치적 통솔용 공간을 주거와 겸하고, 창고 정도가 있었다고 해야려진다. 정치적 집합시는 村長居館의 앞마당이란 광장이 생각된다. 따라서 사로六村마을의 Pattern은 마을의 圍郭을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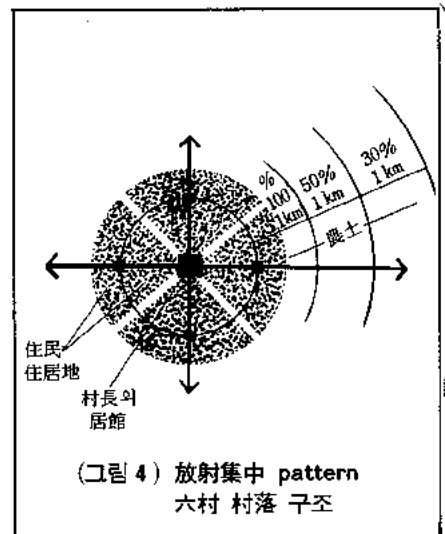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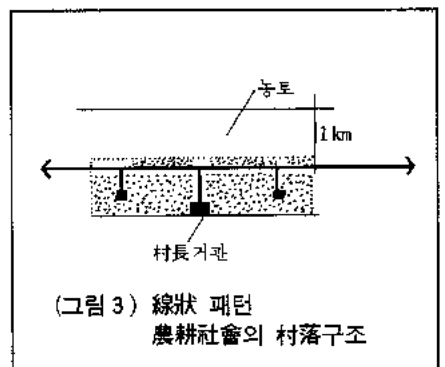
쌓고 마을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식량의 보전을 위한 木柵 또는 土塼을 축조 했었다는 주장이 믿어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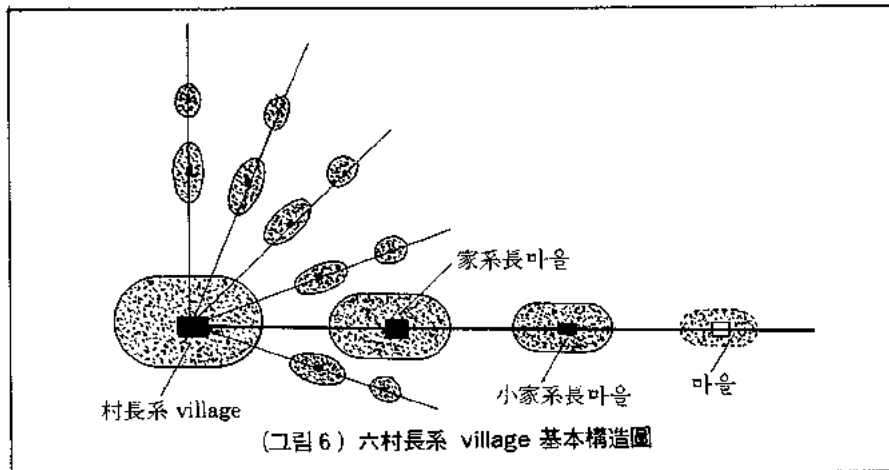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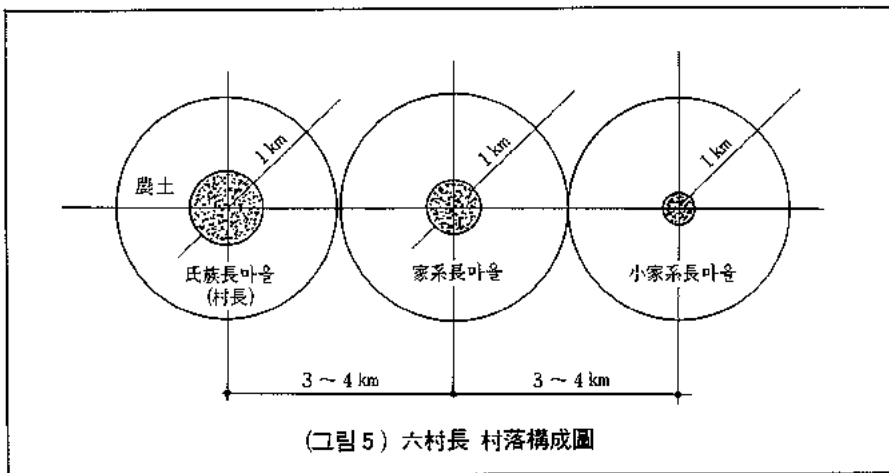
5. 사로國의 都市plan의 形

사로육촌이 통합되어 사로국이 형성된다. (사로국은 신라王京의 母體이다.) 이때의 영역은 약 1,000km² 내외로 되어 있었다. 이 면적은 중국의 춘추시대의 公侯國이나 Greece의 도시국가와 같은 규모로서 비교된다. 또 사로국은 철기, 騎馬, 농경기술의 향상으로서의 경제발전과 또 交易 등 안으로 문화의 고도화, 사회체제, 정치체제 등의 발전으로 보아 국가를 형성할만큼 되었을 때이기도 했다.

a) 政治, 社會, 經濟

赫居世가 王으로 등장한후 朴氏族의 거주지인 金城지역과 昔氏族의 거주지인 月城지역, 그리고 金氏族이 살던 鷄林地域을 합친지역





을 王都라고 했다. 그리고 六村長系 村落지역을 王畿라고 하고 모두 王都로 向을 갖게 했다. 그리고 아울러 六村을 다스리는 정치적 지배자로서 왕권을 세우고 세력을 가다듬기 시작한다.

君長地位를 차지한 朴氏族王系와 육촌 촌락사회시대로부터의 촌장계 후손들과는 혈연적인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여기서 신분제도가 생겨난다. 그리고 아직 王의 통치조직이 완비치 못한채 이웃 辰韓小國을 복속시켜 나가기 시작한다. 이때의 주력은 六村長系의 軍團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료국의 정치세력은 王보다 六村長 세력이 우세했고 六村長系地域 즉 王畿地域에 대한 통치도 육촌장 후손들이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견해의 이유로 육촌장계의 촌장들과 그 제자들의 합議로서 朴氏族의 赫居世를 王으로 삼았다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따라서 王都의 구성도 육촌장계 후손들의 조직으로 되

었다고 해야려진다. 또 촌락사회때와는 달리 祭政이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체제가 A.D. 2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辰韓小國을 복속시키면서 한편 국력도 신장되어 나가고 정치조직도 사료국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王과 六村長系와 가계장계 등이 2~3段階의 계층으로 편성되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경제는 철제도구의 제작, 수송수단인 牛馬車 등이 등장함에 따라서 개개인의 농경지가 확대됨으로써 씨의 생산력이 향상되고 非食糧生産者의 인구증대로 기술발전이 되었고, 축엽의 발전과 공산품 제작 향상 등으로 생활이 활발해진다. 또 외국과의 교역도 활발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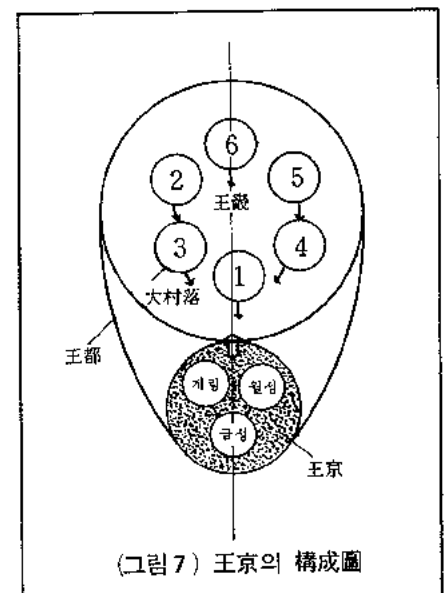
b) 사료國의 都市plan의 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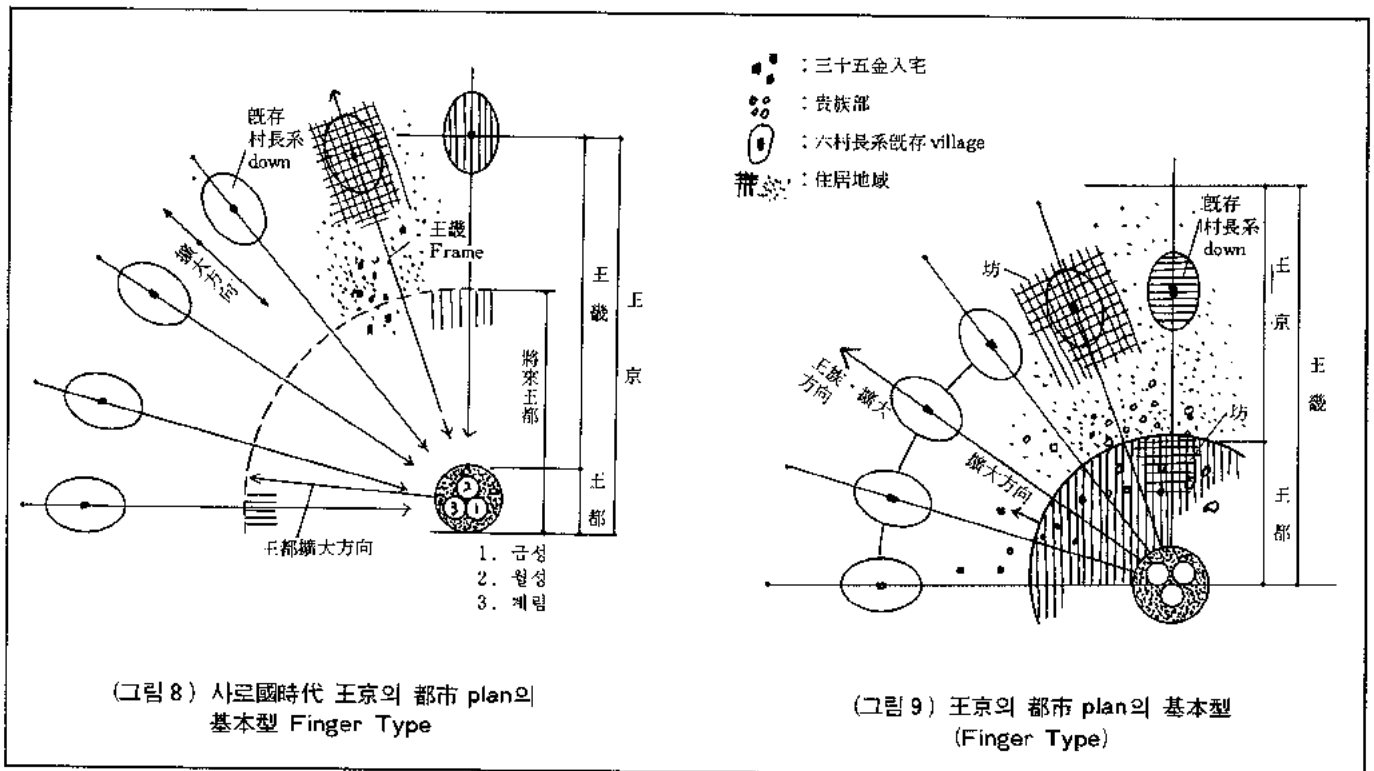
사료六村으로 형성된 사료국이 王京으로 발전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 신분제도 등 여러 면에서 육촌 촌락사회의 성격을 잘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王都와 王畿를 합친 영

역을 王京이라고 했는데 王都안의 金城地域에 王宮을 축성하고 (후에 月城지역에 王宮축성하고 月城이라 했다.) 金城이라고 했다. 여기서 宮室政治를 한다. 六村長村落은 모두 王都의 방향으로 확대방향을 잡고 촌장촌락에서 하나씩의 main street로 연결시킨다. 왕도에서의 확대방향은 촌장마을으로 확대방향을 잡는 Frame으로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 (三國史記34, 地理 1, 三國史記 2, 金傳干) 여기서 王都는 사료국의 정치와 신분적 중심지역으로 된다. 넓이는 직경 3km 정도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王京이나 Greece의 도시국가의 구조pattern은 園郭都市로서 구성되었지만 사료국의 王京구조는 내측에서 외측으로 퍼져나가는(확대해 나가는)형으로서 既存村落群인 王畿와 civic center적인 王都로서 구성되고 외측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된 사료국 특유의 도시plan의 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王都和 王畿를 합친것이 王京이라고 생각할 때 王京은 town 단계를 넘어서 city의 단계로 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既存村長down群에서 王都까지의 主가로 (main street)가 주골격적인 구조로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王京의 도시plan의 형은 Finger type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때의 六村村落群들은 王京구성에 있어서 지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로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6. 三國時代의 新羅王京의 都市plan의 形

사료국의 王京이 A.D. 307 基臨王 10년에 국호를 신라로 복구된다. 따라서 新羅王京이 된다. 사료국의 王京을 그대로 승계된다. 이때의 新羅는 辰韓小國들을 완전히 복속시킨 후 모두 통합한다. 이로써 국토가 확대되고 국력이 크게 신장된다. 그리하여 삼국중의 한 나라로서 자리를 굳히게 된다.

a) 政治, 社會, 經濟

朴氏族王系와 昔氏族王系가 물러나고 金氏族王系가 통치하게 된다. 이때의 王宮은 月城이다. 따라서 朴씨계왕족과 昔씨계왕족 및 후손들은 귀족으로서 王都에 거주한다. 또 삼개씨계왕족의 葛文王系도 신분이 육촌장계 후손보다 위에 놓이고 왕도지구에 거주하게 된다. 따라서 王都가 확대해 나가는 도시 계획적인 요소들이 된다.

王京의 정치조직은 중앙정부조

직, (宮室정치로부터 政事堂 정치로 됨) 六部조직, 가계장계 지역조직 (후에 里가 됨) 다시 세분된 조직 (후에 坊이 됨)의 4단계로 구성된다. 軍事는 귀족 및 육촌장계의 私兵軍團이 우세했다. (통일전쟁시는 主力軍團이었다고 한다.) 이때의 王權下의 군사력은 약소했다고 한다. (중앙정부에 兵部를 설치할 것은 A.D. 519년 法興王 때)

중앙정부도 왕권을 능가할 정도의 세력을 가지는 大等會議member인 귀족들의 존재가 다른 정복 王朝과 다른 점이 된다.

신라정치체제가 왕조로서 특이한 것은 세습제가 아닌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귀족들의 세력 등으로의 二元制 통치라고 할 수 있다.

경제는 농경생산system의 고도화와 공산품의 생산기술의 발전과 외국과의 교역량의 증가로 주민의 생활향상은 도시화에 박차를 가했다. (후의 三國遺事의 四節遊宅이란 기록이 될 정도로 됨) 또 철기 제작기술은 무기생산도 향상시켰고 목탄으로 귀족들 가정Energy원으로 했었다는 기록도 큰 경제 발전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b) 王京의 都市plan.

사료국의 王京plan을 그대로 승계된다. 王都의 Layout는 왕궁 주위에서 외측으로 확대해가는 기본적인 plan으로서 main street는 육촌장촌락군을 연결하는 기본pattern을 갖게 된다. (그림 9) 政廳도 궁실에서 政事堂으로 다시 南堂 등으로 변용되면서 civic center를 구성하고 인구증가로 部, 里, 坊을 정비확대 주거지역을 정비해나간 이때의 王京의 도시plan의 形은 Fingertype로 되면서 육촌장시대의 village의 pattern위에 확대 정비해나가는 과정으로 변용해 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도시plan의 形의 pattern으로서 中, 下代에 계승되어 갈 것이다. 中代에 律令이 반포되고 불교를 수용하고 또 대외적인 발전을 하는 등 하나의 문명왕국으로 되어 간다. 문명국의 王京으로서 불교문화 등이 王京都市plan의 形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변용해 나가다가 문제로 남는다.

7. 결 론

● 六村聯盟體를 거쳐 사료국을 건국, 辰韓 소국을 완전히 복속시킨 후 신라왕국으로 이어지는 긴 역

사를 가지는 王京의 도시plan의 形은 六村長村落構成의 pattern을 原形으로 하고 있다.

●中國 古代 都市plan의 形은 君主 개인의 의지에 지배된 명료한 계획으로 사각형으로 되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圍郭都市이다. 신라王京의 도시plan의 형은 中國의 形과는 아주 다르다.

●신라王京은 중국의 고대도시와 같은 성벽이 없었다. 王京안에 있는 王宮도 성벽으로 둘러싼 것이 아니고 塹壁으로 土塹格인 것이다. 이것은 圍郭都市形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

●신라王京의 都市plan의 形의 기본형은 Finger type라고 해아려진다. (그림 9)

●六村村落社會 때의 六村長村落群의 구성pattern을 원형으로 하고 확대정비해 나갔고, 기본적인 골격의 변용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신라王京의 도시plan의 형의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都市plan의 形이 이루어지는 과

정을 도시하면 (그림 10) 과 같다.

●도시plan의 形은 그 사회와 문화가 기술과 생활양식을 매개로서 자연환경에 따라 발전해 간다고 한다. 또 사회나 문화가 자연에 역사적 변화를 던지는 시간과 동시적으로 여러가지 變化形을 준비하는 空間이라는 요소는 사회의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system系로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삼국시대의 王京은 자연환경, 생활양식은 혼락사회 때의 것을 그 대로의 승계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술향상과 사회체제의 변화와 문화의 정립과정이 王京의 都市plan의 形을 다듬어서 확대해 나갔을뿐 골격의 기본의 변용은 없다는 과정을 신라王京은 밟았다.

●이 고찰에서 불교를 수용하면서 외래문명 도입으로 또 律令만포로 문명왕국으로서의 王京의 도시plan의 형의 究明을 남겨 놓게 된다.

이 연구는 '84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를 研究費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A study of city plan

— (The form of city plan and The process of transfor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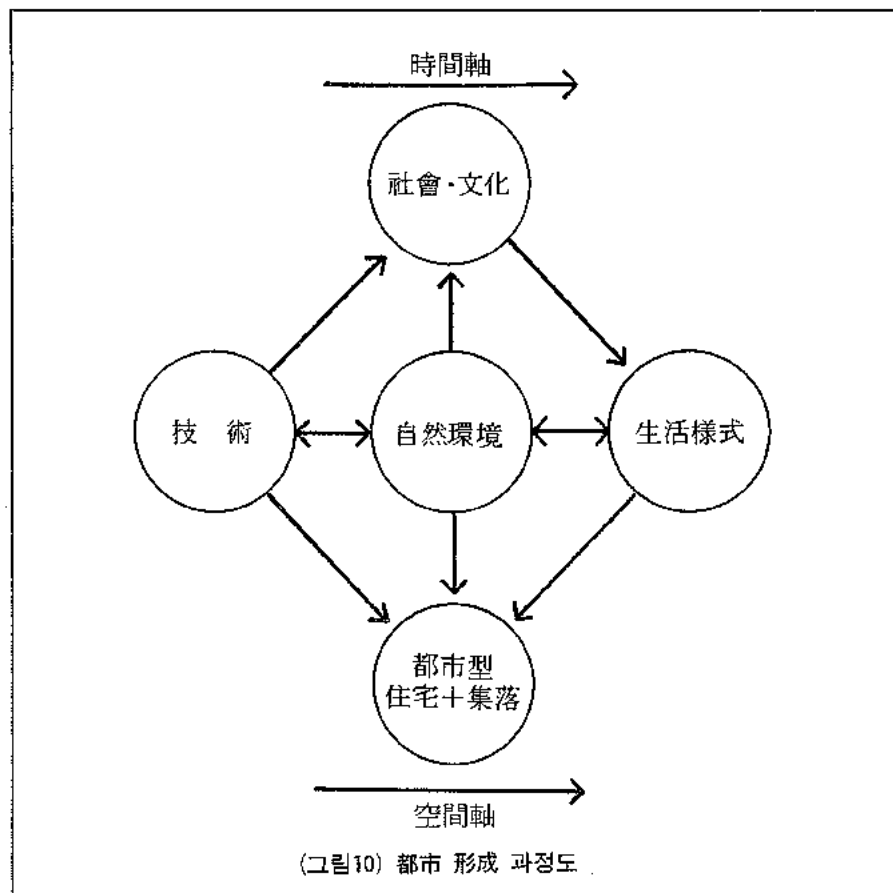
• This study is made in order to reveal the form of city plan in ancient Korea. If it would be done, The original form of Korean city plan would be established. Most Korean historeans say Korean civilization begins from silla dynasty period, so this study treats origination of form of city plan and process of its transformation silla dynasty period.

• Ruins of ancient Korean cities in early silla dynasty period do not remain enough to help study ancient Korean city plan, because ancient Korean cities were made of wooden house (buildings) and wooden bridges, Therefore I abstracted factors of population, politics, social structure and economic and cultural levels which played important roles in origin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cities from literatures of history, archaeology and city planning, among them samguksaki and Samgukgusa are chief references, then summarized those factors in the view of city planning.

•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would say that the basic structure of city plan in early silla dynasty period is that of finger type.

参考文献

- 三國誌 • 三國史記 • 三國遺事 • 李基白 : 韓國史新論 (改正版), 1976 • 金哲垓 : 韓國古代社會研究, 1975 • 旗田巍 : 新羅의 村落 (韓鮮中世社會史의 研究), 1972
- 全海宗 : 東夷傳의 文獻的研究, 1980
- 李鍾旭 : 新羅國家形成史研究, 1982
- 金元龍 : 韓國의 古墳, 1974 • 日笠端 : 都市計劃, 1980 • 鬼頭宏 : 日本二竹の人口史, 1980 • 室永芳三 : 大都長安, 1982
- 川添登 : 都市と文明, 1966 • 中村春壽 : 日韓古代 都市計劃, 1978 • 彰國社編 : 日本의 都市空間, 1972 • Arthur Korn : 都市形成의 歷史, 1980 • 伊東俊太郎 : 都市と古代文明の成立, 1974 • ロバート, マルサス : 初版人口の原理, 1975 • マックス, ウェーバー : 都市の類型學, 1964
- 루이스, 만프카드 : 都市의 文化, 1955. 丸善 • William T. Sands, ed : The Basin of Mexico, 1980 • Kent. V. Flannery, ed : The Early Mesoamerican village, 1976 • E. A. Gutkind : Twilight of cities, 1962



에너지 콘크리트 블록

(Energy Concrete-Block)

이 명 춘
상건축연구소

연구개발에 즈음하여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 지구상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구상에 있는 유한 에너지 원을 아껴써야 한다는 것은 지상명령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멘트 블록 한장을 쌓아 올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단열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가를 연구하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부존 자원은 고작 유일하게 무연탄만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고 그나마 앞으로 약 20년 후에는 고갈된다고 하는 사실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하면 기존의 에너지 자원을 낭비없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이야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開口部를 제외한 70~80%는 조적조로 마감하는 내·외벽에 대한 에너지절감 공법에 따라 최대 50% 이상의 효율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각 기업에서 시행결과 발표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燒成壁磚은 지양하고 多孔 에너지 블록을 직접 개발하여 제작 실험을 거친 체험과 선진국들의 개발 문헌에서 발췌한 것들을 소개하여 무궁한 에너지 블록 연구와 건축분야의 체험수기 등을 집성하여 소개코자 한다.

1. 콘크리트 브로크 개발에 대한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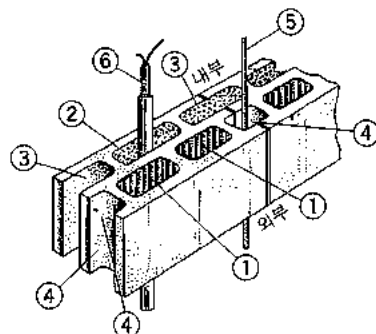
본 개발은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의 공기를 완전차단하여 방한, 방서, 방습, 방음을 한개의 블록으로 동시에 다목적의 달성할 수 있는 2 중공, 3 중공 콘크리트 블록이다.

2. 개발의 구성

제 1 도 ① 2개의 주름잡이 공기 차단실은 결로방지 타원형 구멍이며, ② 장방형 구멍은 단열재를 차입하여 실내온도를 차단하여 ③ 2개 U형 구멍은 블럭과 블럭 이음새 (Joint)를 내·외부와 완전 차단 단열재를 차입 두개 블럭을 연결한 것이며 ④ U형은 이음새 (Joint) 두개 블럭을 연결 접착몰탈 주입하는 구멍이며 ⑤ 동 이음새 (Joint)보강 철근 ⑥은 각종배선 배관을 매설 겸하여 구성된 이중 콘크리트 블럭이며 제 2 도는 제 1 도와 구성방법이 동일한 것이나 ① 2개의 주름잡이 공기차단실이 ② 단열재 차입 구멍을 중앙에 두고 양측에 ①을 설치한 삼중으로 구성된 콘크리트 블럭이다.

3. 개발의 효과를 비교 검토

종래 블럭은 3개의 구멍으로 단일하게 형성되어 단열공기 차단 효과의 효과를 위하여는 이중공간 쌓기를 하여 중간에 단열재를 차입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을 완전해소하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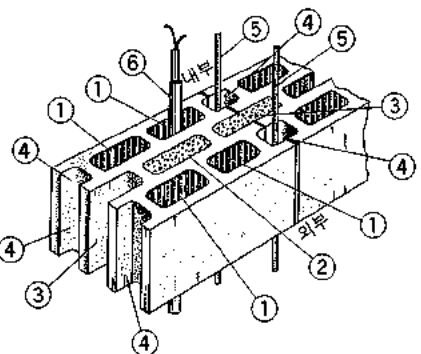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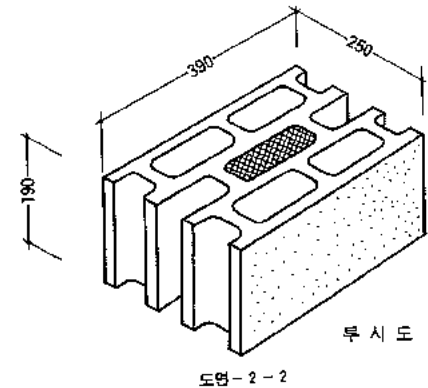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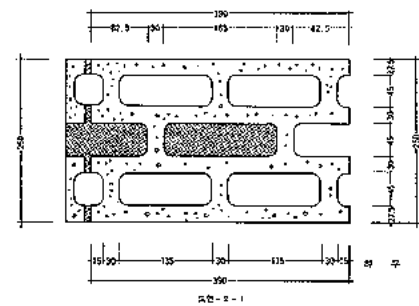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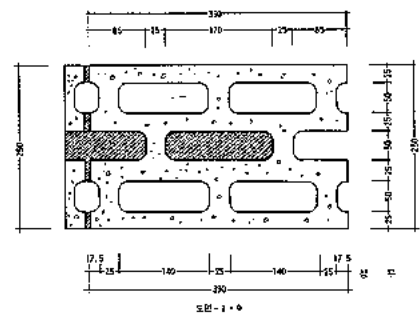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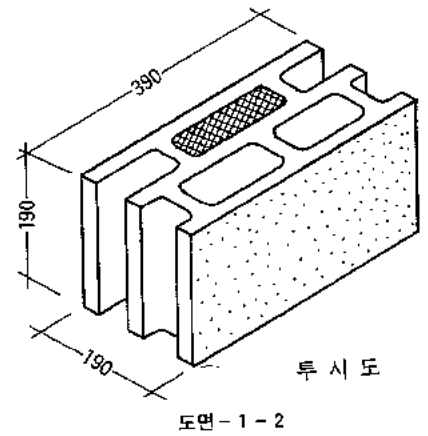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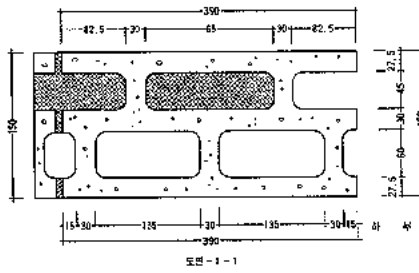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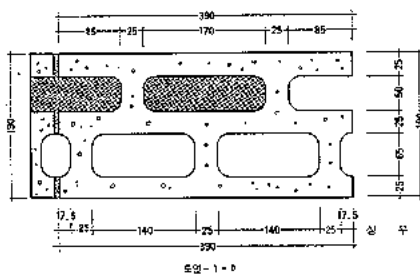
① 주름잡이공간
② 단열재차입공간
③ 이음새를완전차단공간
④ 보강철근
⑤ 전선관, 수도관 등 매설공간

8"형 - 2 중공 B.K

① 주름잡이공간
② 단열재차입공간
③ 이음새를완전차단공간
④ 보강철근
⑤ 전선관, 수도관 등 매설공간

10"형 - 3 중공 B.K





중, 3 층으로 공간을 형성하여 방한, 방서, 방습, 방음을 동시에 blocker 한개로 효과를 발생케 함으로서 물자절약과 공기단축 에너지절감, 나아가서 공해방지의 획기적인 공법으로서 일상생활과 관리유지면에서 막대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4. 규격 : 크기, 중량, 상부 단면적, 가격 등

5. 단열효과 81. 6. 17. 열 실험 효과
(단열재 없이 한것)

6. 압축강도

KS-8"=1.0 A-10"=1.46

B-8"=1.09 C-6"=1.02

단면적이 큼으로 KS-8" 보다 C-6"가 우수하다.

7. 에너지 브록 외부 벽체 두께로 인한 연면적 건평차의 비교

A형 330-250=80M/M

표 - 1

No.	SIZE	형	중량	상부 · 단면	가격	비고
KS	190 × 190 × 390	INCH	KG	cm ²	cm ²	원 강도
		8	18	6,365	(335)	283 1.0
A	250 × 190 × 390	10	26	9,310	(490)	408 1.46
B	190 × 190 × 390	8	20	6,954	(366)	314 1.09
C	160 × 190 × 390	6	18.5	6,533	(343)	292 1.02
비고	단, 가격은 81년도 기준(개발연도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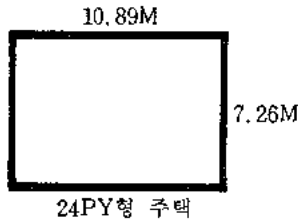
A형	→ 10"	→ 23° → 22.3° → 26° → 60° 이상	=6.50-7.30
B형	→ 8"	→ 23° → 24.5° → 60° 이상	=5.35-6.20
C형	→ 6"	→ 23.6° → 25.5° → 60° 이상	=6.20-6.50

$$10.89 \times 7.26 \times 0.3025 = 24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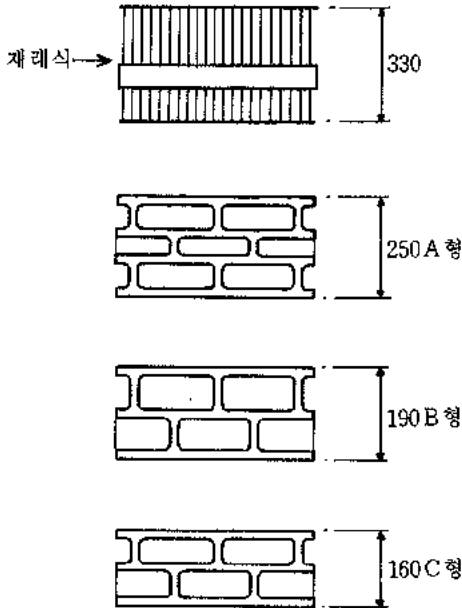
$$10.89 \times 2 + 7.26 \times 2 = 36.30M$$

$$36.30 \times 0.08 = 2.90M^2$$

$$2.90 \times 0.3025 = 0.88PY$$



B형 $330 - 190 = 140M/M$
 8" $36.30 \times 0.14 = 5.08M^2$
 $5.08 \times 0.3025 = 1.54PY$
 C형 $330 - 160 = 170M/M$
 6" $36.30 \times 0.17 = 5.81M^2$
 $5.81 \times 0.3025 = 1.76PY$
 ※ 단 벽돌공간 쌓기 - 24PY



B. K-각형 벽단면도

주택에 비교하면 A형 - 0.88PY
 B형 - 1.54PY, C형 - 1.76PY의
 공간면적 건평수가 더 생긴다.

8. 외부 벽면 공사비 비교표

(1) 평방 미터당 공사비 (M²)

- 벽돌공간쌓기 : 14,910원/M²
100.0%
- A형 - 10" : 10,952원/M²
73.0%
- B형 - 8" : 8,731원/M²
59.0%
- C형 - 6" : 8,476원/M²

57.0%

(2) 24PY형 주택 1동당 외부벽체
 공사비 비교 (81년도 단가)
 $36.3 \times 3.0 \times 60\% = 65M^2 \dots \dots$ 외부
 면적 / 동당

- 벽돌공간쌓기 : $65M^2 \times 14,910$
원 = 969,160원 100.0%
 - A형 - 10" : $65M^2 \times 10,952$
원 = 711,880원 73.0%
 - B형 - 8" : $65M^2 \times 8,731$
원 = 567,510원 59.0%
 - C형 - 6" : $65M^2 \times 8,476$
원 = 550,940원 57.0%
- A형 - 10" 969,150원 -
 711,880원 = 257,270원
 B형 - 8" 969,150원 -
 567,510원 = 401,640원
 C형 - 6" 969,150원 -
 550,940원 = 418,210원

(3) 연간 모든 건축규모를 전국적으로
 24PY형 1,000,000채 규모로
 보아

A형 - 10" 1,000,000동 ×
 257,270원 = 2,572억원

B형 - 8" 1,000,000 × 401,640

원 = 4,016억원

C형 - 6" 1,000,000 × 418,210
 원 = 4,182억원

10. 각종 콘크리트 브로크의 모양

11. 벽의 특징

그림# 1의 벽 "A"를 명목상으로
 8인치 되는 블록 벽이라 하면 또
 57% 고체 (SOLID) 블록 벽이라하면
 효과적인 벽두께는

$$\frac{57\% \times 7.62 \text{인치}}{12 \text{인치 (1피트)}} = 0.36 \text{ (피트)}$$

플랜지·웹 (Flange - Web) 교차부
 분의 종축전단압력이 "V" 라면

$$V = \frac{VAfY}{I_t}$$

V = 전체전단 Af = 플랜지 부분
 Y = 구획 중심축과 플랜지 중심
 간의 거리

I = 전체 관성 모우먼트

t = 웹 (Web)의 두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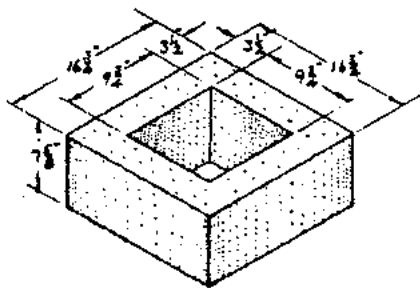
남북방향의 (4벽) 플랜지부분 =

= 플랜지의 길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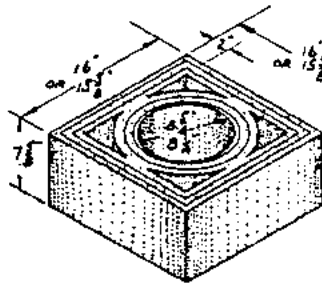
$$\frac{\text{블록두께 } 7.625 \text{인치}}{12 \text{ (1 피트)}} \times 6 \times 0.36$$

9. 장단점 비교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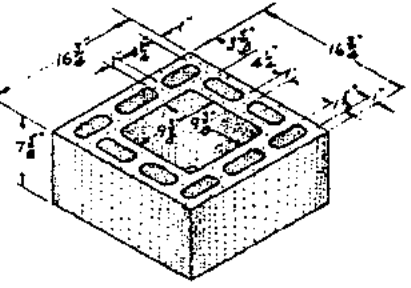
No.	적 요	장 점	단 점
1	에너지 이중 콘크리트 블럭	1. 방한, 방서, 방음, 방수를 동시에 방 지할 수 있는 구조 이다. 2. 단면적이 큰고로 압 축강도가 높다. 3. 공정이 약 40% 이 상 단축된다. 4. 기존블럭 제작기계 로 볼드만 교환하면 전국 어디서나 제작 가능하다. 5. 공간쌓기를 하지 않 은고로 결과 공사 비가 절감된다. 6. 에너지절약 40% 추정	1. 다공인 고로 운반시 주의를 요한다. 2. 파손율이 종래 블럭 에 비하여 높을 가 능성이 있다.
2	종래의 K.S 콘크리트 블럭	1. 파손율이 다소났다.	1. 방한, 방서, 방음, 방수가 저조하다. 2. 공간쌓기를 할때 공사비가 고가이다. 3. 단면적이 적어서 강도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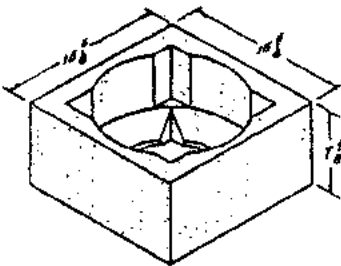
NO. 167
CHIM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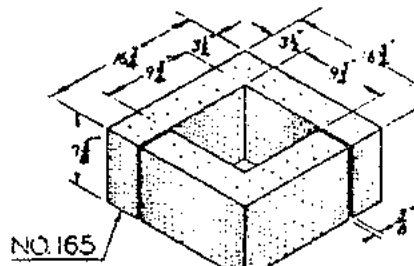
NO. 171
CHIM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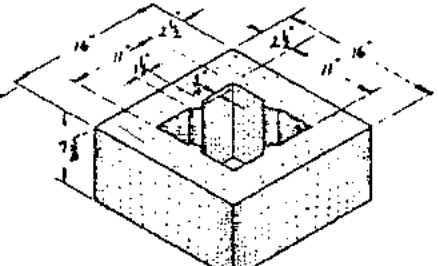
NO. 240
CHIM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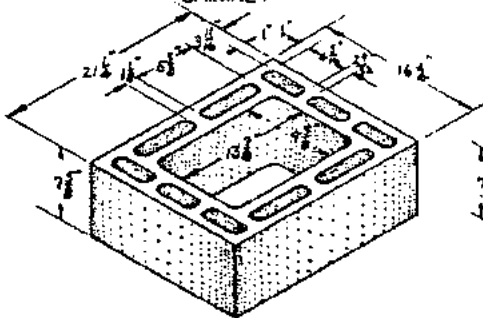
NO. 241
CHIM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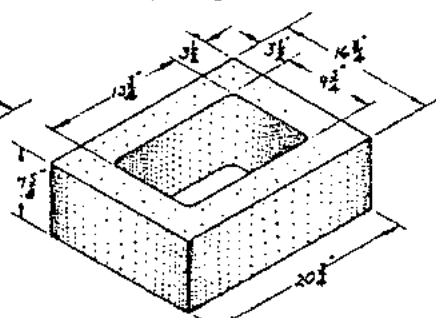
NO. 165
CHIM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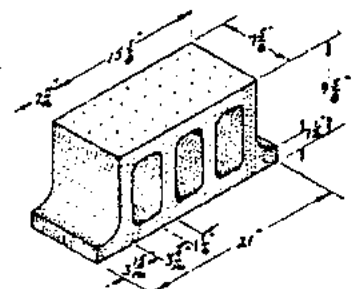
NO. 57
CHIM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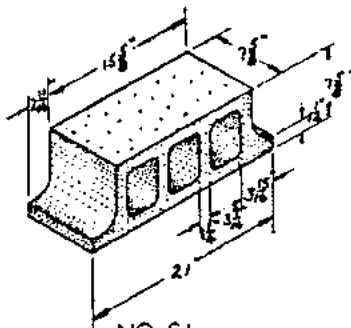
NO. 58
CHIM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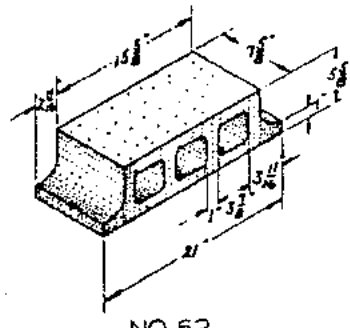
NO. 59
CHIM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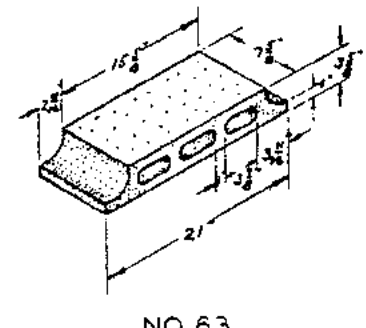
NO. 60
SOFFIT



NO. 61
SOFF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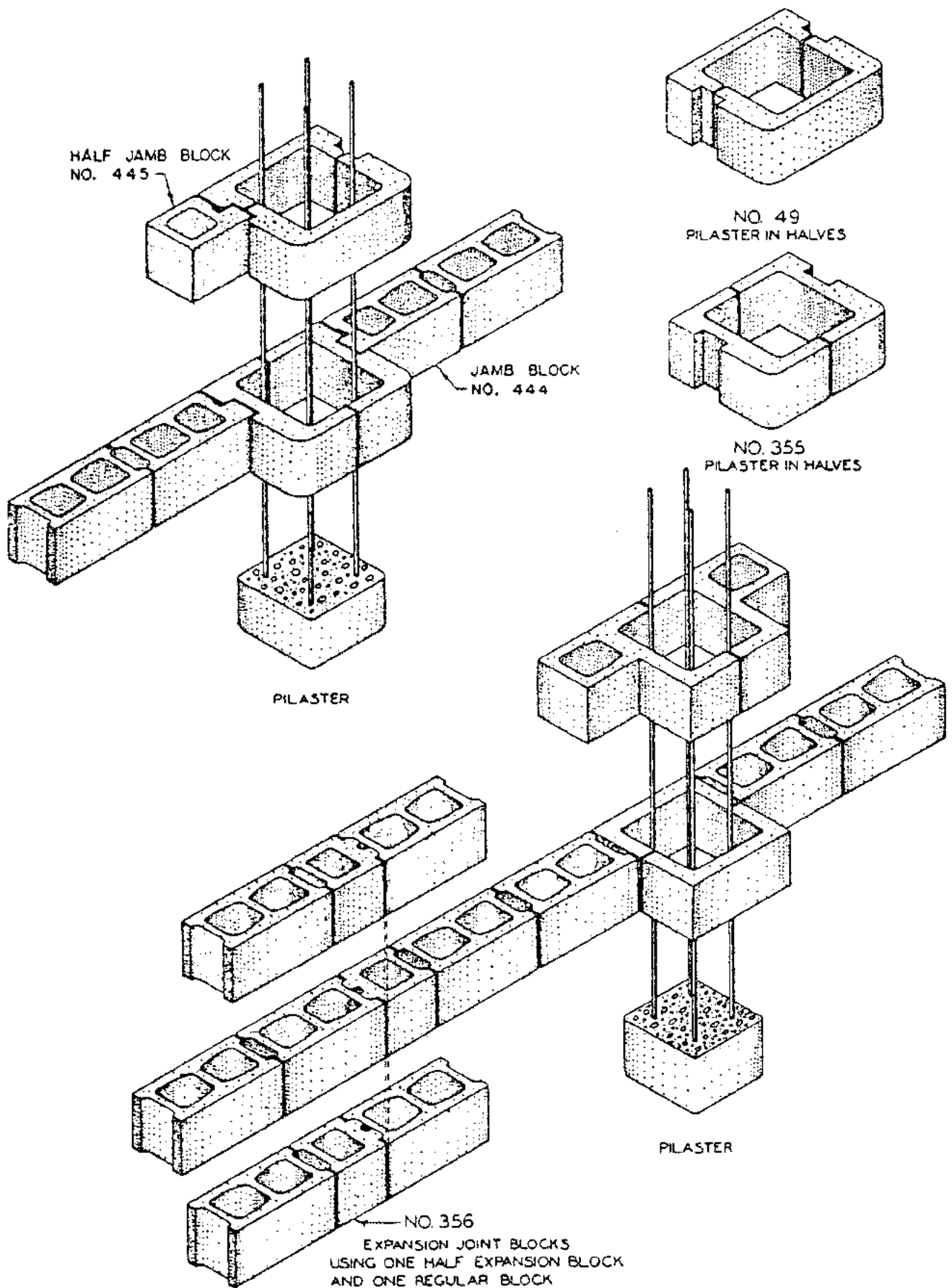


NO. 62
SOFF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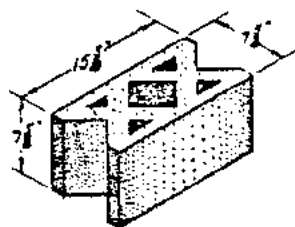


NO. 63
SOFF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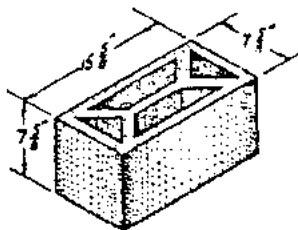
1. 각종 형태의 골돌출 등 B.K 1-0 상세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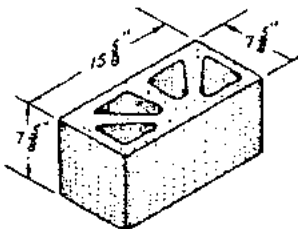
2. 철근차입 기둥과 벽연결 B.K 1-1 상세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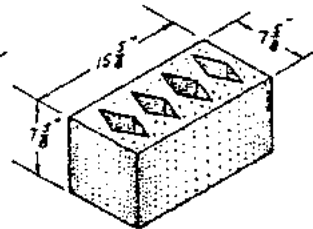
NO. 313
CROSS DIAM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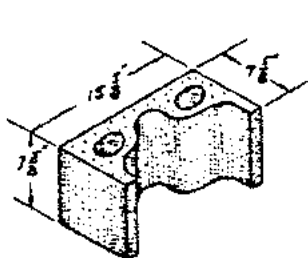
NO. 314
DOUBLE TRIA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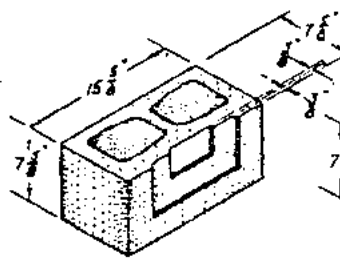
NO. 315
SUNBU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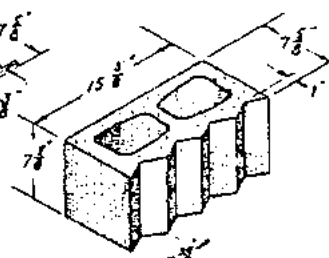
NO. 316
DIAM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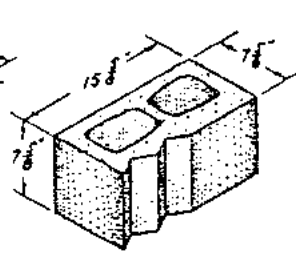
NO. 317
CL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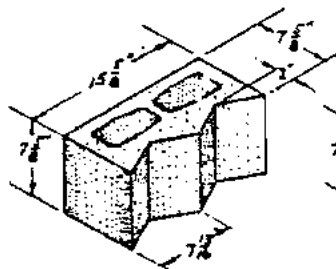
NO. 318
RECESSED SQU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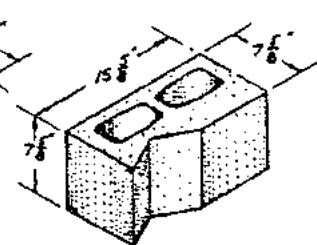
NO. 319
FLU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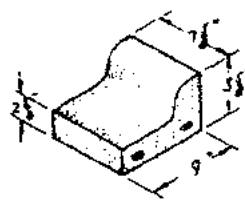
NO. 320
HALF FLU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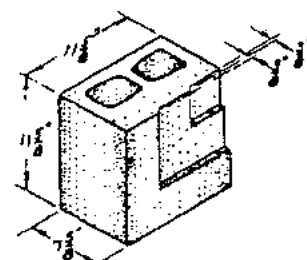
NO. 321
FLU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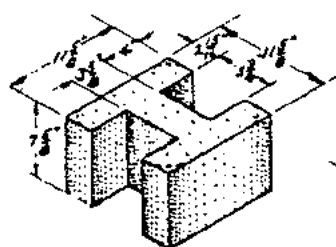
NO. 322
HALF FLU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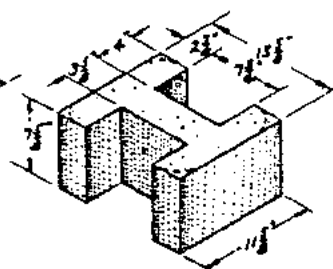
NO. 323
LAWN CUR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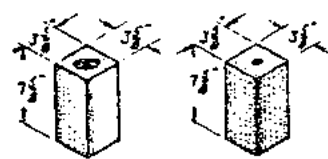
NO. 324
RECESSED SQUARE



NO. 25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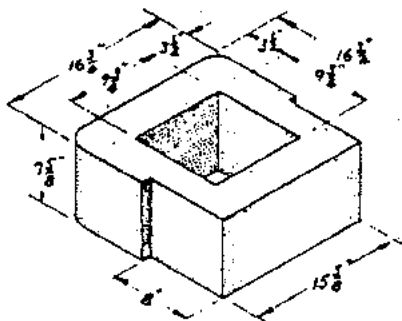
NO. 25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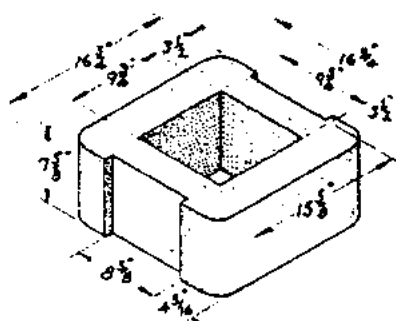
NO. 253 NO. 252
FENCE PO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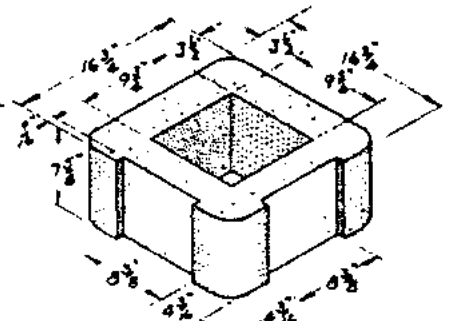
3. 각종 (헛살모양, 잔퇴가장자리, 벽에 기둥일부
튀어나오게 한 모양)등의 이형 B. K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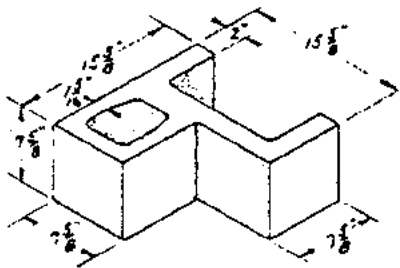
NO. 169
PILA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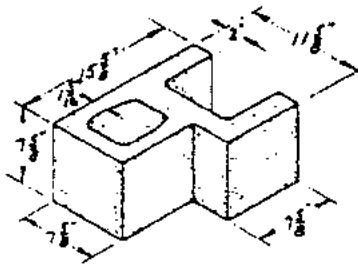
NO. 168
PILA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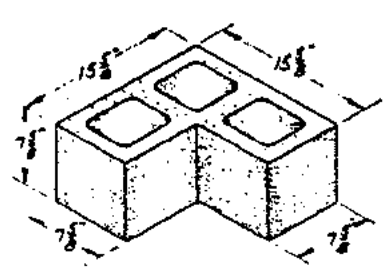
NO. 170
CORNER PILA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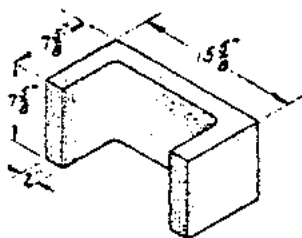
NO. 40
H PILA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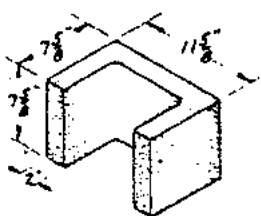
NO. 41
BANJO PILA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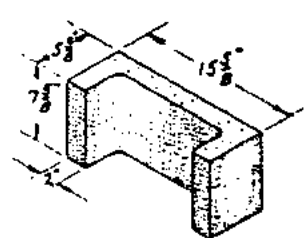
NO. 42
H PILA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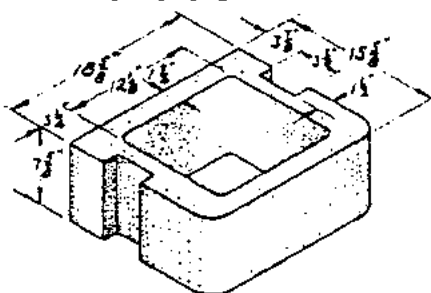
NO. 43
C PILA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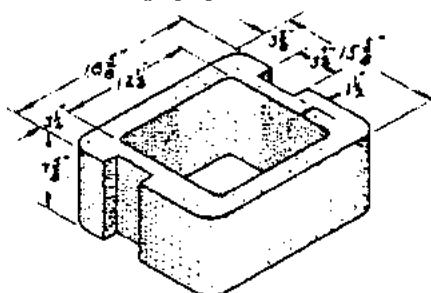
NO. 44
C PILA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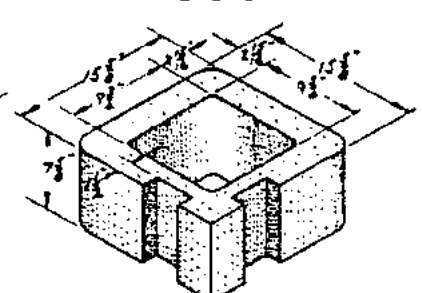
NO. 45
C PILASTER



NO. 46
PILASTER



NO. 47
PILASTER



NO. 48
CORNER PILASTER

피트(벽두께)

$$= 3.81 \text{ 피트} \times 0.36 \text{ 피트}$$

$$= 1.37 \text{ ft}^2 \times 0.18 = 0.24$$

웹부분 = 벽두께 0.36 피트 × 남북 벽의 길이 25 피트

$$= 0.36 \times 25 = 9.00 \text{ ft}^2 \times 12.5 = 112.5$$

"A" 벽의 넓이 (단면적) = 10.37 ft²

$$AX = 112.7 \text{ ft}^3$$

$$X = 10.87 \text{ ft}$$

$$\text{관성 모멘트} = \frac{1}{3} \times 9.00 (2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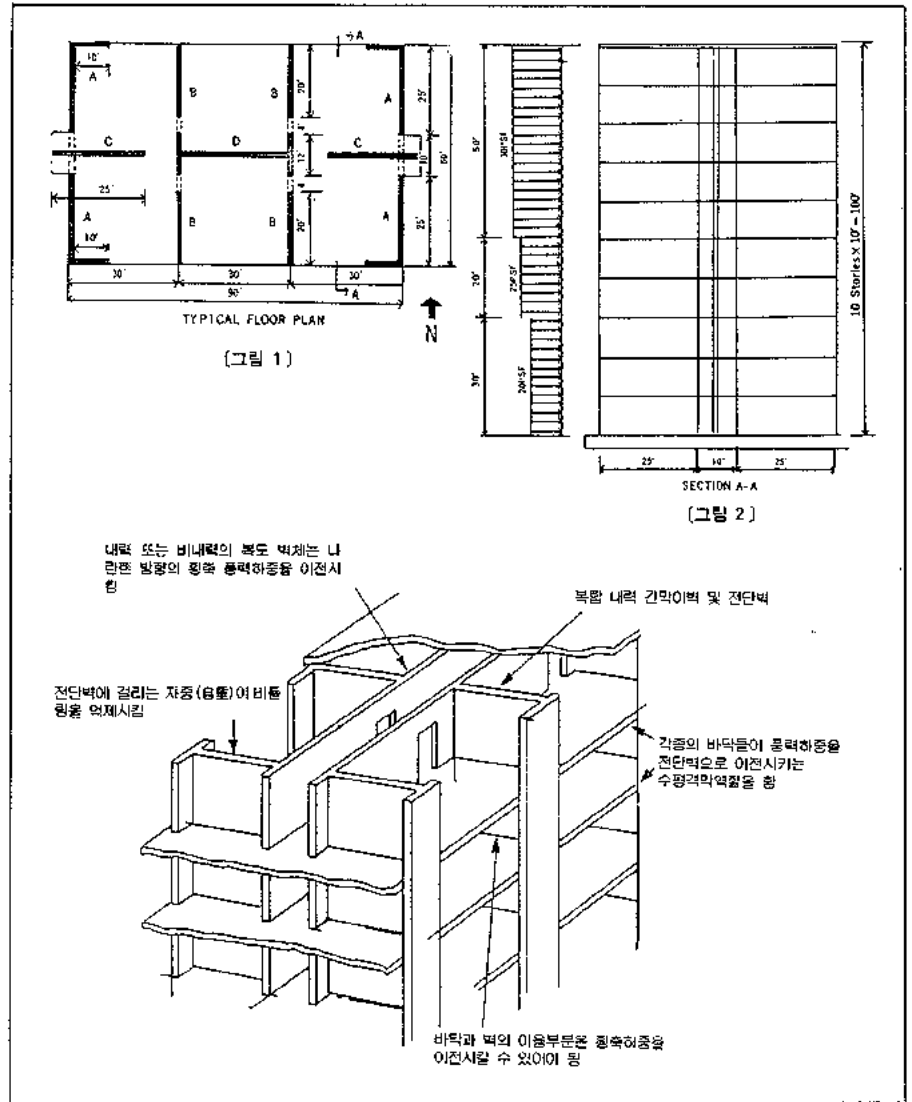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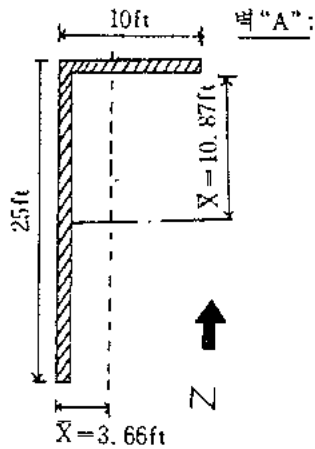
$$= 1875.0$$

$$= \frac{1}{3} \times 1.37 \times (0.36)^2 = \frac{0.06}{1.875}$$

$$-AX^2 = -\frac{1225}{650 \text{ ft}^4} = I$$

$$S = I/C = 650 / (25 - 10.87)$$

$$= 46 \text{ ft}^3$$



12. 상대강도 방정식

$$\text{굴곡편향 } \Delta f = \frac{PH^3}{3EI} \text{ 이고}$$

P = 고찰하는 층에 걸린 하중

H = 기초바닥에서 특정한 층의 높이

$$E = 1,000 \text{ f'm}$$

$$I = \frac{tL^3}{12} \text{ 직각면에서}$$

L = 벽의 길이

t = 벽의 두께라면

$$\Delta f = \frac{4PH^3}{1,000 \text{ f'm} tL^3} = \frac{0.004PH^3}{\text{f'm} tL^3}$$

$$\text{전단편향 } \Delta \infty = \frac{6PH}{10EvA} \text{ 이고}$$

$$\text{직각횡단면에서 } Ev = 400 \text{ f'm}$$

$$A = Lt \text{ 이면}$$

$$\Delta \infty = \frac{0.6}{400 \text{ f'm} Lt} = \frac{0.0015PH}{\text{f'm} Lt}$$

$$\text{전체편향 } \Delta T = \Delta f + \Delta \infty$$

$$\Delta T = \frac{0.004PH^3}{\text{f'm} tL^3} + \frac{0.0015PH}{\text{f'm} Lt}$$

$$\Delta T = \frac{P}{\text{f'm} t} \left(0.004 \frac{H^3}{L^3} + 0.0015 \frac{H}{L} \right)$$

$$\text{전체강도} = \sum \frac{1}{\Delta T}$$

$$\text{벽의 강도} = \frac{1}{\Delta T}$$

13. 설계의 실례와 접근방법에 따른 비교

콘크리트 블록 조적조 구조물의 실제의 횡하중 분산의 예로 그림# 1에 있는 벽 설계는 10층 건물이며 각 층높이는 10피트씩이고 단단한 격막역할을 하는 철근보강 콘크리트바닥 슬라브를 가진 건물로서 횡하중이 그림# 2와 같이 적용 됐다고 할 때 도표# 1은 건물의 남북 방향상의 횡하중력을 말하며, 관성 모멘트의 계산은 각 개 상관된 벽에대한 분산 퍼센트(%)를 보여주는 도표# 2와 같이 남북벽으로 분산된 횡하중의 비율을 산출해 냈다. 도표# 3과 도표# 4는 전술한 두가지 접근방법에 따라 계산한 횡하중들의 비교표이다.

도표#1 남북방향에서의 건물 횡하중압력

층수	각층의 횡하중 압력 (Kips)	각층의 전체 전단 (Kips)	각층의 전 체 모멘트 (ft-Kips)
지붕	13.5		0
9	27.0	13.5	135
8	27.0	40.5	540
7	27.0	67.5	1,215
6	27.0	94.5	2,160
5	24.8	121.5	3,375
4	22.5	146.3	4,838
3	20.3	168.8	6,525
2	18.0	189.0	8,415
1	18.0	207.0	10,483
지상		225.0	12,735

도표# 2 남북방향에 횡하중이 분산된 백분율 (%)

벽 (구분)	관성모 멘트 (ft ⁴)	전체관성 모멘트 (ΣI, ft ⁴)	벽에 대한 하 중의 백분율 (1/ΣI) %
A	650 × 4	= 2,600	14.2
B	420 × 4	= 1,680	9.2
D	280 × 1	= 280	6.1

14. 격막작용 (Diaphragm action)

지붕이나 바닥격막(floor Diaphragm)의 작용은 횡축압력을 전단벽으로 분산시키는데 영향을 주는데 격막의 단단한 정도를 구분하여 단단한것, 덜 단단한것, 신축성 있는것의 경우를 나누어 실험해 본다면 단단한 격막은 횡축압력을 종축전단벽으로 상대강도의 비율정도에 따라서 분산시키며 덜 단단한 격막은 굽혀지기 쉬운 기둥위에서 다소 강하고 오히려 마디없이 쭉 곧은 들보들을 얹어 놓은 상태와 유사하고 역시 기둥의 반응은 격막과 종축억제부분의 상대강도에 따라 작용한다. 신축성 있는 격막에 굽혀지 않는 기둥인 경우는 격막은 횡축압력을 격막작용 및 전단벽을 통

해서 해당지역 기초바닥위에 있는 종축억제부위로 분산시키게 된다.

15. 바닥체제 (Floor system)

로드 베어링 콘크리트 블럭조적조 고층건물 건축이 60년대 중반부터 놀라운 속도로 증가되어오게 된데에는 현대식 구조설계 기준의 출현과 건축의 신축성, 경제성의 요인이 크게 작용했으며 다양한 외장용 블럭들의 개발로 인하여 구조재 자체로 내·외장재의 기능을 겸할 수 있었고 콘크리트 기술 및 혼화재의 발달, 그리고 콘크리트 블럭 제조 기계의 발달이 또한 콘크리트 블럭조적조 건축의 급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공법에 의한 설계는 건물 각

층의 바닥, 지붕과 벽돌의 복합구조작용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계기준에 바닥체제의 격막작용을 가정하고 바닥재를 사전 제작해서 즉석에서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놓으므로 해서 경제성과 신축성을 취하는데 벽의 조적 또한 양생이 이미 75%정도 돼 있는 블럭을 가지고 하는 만큼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형틀작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보다 훨씬 빠르며 특히 내부 제반작업을 바로 뒤따라 올라가며 할 수 있어서 전체공정이 계획적이고도 신속히 이루어진다.

이러한 로드 베어링 콘크리트 블럭조적조 건물의 바닥체제는 주로 두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從軸靜荷重 및 從軸動荷重을 지지벽(Bearing

도표 # 3 관성모우멘트 방법에 의한 전단벽에의 횡축압력 분산

층 수	벽 "A"의 남북방향				벽 "B"의 남북방향				벽 "D"의 남북방향			
	벽의 전체 횡축하중 백분율 (%)	각층의 횡축압력 (Kips)	전체전단 (Kips)	모우멘트 (ft-Kips)	벽의 전체 횡축하중 백분율 (%)	각층의 횡축압력 (Kips)	전체전단 (Kips)	모우멘트 (ft-Kips)	벽의 전체 횡축하중 백분율 (%)	각층의 횡축압력 (Kips)	전체전단 (Kips)	모우멘트 (ft-Kips)
Roof	14.2	1.92		0	9.2	1.24		0	6.1	0.82		0
9	14.2	3.83	1.92	19.2	9.2	2.48	1.24	12.4	6.1	1.65	0.82	8.2
8	14.2	3.83	5.75	76.7	9.2	2.48	3.72	49.7	6.1	1.65	2.47	33.0
7	14.2	3.83	9.58	172.5	9.2	2.48	6.20	111.8	6.1	1.65	4.12	74.1
6	14.2	3.83	13.41	306.7	9.2	2.48	8.68	198.7	6.1	1.65	5.77	131.8
5	14.2	3.52	17.24	479.3	9.2	2.28	11.16	310.5	6.1	1.51	7.42	205.9
4	14.2	3.20	20.76	686.9	9.2	2.07	13.44	445.1	6.1	1.37	8.93	295.1
3	14.2	2.88	23.96	926.6	9.2	1.86	15.51	600.3	6.1	1.24	10.30	398.1
2	14.2	2.56	26.84	1488.9	9.2	1.66	17.37	774.2	6.1	1.10	11.54	513.4
Ground			31.96	1808.4	9.2	1.66	19.03	964.6	6.1	1.10	12.64	639.7
							20.69	1171.6			13.74	776.9

도표 # 4 상대강도 방법에 의한 전단벽에의 횡축압력 분산

층 수	벽 "A"의 남북방향				벽 "B"의 남북방향				벽 "D"의 남북방향			
	벽의 전체 횡축하중 백분율 (%)	각층의 횡축압력 (Kips)	전체전단 (Kips)	모우멘트 (ft-Kips)	벽의 전체 횡축하중 백분율 (%)	각층의 횡축압력 (Kips)	전체전단 (Kips)	모우멘트 (ft-Kips)	벽의 전체 횡축하중 백분율 (%)	각층의 횡축압력 (Kips)	전체전단 (Kips)	모우멘트 (ft-Kips)
Roof	14.0	1.89		0	9.4	1.27		0	6.4	0.87		0
9	13.9	3.76	1.89	18.90	9.5	2.55	1.27	12.7	6.5	1.75	0.87	8.7
8	13.8	3.74	5.65	75.40	9.5	2.57	3.82	50.9	6.6	1.78	2.62	34.9
7	13.7	3.70	9.39	169.30	9.6	2.59	6.39	114.8	6.7	1.81	4.40	78.9
6	13.6	3.66	13.09	467.7	9.7	2.62	8.98	204.6	6.9	1.86	6.21	141.0
5	13.3	3.29	16.75	467.7	9.9	2.45	11.60	320.6	7.2	1.78	8.07	221.7
4	12.9	2.90	20.04	668.1	10.1	2.29	14.05	461.1	7.7	1.74	9.85	320.2
3	12.2	2.47	22.94	897.5	10.6	2.15	16.34	624.5	8.7	1.76	11.59	436.1
2	11.1	2.00	25.41	1153.6	11.2	2.02	18.49	809.4	10.8	1.95	13.35	569.6
1	9.4	1.69	27.41	1425.7	11.7	2.10	20.51	1014.5	15.7	2.83	15.30	722.6
Ground			29.10	1716.7			22.61	1240.6			18.13	903.9

□ 참고자료 : NCMA TEK 41.61A, 66
PICTORIAL MAGAZINE

Walls)으로 이전하는 일과 격막 작용을 하여 橫軸荷重을 벽을 통해서 기초바닥으로 전달하는 것인데 바닥체제가 단단할수록 횡축하중을 벽으로 더욱 잘 분산시킨다. 실제로 강한 바람이나 지진에 의한 진동 등으로부터 횡축하중이 가해지면 횡축하중의 방향에 나란히 놓인 전단벽(Shear Walls)에 의하여 저지되며 굴곡 저항에 의해 전단벽은 횡축하중을 기초바닥으로 이전하게 된다.

바닥체제는 철재나 콘크리트로 된 조이스트(Joist)들의 사이에 블록을 끼워넣는 경우도 있고 미리 블록을 조립해서 만든 판재(板材)를 사용하거나 P.C슬라브 또는 스펀크리트 판별을 쓰거나 현장에서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하기도 하며 보통 크레인이 사용된다.

16. 횡축압력의 분산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에 있어서 횡축하중을 억제하는 벽으로 압력을 분산 시키는데는 몇가지 분석 방법이 있기는 하나 보다 정밀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원계산이 복잡하여 손으로 해내기에는 시간 또한 많이 소요되므로 오늘날처럼 컴퓨터의 보급이 돼있는 상황에서라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하간 간단한 분석 방법중에 대략적인 방법도 있다. 횡축하중의 억제체제는 각 층의 바닥격막, 전단벽, 기초바닥 이렇게 세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강한 바람에 의한 풍력(風力)이나 지진진동에 의한 횡축하중은 외력에 의하여 바닥격막으로 보내진다. 즉, 질량의 관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진동하중은 격막 또는 질량의 급속한 고정에 의하여 격막에 도입된 하중에서 시작되며 그 힘은 진동하중이며 바닥격막을 통해 기초바닥에 고정된 전단벽 억제체부분으로 분산되고 만다. 횡축하중의 억제체제 각 부분의 특성들은 하중이 구조물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좌우하고 있다. 로드 베어링 콘크리트 조적조 구조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단한 격막들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나 제자리에 타설한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으며 단단한 격막의 평면위에서의 편향은 극히 작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격막의 竝進 또는 회전운동이 한데 얹혀 발생하는데 격막이 단단한 전단벽에 비하여 평면외의 방향에서는 꽤 탄력적이다. 전단벽들간의 굴곡결합은 보통 무시되고 있으며 전단벽은 기초바닥에 대하여 외팔보(Cantilever)역할을 하는 종축들보라고 볼 수 있다.

전단벽은 각 층에서 격막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층의 모든 벽들은 다 똑같이 偏向하여 전단벽에 의한 직접적인 횡축하중의 분할은 각벽의 상대 강도에 따라 좌우된다. 전단벽의 기초에서 굴곡모우멘트는 넓은 기초나 매트기초에 의하여 억제되며 바닥기초의 설계에 관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여기서 하지 않기로하고 다만 벽들이 기초바닥에 고정돼 있다 고만 가정해두기로 한다. 사실 벽의 편향과 회전에 관해서 기초바닥 높이에서는 무시해도 된다. 이상과 같은 횡축하중 억제체제의 특징들이 주어지면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힘(荷重)의 流動

을 分散시키기 위한 구조적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1. 횡축하중 아래서의 구조물의 편향 형태는 한쪽끝이 고정된 채 각층 높이에 위치한 일련의 집중하중이 걸린 종축 외팔보의 역할을 하는 돌보와도 같다.

2. 직접적인 횡축하중에 의한 편향은 모든 층의 어느 벽에서나 모두 같다.

3. 어느 층에서도 전체 횡축하중의 몫이 벽의 상대강도에 따라서 각 벽들에 할당된다. 벽의 강도는 벽 편향에 반비례하는데 정밀한 벽 편향을 계산하려면 전단 편향과 굴곡편향을 구조물의 각 층에 집중된 하중으로부터 산출해야하며 하중은 각 층에서의 편향이 서로 같아 질때까지 재 분배된다. 결국 이런식의 접근 방법에는 몇번의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도움이 있어야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목적에 합당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두가지 대략적인 방법이 있는데 두가지 모두 손으로 하기에 좋으며 상대 강도 방법과 만성 모우멘트 방법이다. 상대강도 방법은 각층의 벽전단편향 및 굴곡편향을 계산해야 하지만 고려중인 층에서의 집중 하중만을 고찰한다. 관성 모우멘트 방법은 벽들의 횡단면의 관성 모우멘트(Moment of Inertia)에 근거한 횡축하중을 벽의 강도에 비례시킨다. 이 방법에서는 전단편향은 무시하며, 외관비율 즉 벽의 높이와 길이의 비율이 4:1을 넘는 경우에 적용할만하다.

新刊案内

建築士 建築技師 試験對備

最新建築綜合問題解法

著 者 張 起 仁

發行處 圖書 技 文 社

定 價 6,000원

공사감독관복무규정개정령

건설부훈령 제683호/85. 2. 23.

공사감독관복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부 및 그 소속 기관과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감독관복무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독관”이라함은 당해공사를 발주한 관서의장(이하 “소속 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라함은 감리계약에 의하여 제3호의 감리자가 당해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그의 전문지식·기술·경험등을 활용하여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정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가 또는 시공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지도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리자”라함은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공사”라함은 감리를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조 (서류의 정리·비치) 감독관은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의거 공사를 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표를 작성 또는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1. 서 류

가. 공사감독일지 (제1호서식)

나. 발생품정리부 (제2호서식)

2. 도 표

가. 공정표

나. 천후표, 온도표, 조위표, 수위표 등

다. 선정 및 관리시험표

3.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제5조 (공사표지판등의 설치)

① 공사현장의 시점·종점에는 공사표지판(제3호서식)을 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선형공사일 경우는 적당한 간격으로 거리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는 공사점측에 필요한 수준점과 양수표 기타 필요한 것을 공사기간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공사평면도 또는 부근평면약도에 표시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감독관의 인계인수) 감독관 교체의 명을 받았을 때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 기구, 자재 및 공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전후임자 연서로 인계인수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시공자의 현장기술관리인등 교체) ① 감독관은 시공자의 현장 기술관리인(이하 “현장관리인”이라 한다)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현장관리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허락할 수 있다.

제8조 (지시사항처리) 감독관은 시공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는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지시에 대한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시공계획검토) ① 감독관은 공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

2. 시공자의 현장 기술자 확보 사항

3. 기타 공사계획에 관련한 사항

② 감독관은 공사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전에 이에 필요한 시공상세도(설계도면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다)를 제출케하여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공확인) ① 감독관은 제9조 제1항의 세부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토록 감독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이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관리인으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토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감독관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계획이나 PERT/CPM공정자료 또는 전산처리된 공정자료등을 포함한다)

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 (매몰부분등 검사) ① 감독관은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후 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전에 현장관리인으로부터 그 부분의 촬영계획 등 증빙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 1 항의 증빙계획에 따라 당해 부분에 대하여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이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다만, 당해 증빙계획만으로 시공상태를 증빙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타의 부분에 대하여도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노무자수기록) 감독관은 매일 노무자수 및 장비투입현황을 현장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재시험등) ① 감독관은 사용자재 및 공사시공상황을 검사함에 있어서 시방서 기타 계약관계 서류에 특별히 정한것 이외에는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건설부훈령)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 1 항의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과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현장관리시험의 실시를 위한 시험시설과 시험요원의 확보상황을 공사진행에 따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자재시험을 하여야 할 경우에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시험에 대하여는 공공시험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공공시험기관에서의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한다.

제14조 (자재관리) 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출급한 판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적정하게 보관하여 관리토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공사시행결과 발생한

자재에 대하여는 발생품 정리부에 기재하고 제 4 호서식에 의하여 발생시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관리 및 비상조치)

① 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안전관리 업무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계획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2. 시공자 또는 현장관리인이 계속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않을 때.

3.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4.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또는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제16조 (시공자 제출서류 처리) 감독관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문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2. 판급자재 입체사용 신청

3. 준공기한의 연기원

4. 준공검사원

5.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6. 기타 시공상 필요한 보고 또는 신청

제17조 (각종보고) 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상황을 익월 3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 3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공 정 (제 5 호서식)

2. 판급자재 수불상황 (제6호서식)

3. 불법하도급 거래 또는 하도급위반에 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

항에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경우

다.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제18조 (관유물 멸실에 대한 변상) 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멸실 또는 손상한 때에는 그 상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시공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지정한 기한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 금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설계변경) 감독관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사현장정리) 감독관은 준공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용제시설의 철거, 자재반출, 토취장 및 하상원상복구등 공사현장을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잉여자재보고) 공사준공후 판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제 4 호서식)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토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사서류 제출) 감독관은 그 임무가 완료될 때에는 제 4 조의 서류 및 제11조의 검사사항과 사진첩을 작성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감리공사감독) ① 감리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감독관은 감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감리가 계약대로 되고 있는지의 확인

2. 감리자와 시공자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 조정

3. 공사감리 일지(제1호서식)의 수시 확인

4. 발주자 요청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② 감독관은 설계변경, 공법의 변경, 기술적 문제 해결 및 기성고사 정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감리자로 하여금 기술적 검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적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건설공사 시공감리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의한 상주 기술자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당해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감리자와 협의·강구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실사공정이 계획공정에 현저히 부진되고 있는 경우

3. 제18조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4. 장비 또는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공급되지 않아 공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24조 (감리자와 중복업무) ① 감리공사에 있어서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에 규정한 감독관의 업무는 감리자가 이를 수

행하도록 하며, 기타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업무가 감리계약상의 감리자의 업무인 경우에는 감독관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감리자가 행한 업무를 확인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직접 보고하거나 또는 감독관을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부분감리공사에서의 준용) 공사의 부분에 대하여 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부분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부훈령 제384호/85. 3. 4.

제5조의4 제1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토지등 평가자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대상건물에 대하여는 토지등 평가자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용역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

제5조의8 중 “사업계획고시일”을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의 고시 또는 공고(이하 “고시등”이라 한다)가 있는 날”로 한다.

제5조의9 및 제5조의10을 각각 제5조의10 및 제5조의11로 하고, 제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9 (주거용건물 등의 보상기준) 주거용건물(주거용건물에 딸린 축사·퇴비사·변소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당해 주거용 건물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제

획의 고시등이 있는날 현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건물의 평가액과, 당해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의 보상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가 자기소유외의 토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 제1호중 “계획이 고시등이 있는 후”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관계법령에 따른 결정·고시와 공고일”을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는 날”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관계법령에 따른 결정고시, 공고 또는 승인일”을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는 날”로 하며, 동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농비를 지급받는 농, 어민으로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

업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의 료에 해당하는 3월분의 평균생계비에서 당해 영업보상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제30조제1항 본문중 “관계법령에 따른 결정고시나 공고일”을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는 날”로 한다.

{별표2}의 비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반차량은 4톤트럭을 기준으로 한다.

2. 한 주택에서 여러세대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점유면적에 따라 등급별 주택건평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金炯石 / 49. 3. 12 / 전남 /
인천공업전문대 / 명성조일합동
건축 / 중구흥인동116 / 253-48
00



□吳漢鎭 / 53. 3. 25 / 충북 /
대전개방대학건축과 / 대전종합
건축연구소 / 대전시중구대흥동
211 / 254-1222



□朴善洪 / 54. 5. 5 / 서울 /
경기공업전문대 / 한주건축설계
사무소 / 인천시남구간석1동558
-1 / 423-7575



□鄭鍾秀 / 54. 12. 1 / 부산 /
부산공고건축과 / 신조형건축사
사무소 / 부산직할시중구광복동
2가22-2 / 23-1804



□鄭富教 / 55. 12. 2 / 서울 /
서울공대건축학과 / (주)대호건
축사사무소 / 경기도이천군이전
읍창전리162-3 / 2-6741

〈전 회 원〉



□李丙圭 / 56. 4. 29 / 전북 /
전북대건축공학과 / 대한주택공
사 / 서울시강남구논현동254/54
5-2101

會誌는
영원한
우리의 기록이며
유일한 홍보매체
입니다.



■ 회원작품 카드 접수

- 별첨 요청에 의한 작품카드를 항상 접수합니다.
- 접수된 작품은 회지에도 게재되고, 유관 단
체(기관)의 건축상 추천자료가 됩니다.
- 자료실을 통해 영구 보존됩니다.

〈작품카드 용지는 소속지부에서 별도 배부합니다.〉

■ 대학의 광장 〈이야기 좀 합시다〉 고정란 신설

- 회원업무와 관련된 좋은일 나쁜일
- 관계법과 연관된 각종 의견
- 협회에 대한 의견
- 건축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
- 그 밖에 하고 싶은 이야기

〈紙上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나아가 보다 발전적
인 길을 모색합니다. / 원고길이: 200자원고자 10매
정도〉

■ 그밖에 원고도 부탁드립니다.

- 각종 문예 원고(수상·풍토 등)
- 논문·자료 등

〈테마에 제한 없습니다.〉

□ 보낼곳 /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산 61-3

會員動靜

변경 □서울지부 = △김진규회원 / 동서건축사사무소 / 동대문구 신설동103-6 / 295-7391

△이종욱회원 / 예진건축사사무소 / 동대문구신설동103-6 / 253-1203

△정원희회원 / 동광건축 / 동대문구 신설동93-16 / 234-7100

△백광윤회원 / 삼인합동건축 / 중구 다동131 / 776-4429

△임도생회원 / 삼인합동건축 / 중구 다동131 / 776-4434

△김관현회원 / 강동건축 / 강동구성 내동322-7 / 477-1641

△이형호회원 / 이형호건축연구소 / 영등포구여의도동44-35 / 784-2190

△채희선회원 / 대원건축연구소 / 강남구논현동158-1 / 541-3771

△이준의회원 / 진흥건축설계사무소 / 동작구사당동147-79 / 599-6754

△신명수회원 / 세화건축설계사무소 / 중구홍인동2-35 / 233-3234

△이명환회원 / 풍진건축연구소 / 관악구봉천7동1596-1 / 886-4149

△최영집 · 한시준회원 / 건축연구소 탐 / 종로구연지동1-24 / 762-3721

△신무성 · 이규찬회원 / (주)서한건축연구소 / 강남구청담동134-20 / 546-5381~2

△이재철회원 / 제일건축사사무소 / 강서구화곡5동998-5 / 696-1785

△변중환회원 / 공간건축연구소 / 영등포구대림동911-15 / 832-2842

△안선구회원 / (주)동일건축설계 / 강남구논현동241-6 / 545-0757

△김한일 · 심정행회원 / 동도건축설계사무소 / 강남구서초동233/553-3334

□부산지부 = △김석원회원 / 신후건축설계사무소 / 동래구민락동751-7 / 524-0625

△류광홍회원 / 광장건축설계사무소 / 중구중앙동4가77-3 / 45-3409

△한기중회원 / 한창건축설계사무소 / 서구부용동1가62-6 / 244-5028

△김영배회원 / 김영배건축설계사무소 / 중구중앙동4가80-11 / 462-6767

△박기중회원 / 내외건축설계사무소 / 중구중앙동4가80-11 / 463-8002

△김형석회원 / 성진건축설계사무소 / 북구구포동1123-4 / 333-2921

△정환호회원 / 미래건축설계사무소 / 부산진구부전동400-11 / 804-2276~8

△고충영회원 / 신광건축설계사무소 / 동래구명륜동344-1 / 53-3191

△김종국회원 / 신광건축설계사무소 / 동래구명륜동344-1 / 54-1550

□대구지부 = △김상웅회원 / 서일합동건축사무소 / 서구평리동1072-23 / 54-9861

□경기자부 = △김봉선회원 / 유일정우합동종합건축 / 안양동511-8 / 2-2028

△심태섭회원 / 유일정우합동종합건축 / 안양동511-8 / 3-2069

△이석재회원 / 성아건축설계 / 부천시시립곡동93-1 / 652-3752

△손제석회원 / 지성건축연구소 / 수원시교동201-3 / 43-5444

△안호일회원 / 협동건축설계 / 시흥군소래읍신천리382-9 / 653-0917

△김중권회원 / 파주건축연구소 / 파주군파주읍아동리338 / 2-2410

△윤 전회원 / 대성건축연구소 / 남양주군구리읍수택리424-1 / 2-8209

□강원지부 = △권혁조회원 / 원건축설계사무소 / 영월군영월읍영흥리956-7 / 2-3937

□충남지부 = △정은섭회원 / 정은섭건축연구소 / 대전시중구대흥동480

△김종민회원 / 새건축설계사무소 / 대전시중구대흥동479-9

□전남지부 = △최춘화회원 / 성림건축설계사무소 / 광주시동구대인동312-10

□경북지부 = △최병창회원 / 신도건축설계사무소 / 예천군예천읍노하동67-28 / 3335

전입 □서울지부 = △이성규회원 / 새한건축연구소 / 중구인현1가91-1 / 267-4333 / 85. 1. 29 / 경기

□경기지부 = △이정복회원 / 이정복건축사사무소 / 시흥군소래읍대야리

379-6 / 85. 2. 14 / 서울

□충북지부 = △이금렬회원 / 미동건축설계사무소 / 단양군단양읍하방1구10반117-17 / 85. 1. 25 / 서울

전출 □서울지부 = △서남식회원 / 태진 · 태아합동건축 / 중구정동15-5 / 85. 2. 1 / 경기송탄시신장2동324-23

△이정복회원 / 한신건축연구소 / 관악구신림동412-455 / 85. 2. 1 / 경기시흥군소래읍대야리379-6

△홍광철회원 / 대륙건축설계사무소 / 관악구봉천4동1590-7 / 85. 2. 7 / 경기도광명시철산동466-3

□경기지부 = △서상호회원 / (주)신일건축설계사무소 / 수원시교동132-4 / 85. 1. 23 / 서울

□충남지부 = △윤인목회원 / 한양건축설계사무소 / 예산군예산읍주교리249 / 85. 1. 17 / 서울

□충북지부 = △강권순회원 / 동방건축설계사무소 / 단양군단양읍하방리196-3 / 85. 2. 8 / 강원

□경남지부 = △김분덕회원 / 동인건축설계사무소 / 경남양산군기장읍대리418-12 / 85. 2. 11 / 부산

휴업 □서울지부 = △도문희회원 / 병양종합건축연구소 / 강남구반포동반포소평2동424호 / 85. 2. 11~85. 8. 10(6개월간) / 797-0447

폐업 □서울지부 = △박종길회원 / 주 · 유공 / 영등포구여의도동26-4 / 85. 2. 18 / 783-8551

벌세 □대구지부 = △장우식회원 / 삼보건축 / 대구시중구동문동9-36 / 85. 2. 7 / 숙환 / 자택

재개 □서울지부 = △안선구회원 / (주)동일건축설계 / 강남구논현동241-6 / 545-0757 / 85. 1. 23

□부산지부 = △김우승회원 / 청구건축설계사무소 / 부산시중구동광동1가15 / 23-0667 / 85. 2. 8

□인천지부 = △한교선회원 / 대성건축설계사무소 / 인천남구주안동200-28 / 82-7759 / 85. 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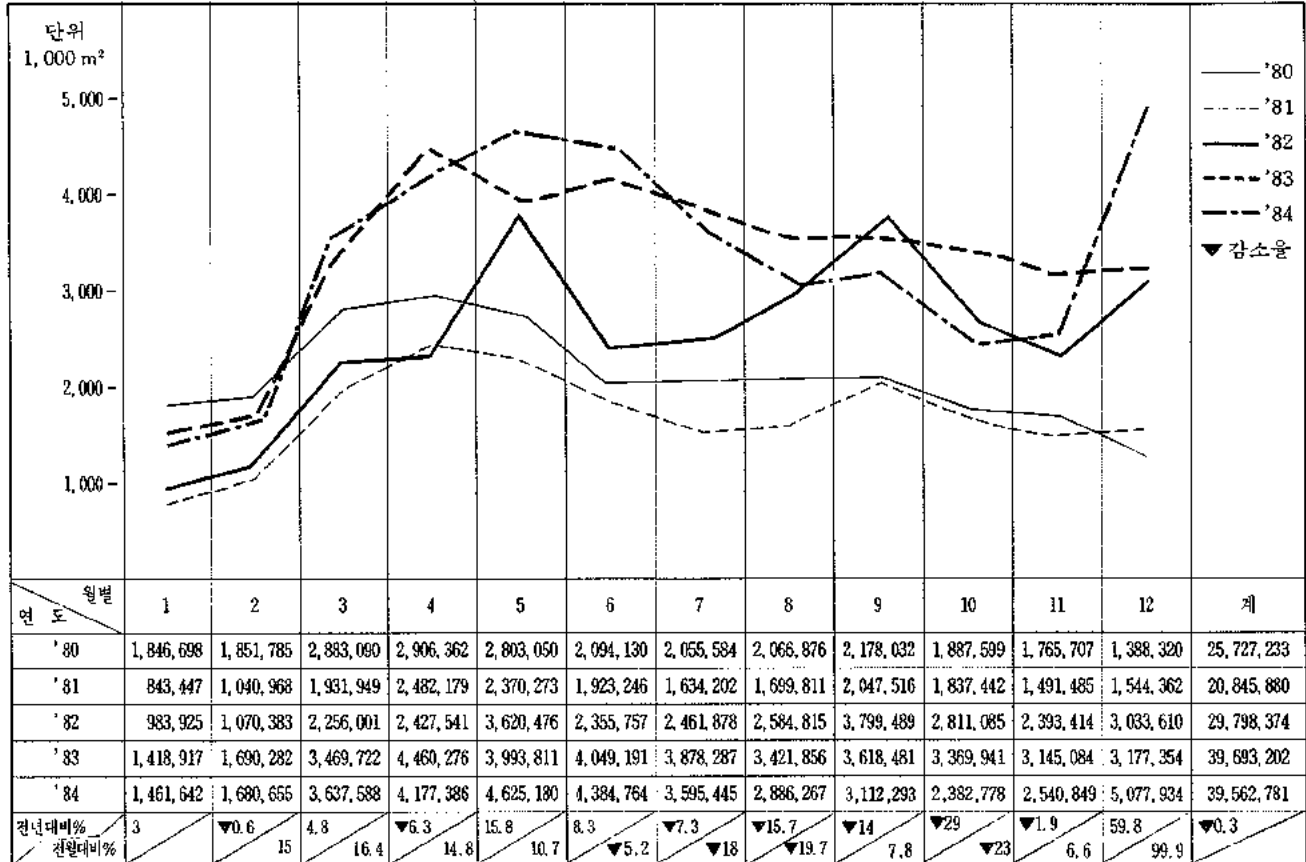
□경기지부 = △윤진우회원 / 윤진우건축사사무소 / 수원시교동11-31 / 6-9218 / 85. 2. 18

**청탁 한번 불신받고
청탁 두번 파멸온다.**

건축허가 (도서신고) 면적변동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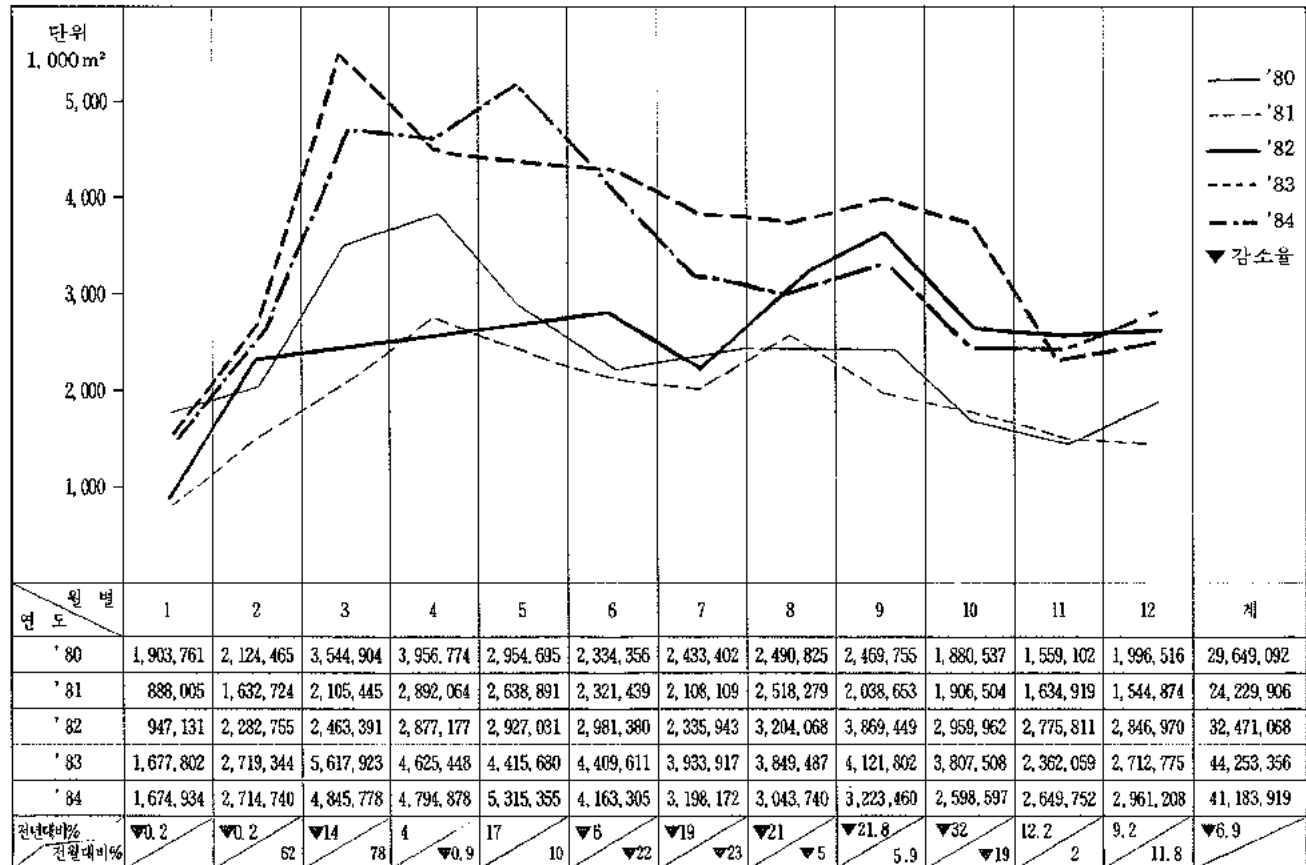
건설부 집계 / 건축허가현황

(84. 12월말 현재)



건축사협회 집계 / 도서신고현황

(84. 12월말 현재)



協會20年史 편찬자료蒐集

우리 大韓建築士協會는 올 10월에 創立 20周年을 맞이합니다. 잊그제 創立總會를 한듯 한데 創立發起人들은 어느 틈에 백발 성성한 원로의 모습으로 변하셨고 작고한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20年 세월이 流水같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20년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20대 청년으로 당당하게 장성한 協會를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20年 동안 쏟으신 원로 회원님들의 귀중한 피와 땀과 눈물은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며, 또한 오늘날 패기 찬 회원님들의 정열은 우리의 중단없는 전진의 表象입니다.

이제 本協會는 그 20년을 정리하여 自史를 엮는 자궁과 보람을 회원

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배 회원님들의 그 찬란한 업적을 후배들에게 오롯이 전하여 기리게 하고 그 史實의 음미 속에서 미래에의 前進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입니다.

20年史 편찬에 도움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빛바랜 사진 한 장이라도, 종이 쓴 文集중의 단 한 권책이라도, 손바닥만한 한편의 글이라도, 혹시 소장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본지 편집실로 연락주시어 활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하여 주시는 자료는 절대 손상이 안가도록 신중히 다룰 것이며 소정의 고료를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建築士」誌를 수집하오니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음

1967년	4 월 호	1970년	9 월 호
1 월 호	5 월 호	2 월 호	10 월 호
2 월 호	6 월 호	4 월 호	1973년
3 월 호	7 월 호	5 월 호	1 월 호
5 월 호	8 월 호	7 월 호	4 월 호
6 월 호	9 월 호	9 월 호	8 월 호
7 월 호	10 월 호	11 월 호	9 월 호
8 월 호	11 월 호	1971년	10 월 호
10 월 호	1969년	1 월 호	11 월 호
11 월 호	2 월 호	2 월 호	1974년
12 월 호	4 월 호	3 월 호	2 월 호
1968년	6 월 호	5 월 호	3 월 호
1 월 호	8 월 호	6 월 호	1975년
2 월 호	10 월 호	7 월 호	8 월 호
3 월 호	12 월 호		